

시시대를 넘어 시세대로

그대들의 청춘을 더할 그날 중앙.

2025
중앙대학교
논술가이드북(인문계열)





2025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가이드북(인문계열)
CHUNG-ANG UNIVERSITY

입학처장 메시지 04

I. 2025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전형 안내

1. 모집단위와 모집인원	16
2. 지원자격	16
3. 전형일정	17
4. 수능최저학력기준	17
5. 전형방법	18
6. 합격자 결정	19
7. 제출서류 및 방법	19



II. 2024학년도 논술전형 결과 분석

1. 모집인원 및 경쟁률	22
2. 지원자 및 합격자 분포	24
3. 논술/교과 성적 현황	26

III. 논술의 이해와 대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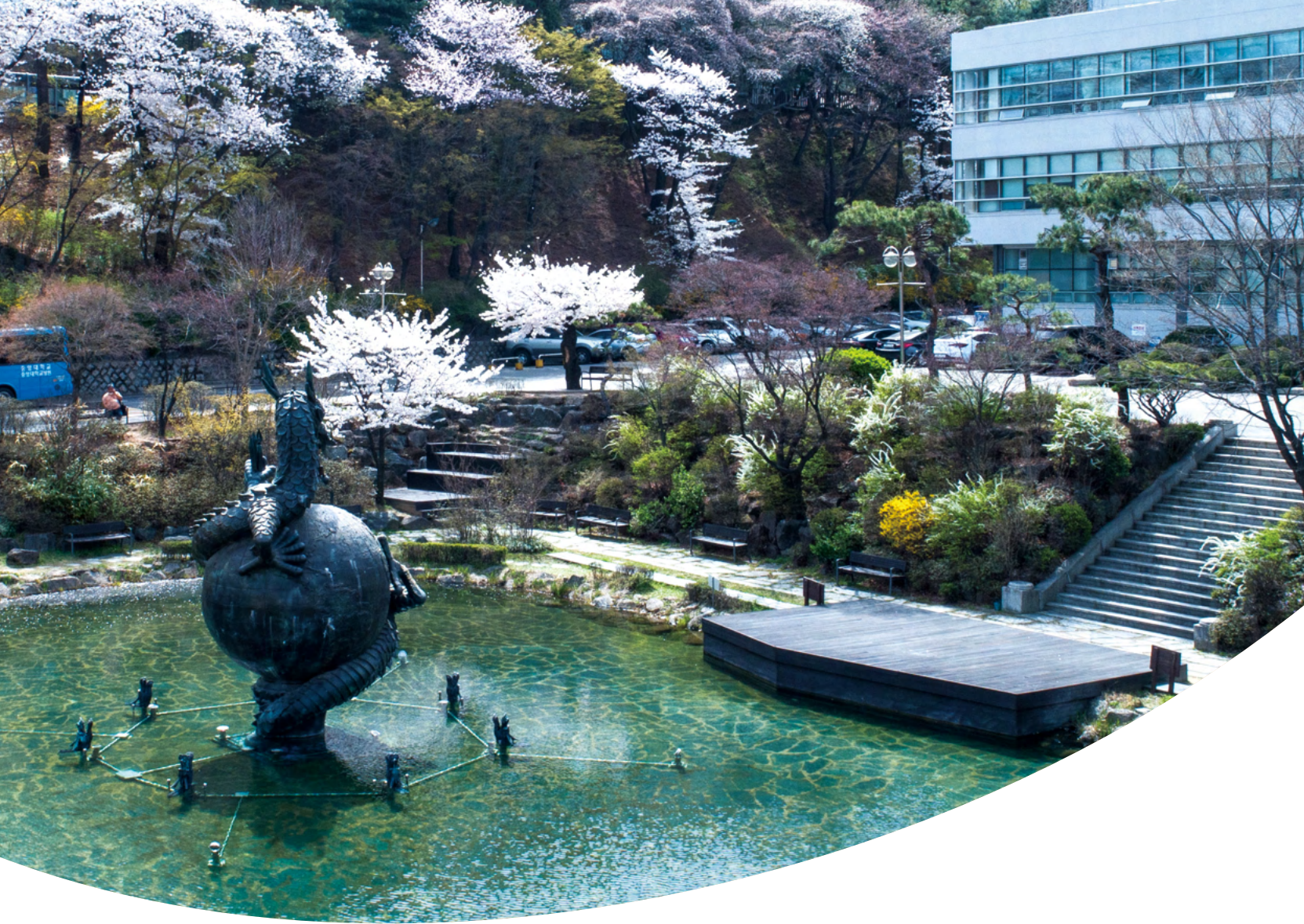
1. 통합 논술에 대한 이해	30
2. 답안 작성을 위한 TIP	30
3. 수리 논술형 문제	31
4. 2024학년도 논술전형 합격자가 들려주는 논술 대비법	32

IV. 실전 대비 모의논술 문제풀이

1. 2025학년도 모의논술: 인문사회계열	36
2. 2025학년도 모의논술: 인문사회계열 문제해설	43
3. 2025학년도 모의논술: 경영경제계열	48
4. 2025학년도 모의논술: 경영경제계열 문제해설	54

V. 202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기출문제 및 해설

1. 인문사회계열	62
2. 인문사회계열 문제해설	69
3. 경영경제계열	75
4. 경영경제계열 문제해설	81



입학처장 메시지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입학처장을 맡고 있는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이상명 교수입니다.

AI 시대를 선도할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 중앙대학교에서 2025학년도 논술 가이드북을 출간합니다.

중앙대학교의 논술 전형은 수험생의 논리적 사고력을 가늠하고 검증하는데 있어서 뛰어난 평가 방법으로 오랫동안 그 명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논리적 사고와 서술 능력은 문제 해결과 의사소통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창의적 사고와 명확한 표현이 더욱 요구되는 AI 시대에 논리적 사고력은 필수적인 기초 소양입니다. 이는 사회 진출 후에도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핵심 역량이 됩니다.



중앙대학교는 이러한 역량을 갖춘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에서 478명의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인문계열 237명, 자연계열 241명을 선발하며, 전형 요소와 반영 비율은 논술 70%, 학생부 30%입니다.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지만, 논술고사를 충실히 준비한 학생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올해의 논술 문제 역시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출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중앙대학교는 수험생, 학부모님, 진학지도 선생님들의 불필요한 혼란과 걱정을 방지하기 위해 논술 시험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왔습니다. 올해도 중앙대학교는 다음 세 가지 원칙을 지킬 것입니다.

-
1. 출제 범위와 문제의 내용은 고등학교 교과 수준을 넘지 않는다.
 2.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를 출제한다.
 3. 논술 문제, 예시 답안, 채점 기준 등 평가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
-

본 논술 가이드북에는 올해 5월에 약 5000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의 논술시험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 출제 문제, 올해 출제 방향, 채점 기준 등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이를 통해 2025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시험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교과 학습만으로도 충분히 논술 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중앙대학교 논술 가이드북은 논술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최고의 지침서로, 중앙대학교로 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을 가장 확실한 길로 안내해줄 것입니다.

힘든 입시 기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잘 유지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중앙대학교는 여러분의 꿈과 열정을 응원하며, 여러분이 성장해 나가는 모든 순간을 함께할 것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중앙대학교는 새로운 출발점으로서 여러분을 맞이하겠습니다.

2025년 봄꽃이 만개한 중앙대학교 캠퍼스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향한 여정에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2024. 7

중앙대학교 입학처장 **이 상 명**

복합 학문
클러스터

미래 과학기술 분야를 선도할 연구중심대학

메타버스대학원 지원사업 선정

우리 대학이 '메타버스대학원 지원사업'에 선정돼 6년간 55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으며 메타버스 글로벌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되었습니다. 메타버스 글로벌 콘텐츠와 기술력을 선도하게 될 이번 사업 주수로 메타버스 관련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게되었으며 차세대 영상 콘텐츠 환경으로 주목받는 메타버스를 위해 공학적 기술과 예술적 콘텐츠 제작 능력을 두루 겸비한 메타버스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첨단소재·나노융합 분야 혁신융합대학 선정

우리 대학이 4년간 총 408억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첨단소재·나노융합 분야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양성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주관하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Convergence and Open Sharing System) 지자체 참여형 사업에 신규 선정되어 연 102억원의 정부재정지원을 4년간 받게 되었고, 융복합 플랫폼 추진의 기반이 될 첨단 제조업을 선도하는 첨단소재·나노융합 분야의 인재들을 길러낼 계획입니다.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선정 고급인력 양성 개시

우리 대학이 5년간 70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바탕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할 에너지 기술분야의 혁신인재를 양성합니다. 산업계가 원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별 교과목 교차 수강을 비롯해 현장실습, 교육 프로그램 공유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기업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애로기술 해결 프로젝트 수행, 인턴십 교류, 에너지산업 패러다임 변화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나노-광융합 바이오의료진단 연구센터, 우수 연구성과 창출 선도연구센터 선정

나노-광융합 바이오의료진단 연구센터는 2020년 선도연구센터로 선정돼 7년간 140억원의 정부 지원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COVID-19와 같은 감염병 질환을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현장 진단시스템과 패혈증 병원균을 신속하게 스크리닝하는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선도연구(SRC) 지원사업

메타리셉툼 제어 연구 센터 | 배리곡를 기반 신물성 연구센터 | 미생물 생존 시스템 연구센터

✓ 선도연구(ERC) 지원사업

나노-광융합바이오의료진단연구센터

친환경건축연구센터(CSBR) 선도연구센터(ERC) 신규과제 선정

CSBR은 2030년 2월까지 135억 원의 지원금을 받으며 '순환경제 기반 탄소중립 건축센터'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건축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핵심기술과 통합운영 플랫폼을 제안하고 글로벌 리딩 산·학·연·관 협력 거점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메타리셉툼 제어 연구센터 선도연구센터(SRC) 후속과제 선정

약학대학 메타리셉툼(Metareceptome) 제어 연구센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의 후속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3년간 39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으며, 암 전이 원인을 규명하고 신규 기술과 연구 결과물들을 관련 기업에 기술이전하고 산학협동 공동연구 과제를 적극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연구센터로 자리매김 할 계획입니다.

학문분야별 세계대학 순위 9개 분야 랭크

교육 여건, 연구의 질, 산학협력을 포함하는 5개 지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THE(Times Higher Education)의 학문 분야별 순위에서 중앙대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9개 학문 분야가 랭크되었습니다. 종합대학으로서의 면모를 잘 드러낸 우리 대학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 향후 글로벌 평가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구비 수주 전국 5위 등극 연구중심대학 위상 입증

우리 대학은 전국 종합사립대학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연구비를 수주하며, 미래 과학기술 분야를 선도할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CAU 대표 연구소를 육성하고, 신진 연구자 지원을 확대하는 등 더 나은 연구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앙대학교는 적극적인 연구비 수주와 첨단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융복합 연구중심 대학으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었습니다. 뛰어난 연구 역량을 인정받아 전국 종합사립대학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연구비를 수주하였고, 세계 대학 순위에서도 상위에 이름을 올리며 연구대학으로서의 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단단한 인프라와 차별화된 비전으로 연구중심대학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학문 전공성과 AI 기술을 융합하는 AI 캠퍼스 구축 - AI+X 교육



AI 기반으로 첨단 산업 시대를 공략하는 중앙의 특별한 시선

AI 시대 선도 진취적 인재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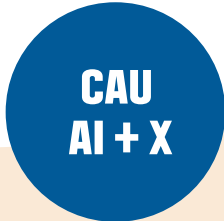
우리 대학은 AI학과와 AI대학원, AI 공동 연구소 등으로 AI 교육과 연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중앙인이 AI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학년 부터 AI 관련 강의를 필수 교양 과목으로 지정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가상융합대학' 대학 교육의 신대륙

가상융합대학(Virtuallege)은 실감 미디어와 메타버스 기반으로 온라인에서 학위 취득이 가능한 디지털 신기술 중심 단과대학입니다. 학생들은 확장현실(XR)과 같은 가상현실 기반의 수업을 통해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경험하며 학습합니다.



전공 구분 없이 모든 분야와 AI를 융합한 'CAU AI+X'로
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중앙대학교.
대학 교육의 길잡이로서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딘 중앙 안에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고 특별한 세상을 만들어 갈
창의 인재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AI 학술대회 논문 게재 성과

우리 대학 첨단영상대학원이 세계 최고 인공지능(AI) 분야 학술대회 CVPR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4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술과 공학의 융합으로 만들어낸 첨단 영상대학원의 연구성과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신약개발 AI 대회 대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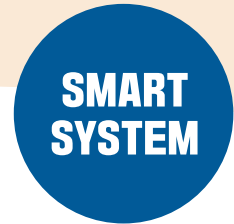
약학대학의 김지산·한리 학생과, AI 대학원의 장준보 학생이 '신약개발 인공지능(AI) 경진대회'에서 대상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대회는 신약개발을 위해 AI를 이용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열렸으며, 총 1,254개 팀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우리 대학 KISTI 업무협약 체결

우리 대학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국가 R&D 지식·정보 자원 및 인공지능(AI) 기술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KISTI의 서비스와 연구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첨단 연구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앙의 스마트 학생지원 시스템은 신입생의 설렌 첫걸음부터 졸업생의 벅찬 미래까지 함께합니다.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시스템은 더 값진 하루를 약속하고, 이 시간들이 쌓여 중앙 인재들의 역량은 점점 향상됩니다.

스마트한 학생지원시스템으로 이뤄가는 미래



학생역량성장지원 시스템

대학에서의 첫걸음부터 사회의 첫걸음까지 캠퍼스 라이프 전반의 학업 활동, 역량개발, 사회 진출 등 모든 학생 활동을 지원하는 중앙의 선진 시스템입니다.

학생 자기계발
통합관리 시스템
레인보우시스템




대학 생활의 길잡이가 있어 든든했어요

이** 학생(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진로를 '회계사로 결정'한 뒤 고민이 많았는데, 레인보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 덕에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다. 과제 및 취업 활동 중 다양한 정보를 얻었고, 합격자 자소서가 큰 도움이 되었다.

AI 기반 학습자 맞춤형
교육지원 시스템
이 어드바이저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준 랜선 선배"

이** 학생(사범대학 영어교육과)

e-Advisor는 입학 전부터 강의에 관한 고민이 많았던 내게 많은 힘을 줬다. 이수한 강의와 졸업요건에 따라 강의 계획을 세워준 덕에 고민 없이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스마트한
One-Stop 공금증 해결사
챗봇 찰리



"스마트한 친구, 찰리가 알려드립니다."

우** 학생(창의ICT공과대학 융합공학부)

3학년 편입 때 만난 챗봇 찰리는 친절하고 신속하게 학교에 관한 정보를 알려줬다. 학과 사무실 연락처, 장학금 종류 및 신청 기간, 졸업요건 등 찰리가 모든 걸 알려줄 테니 학교 생활은 걱정하지 말자.

로스쿨 변시 '돌풍' 12기 재학생 전원 합격, 수석합격자 배출

2023년 5월 10일 법무부가 공개한 로스쿨별 합격률을 살펴보면 우리 대학 로스쿨은 지난해에 비해 합격률이 19.27%p 상승해 전체 로스쿨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전체 로스쿨 가운데 합격률 4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재학중인 응시생 전원이 합격한 것은 합격률이 87%였던 1회를 제외하고는 우리 대학이 처음입니다. 합격자 상위 50명 중 우리 대학 로스쿨 출신이 7명이 포함돼 질적, 양적으로 최고의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성적에 따른 맞춤형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대일 멘토링을 시행하는 등 개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다양한 노력을 통한 로스쿨의 적극적인 지도와 경쟁력 있는 시스템이 이번 성과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변호사 시험 2년 연속 전국 4위 등극

우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변호사시험 합격률 4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법학 교육 체계를 갖췄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법무부가 최근 공개한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 대학 로스쿨이 응시생 62명 가운데 43명이 합격해 69.4%의 합격률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이 기록한 합격률 69.4%는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수치로, 상위 4개 대학에 포함된 만큼 우리 대학의 합격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번 변시 응시자는 모두 3290명이었으며, 합격자는 1745명으로 전국 평균 합격률은 53%였고 우리 대학의 합격률 69.4%와 차이가 크게 났습니다. 우리 대학 로스쿨이 구축한 법학 교육 체계의 전문성과 우수성은 변시 이외에도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SMART

공인회계사 시험(2023)

합격자 배출 수 **5** 위
국내대학

※ 최근 5개년 국내대학 3위~5위(2019~2023)

중등교사 및 유치원 임용시험(2023)

임용시험 합격 **94** 명

※ 최근 5개년 합격자 총 487명

중앙은 우수 인재 선발, 혁신적인 교육과 연구 체계를 포함한
 유기적인 육성 체계를 갖추었고,
 다양한 교육과정과 맞춤형 시스템을 바탕으로
 중앙 인재들은 국가 발전에 필요한 고급 인력으로 성장해 갑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미래 인재 양성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 반도체 인재 육성

미래 한국 먹거리 과학기술 선도 대학
 반도체 분야 특화 교육과정 운영
 국가 발전에 필요한 고급 인력 배출

- [디지털혁신공유대학사업] '차세대 반도체' 분야 참여
모든 학생에게 반도체 교육 제공, 연간 12억원 지원
- [시스템반도체 융합전문인력 육성사업] 선정
2026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약 96억원 지원
- [반도체 전공트랙, 차세대반도체 설계전문인력 사업] 선정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연간 14억원 추가 재원 확보
- [BK21 사업 '지능형반도체' 분야] 선정
석박급 반도체 고급인재 육성, 4년간 약 56억원 지원
- [중앙대-SK하이닉스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반도체 협력센터를 통한 석·박급 인재 채용 연계



기업과 함께 가르치는 현장연계 교육과정

✓ 기업체 연계 ‘계약학과’ 운영

(글로벌ESG건설학과, 공공갈등정보학과, 보안공학과)

✓ 기업 요구 맞춤 ‘주문식 교육과정’

- 물류혁신 인재양성(롯데글로벌로지스)
- 해운비즈니스: 미래와 전략(HMM)
- 기업물류혁신(포스코플로우)
- LGenius(LG디스플레이)

✓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

현장실습 전담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현장 실무 역량 강화
(2023년 360명 참여)

산업체 타깃형 교육과정 운영

산업계가 원하는
교육과정 그대로!

5개 분야 “최우수” 등급 인정

소프트웨어, 반도체, 정유/화공,
정보통신, 지능형로봇
(2021~2023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결과)



문제해결능력, 팀워크를 배양하는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운영

연간 4,100명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이수
시제품제작비 총 8천만원, 교육지원비 총 1억원 지원
(2023 대학정보공시)



취업률 72% 기록 ‘역대 최고’, 다빈치캠 70% 돌파 서울 주요대학 최상위권 질주

우리 대학이 역대 최고치인 72%의 취업률을 기록하며, 취업에 강한 대학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다빈치캠퍼스는 처음으로 취업률 70%를 돌파하며 새로운 기록을 써 내렸습니다. 최근 집계된 취업률 공식정보에 따르면, 우리 대학의 취업률은 서울캠퍼스·다빈치캠퍼스 합산 72%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졸업자 중 대학원 진학 등의 사정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인원을 제외한 취업대상자 5036명 가운데 3626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기존에도 취업 분야에 강세를 보여 온 우리 대학이지만, 이번 취업률 수치는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우리 대학 역사상 가장 높은 취업률로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 기승을 부리던 시기 68.3%로 잠시 주춤했던 우리 대학의

취업률은 70%를 거쳐 72%가 되기까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상승곡선을 그리는 중입니다. 아울러 서울권 주요대학 가운데 종합 4위를 기록할 정도로 취업률이 높다는 것은 곧 우리 대학이 명실상부한 진로·취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했음을 잘 나타내는 지표이며, 우수 인재 선발, 혁신적인 교육·연구 체계, 레인보우 시스템과 CAU e-Advisor를 비롯한 각종 학생지원 시스템 등 유기적인 인재 육성 체계를 잘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학은 인재개발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취업지원·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취업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FUTURE



I. 2025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전형 안내

1. 모집단위와 모집인원	16
2. 지원자격	16
3. 전형일정	17
4. 수능최저학력기준	17
5. 전형방법	18
6. 합격자 결정	19
7. 제출서류 및 방법	19



2025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전형 안내

교과
20

비교과
10

전형요소

논술
70

- ▶ 논술 70%, 학생부 30%(교과 20% + 비교과(출결) 10%)로 선발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 ▶ 논술: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며 인문계열은 통합형, 자연계열은 단일 교과형(수학)으로 출제
- ▶ 교과: 석차등급 상위 5개 과목 반영
- ▶ 비교과(출결): 미인정 결석 1일 이하이면 만점



모집단위와 모집인원

계열	캠퍼스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계열	캠퍼스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	서울	인문	국어국문학과	6	자연	서울	자연과학	물리학과	6			
			영어영문학과	9				화학과	6			
			유럽 문화학부	독일어문학				8	생명과학과	6		
				프랑스어문학				8	수학과	6		
				러시아어문학			8	공과	사회기반 시스템공학부	건설환경플랜트공학	9	
			아시아 문화학부	일본어문학			6		도시시스템공학	6		
				중국어문학			6		건축학부	11		
			철학과	6			에너지시스템공학부		9			
			역사학과	6			화학공학과	10				
			사회과학	정치국제학과			6	기계공학부	17			
				심리학과			7	창의ICT 공과	전자전기공학부	18		
				문헌정보학과			6		융합공학부	8		
				사회복지학부			6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학부	17		
				사회학과			7		AI학과	7		
		도시계획·부동산학과		6			약학	약학부	26			
		공공인재학부		11				의과	의학부	18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10			적십자간호		간호학과(자연)	13		
		사범	교육학과	6			다빈치	생명공학	생명자원 공학부	동물생명공학	6	
			영어교육과	7						식물생명공학	6	
		경영경제	경제학부	11					식품공학부	식품공학	7	
			응용통계학과	6						식품영양	6	
			광고홍보학과	6				시스템생명공학과		6		
			국제물류학과	6				공과	첨단소재공학과	7		
			경영학부	경영학					54	예술공학	예술공학부	10
		글로벌금융		6				논술(논술)				
		적십자간호	간호학과(인문)	13				478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학년 수료예정자 중 상급학교 진학대상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전형일정

1) 전형 전체 일정

구분	일시	비고
인터넷 원서접수	2024. 9. 10.(화) 10시 ~ 13.(금) 18시	
서류제출	2024. 9. 10.(화) 10시 ~ 20.(금) 16시	• 해당자에 한해 온라인 업로드: 수시 모집요강 p.61 참고
고사장 조회 및 수험생 유의사항 공고	2024. 11. 19.(화) 14시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조회 • 시험장소: 서울캠퍼스 내 고사장
논술고사	자연: 2024. 11. 23.(토) 인문: 2024. 11. 24.(일)	
최초 합격자 발표	2024. 12. 13.(금) 14시	
최초 합격자 문서 등록	2024. 12. 16.(월) ~ 18.(수)	• 등록: 수시 모집요강 p87~90 참고 • 세부 일정은 홈페이지 추후 공고
충원 합격자 발표	2024. 12. 19.(목) ~ 26.(목) 18시	
합격자 전체 등록금 납부	2025. 2. 10.(월) ~ 12.(수)	

※ 상기 일정은 전형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공고

2) 모집단위별 논술고사 일정

구분	11. 23.(토) - 자연계열		11. 24.(일) - 인문계열	
	대학	모집단위	대학	모집단위
1교시 (10:00 -12:00)	자연과학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수학과	경영경제	경영학부 전체, 경제학부, 응용통계학과, 광고홍보학과, 국제물류학과
	공과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전체,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건축학부, 화학공학과, 기계공학부, 첨단소재공학과		
	생명공학	생명자원공학부 전체, 식품공학부 전체, 시스템생명공학과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학부, 시학과		
	예술공학	예술공학부		
	적십자간호	간호학과(자연)		
2교시 (14:00 -16:00)	창의ICT 공과	전자전기공학부, 융합공학부	인문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유럽문화학부 전체, 아시아문화학부 전체, 철학과, 역사학과
	약학	약학부	사회과학	정치국제학과, 공공인재학부, 심리학과, 문헌정보학과, 사회복지학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사회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의과	의학부	사범	교육학과, 영어교육과
			적십자간호	간호학과(인문)

※ 지원한 모집단위가 배정되어 있는 시험일 및 시간에 응시해야 함(타 시험시간에 응시할 경우 퇴실 조치)

※ 입실은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완료해야 하며, 시험 시작 이후 입실 불가

수능최저학력기준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등급을 반영하며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함

캠퍼스	계열	모집단위	영역별 기준	탐구영역 반영 방법	공통	
서울	전체	전체(약/의학부 제외)	국어, 수학, 영어, 사/과탐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상위 1과목 반영	한국사 4등급 이내
		약학부		4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자연	의학부				
다빈치		전체	2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상위 1과목 반영		

¹⁾ 2과목 평균은 소수점 자리 버림 없이 그대로 반영(예시: 4개 영역 등급 합 5.5인 경우 미충족)

※ 영어 등급 반영 시 1등급과 2등급을 통합하여 1등급으로 간주하여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여부를 산정

※ 제2외국어와 한문은 반영하지 않음

2025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전형 안내

전형방법

1) 전형요소: 논술 70% + 학생부 교과 20% + 학생부 비교과(출결) 10%

※ 전형 최고점 1,000점, 최저점 0점 기준

2)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수시 모집요강 p.79-82 참고)

①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반영대상: 지원자 전체(단, 비교내신 대상자 제외)

교과		비교과(출결)
반영 교과	반영 교과의 반영 방법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교과	석차등급 상위 5개 과목의 환산점수 활용 ※ 석차등급이 없는 과목은 반영하지 않음 ※ 교과별/학년별 가중치 없음	미인정 결석 일수 기준으로 환산점수 반영

② 비교내신 대상 및 반영 방법

비교내신 대상	반영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고교 2023년 2월 이전 졸업자(2023년 2월 졸업자 포함)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교 졸업(예정)자, 학교생활기록부가 없거나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석차등급을 산출할 수 없는 자 	논술성적에 의한 비교내신 적용

3) 논술

① 출제수준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
- 대학에서의 수학에 필요한 사고력과 쓰기 능력 측정에 중점을 둔 출제

② 출제유형

계열	논술유형	모집단위	출제유형	시험시간
인문	인문사회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간호학과(인문)	언어논술(3문항)	120분
	경영경제	경영경제대학	언어논술(2문항), 수리논술(1문항)	
자연	자연	전 모집단위	수리논술(4문항)	

③ 출제범위

계열	논술유형	출제유형	교과	과목명
인문	인문사회/ 경영경제	언어논술	국어교과	국어, 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 언어와 매체
			사회교과	통합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경영경제	수리논술	수학교과	수학,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자연	자연	수리논술	수학교과	수학,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합격자 결정

- 1) 모집단위별 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2) 결시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 3) 본교 입학전형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결격자(지원자격 미충족자 포함)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 4) 동점자 처리 기준

구분	동점자 처리 기준
인문	논술 총점 고득점자 → 2번 문항 점수 고득점자 → 1번 문항 점수 고득점자 → 3번 문항 점수 고득점자
자연 (약학부/의학부 포함)	논술 총점 고득점자 → 4번 문항 점수 고득점자 → 3번 문항 점수 고득점자 → 2번 문항 점수 고득점자 → 1번 문항 점수 고득점자

※ 동점자 처리 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인 경우 전원 선발함

- 5) 적격자가 없는 경우 모집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및 방법

1) 제출서류

구분	제출대상	제출서류	세부내용	세부내용
필수	전체	학교생활기록부 및 관련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제공 동의자*: 원서접수 시 온라인 제공 동의 선택 • 그 외: 온라인 업로드 (2024. 9. 10.(화) 10시 ~ 20.(금) 16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고교: 학교생활기록부 (2023년 2월 이전 졸업자의 경우 졸업증명서로 제출 가능) • 외국고교: 졸업(예정)증명서 • 검정고사: 합격증명서

* 온라인 제공 동의: - 국내고: 2017년 2월 ~ 2025년 2월 졸업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 지원자 (2005년 2월 ~ 2016년 2월 졸업자는 희망 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생성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
- 검정고사: 2016년 1회차 ~ 2024년 1회차 검정고사 온라인 제공 동의 지원자

2) 서류제출 방법

- 서류제출 대상자는 '1) 제출서류' 표의 해당 서류를 아래 방법에 따라 온라인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업로드	기한	2024. 9. 10.(화) 10시 ~ 20.(금) 16시, 해당 기간 내 재업로드 가능
	대상 서류	'1) 제출서류'의 해당 서류
	방법	원서접수 완료 후 접수확인 페이지에서 대상 서류 전체를 1개의 파일로 스캔하여 온라인 업로드 (50MB 이내, PDF만 가능)

※ 서류제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온라인 업로드로 제출하며, 우편 및 방문제출이 불가합니다.
- 보완서류 발생 시 요청시기: 2024년 11월 ~ 12월 중(수시 모집요강 p.23 '지원자 유의사항 - 7)번' 참고)
- 영어 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또는 원본대조필된 사본)과 함께 공증받은 영문 또는 국문 번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와 입학원서 인적사항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개명했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지원자),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중앙대학교 학칙 제21조(입학허가 및 취소)에 의거하여, 대학전형 간 부정행위(제출서류의 허위 기재, 위변조 등의 기타 부정행위)로 지원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수험표는 별도 제출하지 않으며 전형 당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 최종합격(등록)자 제출서류 원본 제출 안내
 - 최종합격(등록)자는 온라인 업로드한 '제출서류'의 원본을 2025. 3. 4.(화)까지 본교에 제출해야 합니다.(온라인 제공 동의를 한 학교생활기록부는 제출하지 않음)
 - 최종합격(등록)자 중 고교 졸업예정자는 지원자격 재확인을 위하여 고교졸업증명서 원본 1부를 **고교 졸업일 이후** 발급하여 2025. 3. 4.(화)까지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II. 2024학년도 논술전형 결과 분석

1. 모집인원 및 경쟁률	22
2. 지원자 및 합격자 분포	24
3. 논술/교과 성적 현황	26



2024학년도 논술전형 결과 분석

모집인원 및 경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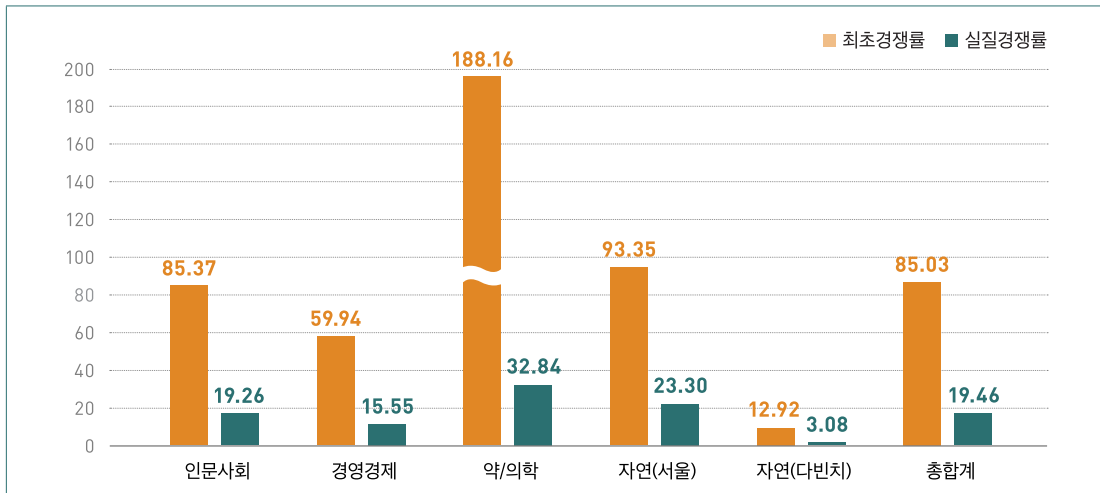
- 논술전형 경쟁률 85.03:1 (478명 모집, 40,642명 지원)
- 의학부(203.42:1), 약학부(176.56:1),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129.22:1), 소프트웨어학부(111.25:1), 전자전기공학부(107.72:1), 생명과학과(102:1) 심리학과(101.5:1) 최상위 경쟁률 기록

[표1-1] 논술전형 경쟁률 및 총원율

모집계열	모집인원	지원인원	최초경쟁률	실질경쟁률	총원율
인문사회	129	11,013	85.37:1	19.26:1	14.6%
경영경제	88	5,275	59.94:1	15.55:1	12.0%
약/의학	44	8,279	188.16:1	32.84:1	12.0%
자연(서울)	165	15,403	93.35:1	23.30:1	22.9%
자연(다빈치)	52	672	12.92:1	3.08:1	23.5%
총계	478	40,642	85.03:1	19.46:1	18.0%

※ 24년 7월 18일 자료 자연(서울), 자연(다빈치)의 정보가 정정되어 인쇄본과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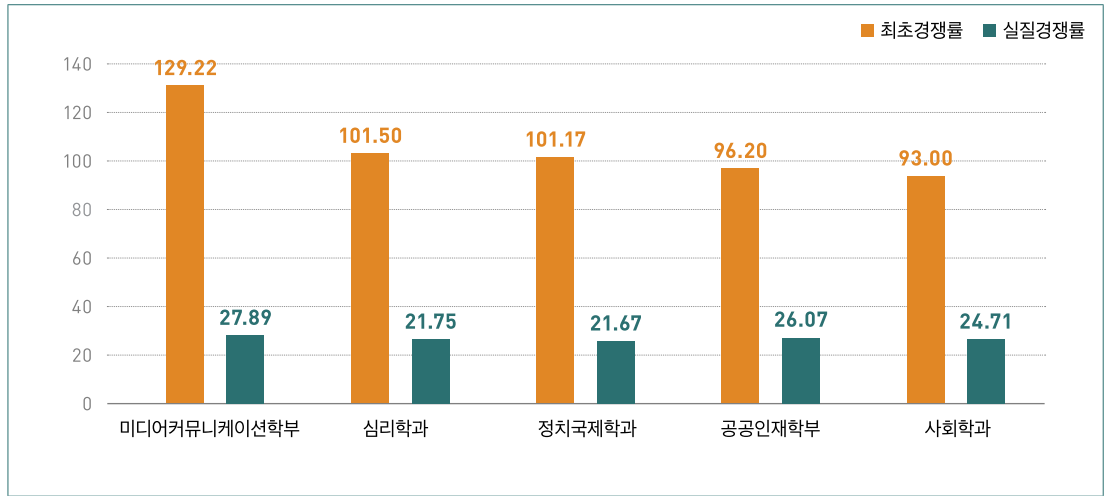
[그림 1-1] 2024학년도 논술전형 최초경쟁률 및 실질경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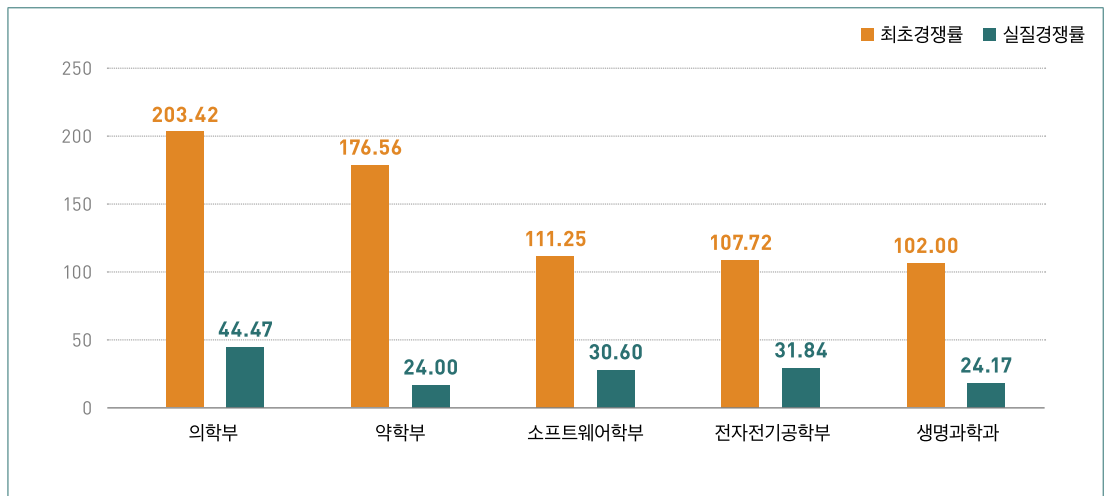
2024학년도 논술전형 경쟁률은 전체 85.03:1로, 전년도(70.32:1) 보다 상승하였다. 이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의 완화로 수험생의 접근성을 높인 결과로 보인다. 논술전형의 경쟁률은 수시모집 타 전형에 비해 높지만, 실질 경쟁률은 최초경쟁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원서접수 마감 후 공지되는 최초 경쟁률에 주목할 필요는 없다. 논술계열별 최초경쟁률과 실질경쟁률(응시율/수능최저기준통과율 적용)을 비교해보면 **인문사회는 19.26:1, 경영경제는 15.55:1, 자연(서울)은 23.30:1 등 실질경쟁률이 최초경쟁률 대비 1/4 수준으로 낮은 모습을 보인다.**

서울 소재 자연계열 모집단위(학과)의 2024학년도 평균경쟁률은 89.80:1로 상승하였다. 의학부의 경우 203.42:1의 경쟁률로 지난해(238:1)와 비교하여 하락하였으며, 이와 반대로 약학부는 176.56:1의 경쟁률을 보여 지난해(126.77:1) 대비 높은 경쟁률 상승을 기록했다. 다빈치캠퍼스 자연계열 모집단위는 12.25:1로 자연계열 평균경쟁률보다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림1-2] 인문계열 경쟁률 상위 5개 모집단위



[그림1-3] 자연계열 경쟁률 상위 5개 모집단위



계열별 경쟁률이 가장 높은 다섯 개 학과는 [그림 1-2], [그림 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문계열에서는 사회과학대학 소속 학과의 경쟁률이 높은 편이었으며, 이 중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와 심리학과는 11년 연속 최상위 경쟁률을 보이며 인기 학과임을 입증하였다. 자연계열에서는 의학부의 경쟁률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았고, 의학부와 약학부를 제외하면 소프트웨어학부가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2024학년도 논술전형 결과 분석

지원자 및 합격자 분포

- 지원자 및 합격자의 약 70% 일반고 출신 학생이 차지
- 지원자의 약 33%, 합격자의 약 42%가 고3(졸업예정자)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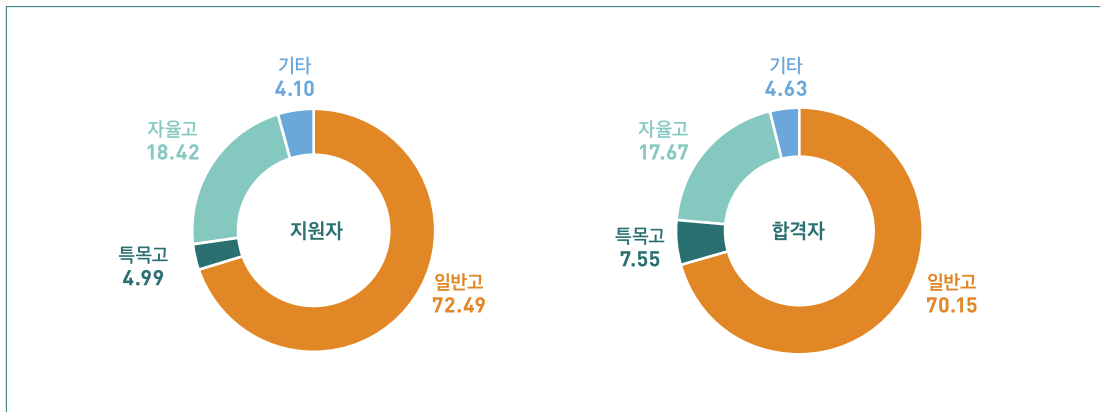
1) 고교 유형별 분석

합격자의 70%가 일반고 출신이며, 17.7%가 자율고, 7.5%가 특목고 출신 학생으로, 전년대비 일반고가 약진하고 자율고 및 특목고가 소폭 하락하였다. 특목고의 지원대비 합격비율은 인문계열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자연계열의 경우 지원자 대비 합격자 비율이 낮았다.

[표2-1] 논술전형 지원/합격자의 고교유형별 현황(%)

계열	지원				합격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기타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기타
인문	71.83	10.07	13.19	4.91	66.93	15.94	12.75	4.38
자연	72.94	1.59	21.90	3.57	72.59	1.20	21.39	4.82
전체	72.49	4.99	18.42	4.10	70.15	7.55	17.67	4.63

[그림2-1] 논술전형 지원/합격자의 고교유형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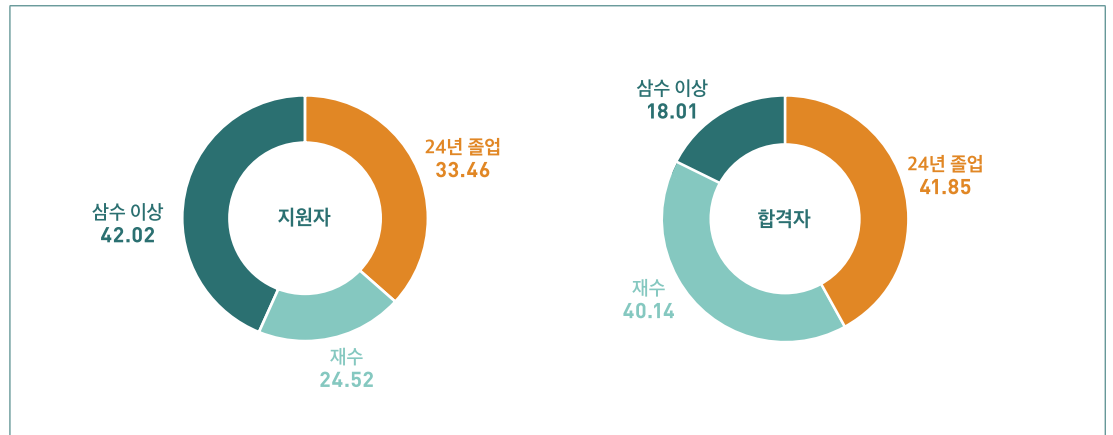
2) 고교 졸업시기별 분석

지원자 중 33.46%가 고3(졸업예정자)였으며, 합격자 비율은 41.85%로 지원 비율 대비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 계열별로는 인문계에서 재수생이, 자연계에서는 고3 지원자가 강세를 보였다.

[표2-2] 논술전형 지원/합격자의 고교졸업시기별 현황(%)

계열	지원			합격		
	24년 졸업(고3)	재수	삼수 이상	24년 졸업(고3)	재수	삼수 이상
인문	32.30	45.14	22.56	29.09	49.00	21.91
자연	34.24	39.94	25.82	51.51	33.43	15.06
전체	33.46	24.52	42.02	41.85	40.14	18.01

[그림2-2] 논술전형 지원/합격자의 고교졸업시기별 현황(%)



2024학년도 논술전형 결과 분석

논술/교과 성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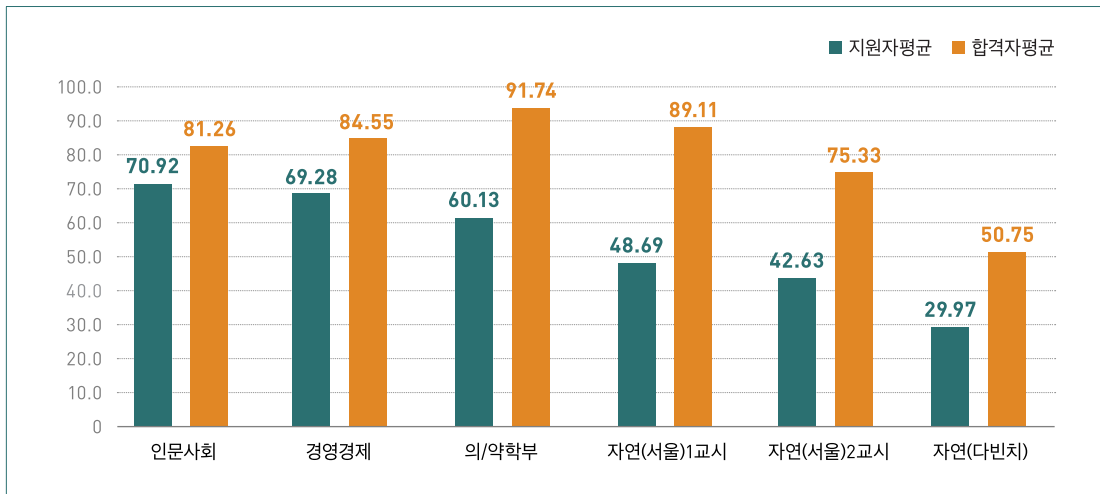
- 합격자 논술 인문사회 79.28점, 경영경제 84.55점, 자연(서울) 75.22점, 자연(다빈치) 52.7점
- 경영경제, 자연계열 논술 수리문항의 고득점 중요
- 2024학년도 자연계열 과학논술 폐지, 확률과 통계 출제범위 추가

1) 논술성적 분석

[표 3-1] 논술 유형별 지원/합격자 논술성적 현황

캠퍼스	구분	교시	지원		합격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서울	인문사회	2교시	70.92	8.38	81.26	2.87
	경영경제	1교시	69.28	10.37	84.55	1.66
	자연 (의/약학부 제외)	1교시	48.69	20.22	89.11	6.10
		2교시	42.63	14.78	75.33	4.76
	의/약학부	2교시	60.13	18.35	91.74	4.29
다빈치	자연	1교시	29.97	17.63	50.75	14.82

[그림 3-1] 논술 유형별 지원/합격자 논술성적 현황



본교 논술은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제1항에 의거, 사교육을 최소화 하고 공교육을 공고히 하기 위해 논술전형에 출제되는 제 시문과 개념 모두 고교과정의 교과서에서 인용하고 있다. 따라서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논술 가이드북을 활용한다면 논술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본인이 지원하는 계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 인문계열은 지원하는 모집단위에 따라 인문사회논술 또는 경영경제논술을 응시하게 된다. 인문사회논술은 언어논술 3문항, 경영경제논술은 언어논술 2문항과 수리논술 1문항으로 구성된다. 인문사회논술의 합격자 평균점수는 **81.26점**, 경영경제의 합격자 평균점수는 **84.55점**이다. 경영경제논술의 경우 합격자 대부분이 수리논술에서 고득점을 받았다. 수리논술의 난도가 높지 않은 만큼 풀이 과정을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접근과정과 정답을 작성하되 수식을 통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계열은 작년 2024학년도 논술전형부터 과학논술이 폐지되어 기존 수학 3문항, 과학 1문항에서 수학 4문항으로 변경된 점이 가장 큰 변화다. 기존에 과학문항보다 수학문항에서 변별력이 높았던 만큼, 지원자 평균 점수와 합격자 평균 점수의 간극이 더욱 벌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같은 자연계열 논술 임에도 1교시와 2교시간 합격자 평균점수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결과만 보았을 땐 자연계열 2교시가 1교시보다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보이며, 이 점을 참고하여 기출문항을 분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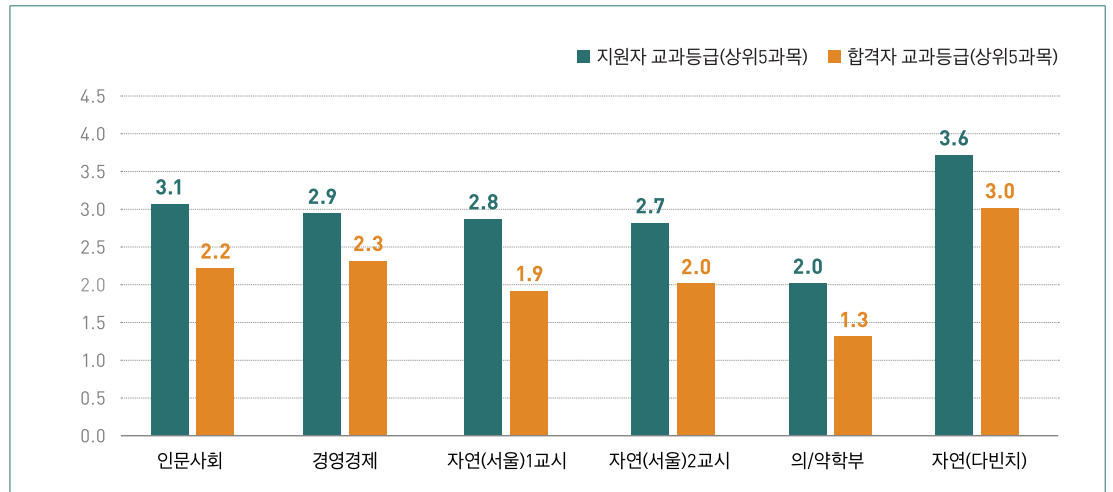
다빈치캠퍼스는 합격자 평균이 50.75점, 표준편차가 14.82에 달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통과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 교과 성적 분석

[표 3-2] 지원/합격자의 교과 성적(상위 5과목) 현황

캠퍼스	구분	교시	지원		합격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서울	인문사회	2교시	3.1	1.2	2.2	0.9
	경영경제	1교시	2.9	1.2	2.3	1.0
	자연 (의/약학부 제외)	1교시	2.8	1.1	1.9	0.8
		2교시	2.7	1.1	2.0	0.8
	의/약학부	2교시	2.0	1.1	1.3	0.8
다빈치	자연	1교시	3.6	1.2	3.0	1.0

[그림 3-2] 지원/합격자의 교과 성적(상위 5과목) 현황



교과 성적 반영방법 중 가장 큰 특징은 전체 과목을 모두 반영하는 것이 아닌, 상위 과목에 한해 교과 성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1~3학년 반영교과 전체 이수과목 중 학년별, 과목별 가중치 없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 중 석차등급으로만 가장 높은 상위 5과목을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교과 반영 비율은 높지 않으며, 논술 성적이 당락에 크게 좌우함을 알 수 있다.

올해 교과 성적 반영은 2025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2024년 2월 졸업자까지 적용하며, 이전 졸업자 및 해외고교 졸업자 등은 논술 성적에 의한 비교 내신을 적용한다.



2024학년도 논술전형 결과 분석

논술/교과 성적 현황

캠퍼스	대학	모집단위	최초 경쟁률	실질 경쟁률	논술점수		교과등급*	
					응시자평균	합격자평균	합격자평균	
서울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73	17.83	69.9	80.4	2.3	
		영어영문학과	81.1	20.7	70.2	79.2	1.7	
		유럽문화학부	독일어문학	68.25	13.75	70.2	79.6	2.3
			프랑스어문학	72	14.5	67.5	78.2	2.6
			러시아어문학	72.75	13	74	84	3.1
		아시아문화학부	일본어문학	67.75	15	73.5	84.1	2.5
			중국어문학	66.5	12.5	74.4	85.5	2.4
	철학과	79.4	17.6	75.6	84.4	2.3		
	역사학과	71	14.2	71.7	80.2	2.7		
	사회과학대학	정치국제학과	101.17	21.67	73.9	85.2	2.9	
		심리학과	101.5	21.75	69.8	81.3	2.1	
		문헌정보학과	77.5	19.25	70.4	82.5	1.6	
		사회복지학부	74.5	15.67	74	84.6	1.9	
		사회학과	93	24.71	77	85	2.1	
		도시계획·부동산학과	84.8	18	69.7	80.1	1.8	
		공공인재학부	96.2	26.07	68.8	80.5	2.3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129.22	27.89	71	81.7	2.4	
	사범대학	교육학과	72.6	14.4	71.4	79.2	2.2	
		영어교육과	74.57	18.86	68.3	79.6	2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55.82	13.91	71.9	86	1.9	
		응용통계학과	56.4	13.2	72.1	86.3	2.5	
		광고홍보학과	58.67	11.83	73.6	86.6	2.6	
		국제물류학과	51.4	8.6	71.5	85.2	3.4	
		경영학부	경영학	62.15	17.24	67.8	83.9	2.3
	글로벌금융		58.67	14.5	73.1	85.1	2.2	
	적십자간호대학	간호학과(인문)	80.09	13.82	66.9	78.4	2.1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75	12.8	51.6	89.3	2.3	
화학과		82.4	21.6	50.1	88.1	2.1		
생명과학과		102	24.17	46.6	89.9	1.7		
수학과		79.4	17.2	58.9	92.1	1.5		
공과대학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건설환경플랜트공학	81.11	18.11	47.5	87.3	2.3	
		도시시스템공학	80.4	17.2	46	85.1	1.9	
	건축학부	84.5	17.2	44.8	84.9	2.7		
	에너지시스템공학부	91.7	20.8	50.3	91.9	1.8		
	화학공학과	101.7	26.1	46.1	89.4	2.1		
	기계공학부	95.39	22.74	49.3	89.4	2		
창의ICT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107.72	31.84	42.2	75.4	1.8		
	융합공학부	97.8	26.6	44.4	76.5	1.9		
소프트웨어대학	소프트웨어학부	111.25	30.6	51.1	94.7	1.4		
	SI학과	100.8	25.2	48.4	91.6	2.1		
경영경제대학	산업보안학과(자연)	78	16.75	41.1	70.8	3		
약학대학	약학부	176.56	24	55.5	88.7	1.3		
의과대학	의학부	203.42	44.47	64	95.1	1.4		
적십자간호대학	간호학과(자연)	60.77	12.46	42.7	80.4	1.9		
다빈치	생명공학대학	생명자원공학부	동물생명공학	10.83	2	26.6	45.8	3.4
			식물생명공학	11	3.33	34.3	59.2	2.7
		식품공학부	식품공학	12.14	3.86	30.6	53.3	2.7
			식품영양	10.5	1.17	23	55.8	3.2
	시스템생명공학과	20	4.83	36.2	62.1	2.7		
	공과대학	첨단소재공학과	16.63	3.13	31.7	56.3	3.2	
예술공학대학	예술공학부	10.77	3.08	26	44	3.2		
총 계			85.03	19.46	58.5	80.8	2.2	

* 교과등급은 반영교과(국영수사과) 상위 5과목 평균 등급임

III. 논술의 이해와 대비법

- | | |
|-------------------------------------|----|
| 1. 통합 논술에 대한 이해 | 30 |
| 2. 답안 작성을 위한 TIP | 30 |
| 3. 수리 논술형 문제 | 31 |
| 4. 2024학년도 논술전형 합격자가
들려주는 논술 대비법 | 32 |



논술의 이해와 대비법

통합 논술에 대한 이해

중앙대학교 논술 시험의 방식은 '통합 논술'로 개별 교과목에 대한 단편적 지식보다는 다양한 교과목에서 습득한 지식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데 기본 목표가 있다. 통합 논술은 수험생들의 이러한 통합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데 매우 적합한 방식이다. 수험생들이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상호 연계하는 과정을 논리적 혹은 수리적으로 표현하는 통합 역량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를 적극 살리기 위해 시험 문제에 사용되는 제시문들은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고 있다. 통합 논술 시험에서 활용되는 제시문 전체는 현재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발췌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주어진 제시문이 익숙한 내용이다. 다만, 통합 논술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제에 대한 사전 지식을 활용하기보다는 주어진 제시문의 내용에 기반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측정하도록 문제를 출제한다.

문제 구성의 경우 인문사회계열 논술 시험은 언어 논술형 문항 3문제, 경영경제계열 논술 시험은 언어 논술형 2문항과 수리 논술형 문항 1문항으로 되어있다. 언어 논술형 문항과 수리 논술형 문항에 대한 답안 작성 시 수험생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KEYPOINT

- 통합 논술에 대하여 이해하기
- 교과서에서 다뤄진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출제된 문제의도에 맞추어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 모든 제시문은 각 계열별의 교과서에서 활용

답안 작성을 위한 TIP

첫째, 언어 논술형 문제에서 가장 요구되는 능력은 정확한 독해력이다. 따라서 다양한 주제의 글들을 읽고 핵심 논지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논술 준비의 출발이다. 물론 독해력은 고교 교육 과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훈련할 수 있다. 다만 논술시험에 활용되는 개별 제시문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생각 단위'를 담은 글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의 준비를 더한다면, 교과서 가운데 이러한 유형의 글들을 선택하여 5~10분 내외의 정해진 시간 안에 논지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즉, 교과서를 읽을 때 하나의 생각 단위를 담은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읽는 연습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둘째, 논술 시험에 주어진 시간이 120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출제의도에 맞도록 제시문의 핵심 논지를 간결하고 정확하게 요약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통합 논술의 답안은 자신의 논지를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쓰는 요약적인 글이라는 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핵심 논지에 대한 독해력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제시문의 핵심 논지를 압축하여 답안을 간결하게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는 면에서도 중요하다. 인문계열 논술 시험에서는 비교적 많은 수(6~11개)의 제시문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제시문의 전체적인 논지를 주어진 시간 내에 파악하고, 핵심 논지를 제한된 분량의 글자 수로 표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셋째, 답안의 구성 및 형식적 측면에 대해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 수험생들은 여러 개의 제시문들의 핵심 논지 파악, 차이점이나 공통점 분석, 문제 해결을 위한 논지의 재구성 등 문제의 다양한 요구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답안을 구성하는 데 적합한 글쓰기 구조를 갖추는 것이 좋다. 통합형 논술에서는 여러 제시문들의 핵심 주제들을 활용하면서도 제한된 분량의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문제가 출제되므로 논리적 구조를 갖춘 글쓰기가 매우 중요하다. 인문계열 논술의 답안 구조는 문제 유형 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특히 인문계열 논술 시험의 1번 문제에 대해서는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는 방법이 될 수 있고, 다른 문제의 경우 질문에 나타난 제시문 간의 관계 및 문제의 요구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답안을 구조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논술 시험 2번 문제는 1번 문제에서 독해를 한 동일한 제시문을 활용할지라도 출제의도에 맞도록 독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KEYPOINT

- 정해진 시간 내에 글의 논지를 파악하는 독해력 기르기
- 핵심 논지를 제한된 분량으로 요약하는 연습하기
- 문제의 요구 사항에 맞는 답안의 구조를 갖춘 글쓰기 연습하기

수리 논술형 문제

수리 논술형 문제는 수리적 능력에 기초하여 논리적 결론을 도출하거나 논리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수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따라서, 논리적 사고를 통하여 문제 해결 및 대안 제시의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을 수리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하지만 수리형 논술 문제에서 요구하는 수리적 능력은 수학 교과목에서 배운 특정 개념과 공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보다는 수험생이 제시문과 문제에서 제공된 정보를 종합하여 답을 찾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수리적 과정을 통해 보여주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논리적 사고와 수리적 사고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수리 논술형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 접근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KEYPOINT

- 제시문과 문제에 주어진 정보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 답을 찾는 논리적 과정을 수리적으로 표현하기



2024학년도 논술전형 합격자가 들려주는 논술 대비법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24학번 강서진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2024학년도 논술전형으로 중앙대학교 사회학과에 합격한 강서진입니다.

Q.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고 논술전형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강서진 학생이 생각하는 중앙대학교 논술시험의 특징은 무엇이며, 지원하게 된 자신만의 강점이 있다면?

A. 중앙대학교 논술의 가장 큰 특징은 제한된 글자수가 적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정해진 500자 이내로 작성해야만 하기 때문에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요지를 정확하고 깔끔하게 요약하는 능력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앙대학교의 기출 문제들을 살펴보면 매년 짧은 지문 여러 개가 제시되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된 것을 알 수 있었고, 저는 긴 글보다 짧은 글 여러 개의 요지를 빠르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에 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논술과 수능 시험 때 많이 떨리지는 않으셨나요? 논술과 수능 시험 당일에 있었던 에피소드나 긴장을 풀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면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공유해 주세요.

A. 수능 이후 많은 논술 시험을 치루러 다녔는데, 저는 생각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논술 시험장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시험 시간도 워낙 빠듯하고 주어진 지문을 집중해서 읽고 문제의 요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는 생각이 커서 오히려 긴장이 덜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수험생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은 수능이 끝나고 논술 시험까지 남은 약 일주일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논술 공부를 5월부터 시작해서 몇 달간 많은 문제를 풀었지만, 그 몇 달의 시간보다도 마지막 일주일에 저의 모든 것을 쏟아낸다는 느낌으로 열심히 논술시험을 대비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수능시험 당일에도 저녁에 논술 공부를 해야한다는 것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지쳤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마지막 일주일동안 포기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공부한 것이 논술 합격에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Q. 논술시험을 준비하고 합격할 수 있었던 나만의 팁이 있다면? 논술가이드북을 활용했다면 활용방법도 공유해주세요.

A. 저는 중앙대학교의 최근 기출 문제들을 가장 많이 활용했습니다. 흔히들 논술 시험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논술은 출제자가 요구하는 답이 정해져 있고 그것을 찾아야 하는 시험입니다. 표현이나 유창한 글쓰기 능력은 정확한 답안을 작성하고 난 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대학교 논술 기출을 풀어본 후 채점 기준이나 모범 답안을 꼼꼼히 살펴 보면서 문제 유형과 답안 작성 틀을 암기하듯이 공부했습니다. 특히 모범 답안을 많이, 여러 번 보면서 학교가 좋아하는 글의 스타일이나 표현들을 습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Q. 현재 중앙대학교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A. 먼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대단하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논술을 준비하다 보면 중간중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을 겁니다. 논술로 대학에 합격하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라고,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흔히들 말하지만 이런 주변의 말들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자신의 스탠스대로 공부하고 대비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후반이 될수록 수능과 논술에 대한 공포감은 점점 커지고 분위기도 어수선해지면서 집중하기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잃지 않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마인드로 마지막까지 후회없이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목표를 이루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2024학년도 논술전형으로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합격한 김가람입니다.

Q.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고 논술전형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김가람학생이 생각하는 중앙대학교 논술시험의 특징은 무엇이며, 지원하게 된 자신만의 강점이 있다면?

A. 중앙대학교의 논술시험은 '간결함'이 답안 작성 시 요구되는 능력이자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시문의 길이가 짧으면서 개수가 많은 편이다 보니 한 제시문에 깊게 파고들기보다는 핵심적인 주제를 정확하게 잡아내고자 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중앙대 논술시험은 각 제시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저는 제시문의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여 하나의 키워드로 추출하는 것에 자신 있었고, 중앙대학교 논술시험에서 이 강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Q. 논술과 수능 시험 때 많이 떨리지는 않으셨나요? 논술과 수능 시험 당일에 있었던 에피소드나 긴장을 풀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면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공유해주세요

A. 제가 응시했던 24학년도 수능 시험은 국어 과목이 특히 어려웠고 소위 말하는 불수능이었습니다. 저 또한 1교시 국어 문제를 푼 후에 평소 자신 있었던 만큼 잘 풀지 못한 것 같아서 굉장히 불안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미 응시한 국어 과목에 대한 생각은 최대한 접은 채로 남은 시험에 집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영어와 탐구 과목에서 1등급과 2등급이 섞인 성적을 받았고, 우려했던 국어 과목도 그리 나쁘지 않은 등급을 받아 중앙대학교 논술 최저를 거뜬히 맞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제 수능 시험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에 당황하더라도 지나간 것에 대한 걱정과 불안은 잠시 잊고 앞으로 해야 할 것에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가짐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논술시험 당일에는 이미 타 대학 논술을 여럿 응시한 후 남은 마지막 시험이 중앙대학교 논술이었던지라 많이 지쳐 있으면서도 준비과정에서 가장 열심히 노력하고 바랐던 학교인 만큼 떨림도 컸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분석했던 기출 문제를 계속 보고 시험장에 들어간 후에는 머릿속에 정보를 집어넣기보다는 최대한 긴장을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수험생 분들도 시험 당일에는 이미 정리해 두었던 출제 유형과 분석한 기출 문제 정도만 간단히 보고 마음을 추스리는 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Q. 논술시험을 준비하고 합격할 수 있었던 나만의 팁이 있다면? 논술가이드북을 활용했다면 활용방법도 공유해주세요.

A. 저는 중앙대학교 논술시험을 준비하며 대형 학원을 다니지 않고 학교 입학처에 올라온 논술가이드북과 기출 문제를 보며 독학했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문제보다는 학교에서 직접 제시한 채점 기준과 예시 답안이 가장 정확하고 무엇보다도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시문을 정확하게 독해하는 것은 당연히 선행되어야 하고 중앙대학교 논술시험은 매년 출제되는 유형이 거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3개년 정도의 모의논술과 본고사 기출 문제를 반복하여 꼼꼼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처음에 예시 답안을 아예 보지 않은 채로 스스로 한 번 풀어 보고 그 후에 예시 답안과 비교하며 더 나은 답안을 작성하는 식의 연습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1번 문제에서는 각각의 제시문을 간결하게 핵심만 요약하고, 키워드화하는 것이 요구되는구나.' 같은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논술 가이드북에서는 이러한 채점 기준과 예시 답안 등이 친절하게 제시되어 있고, 합격한 선배님들의 현실적인 논술 대비법도 실려 있어서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Q. 현재 중앙대학교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A. 논술 전형의 높은 경쟁률을 보고 지레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쓰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타고난 학생이 아니라도 충분한 노력이 있다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감을 잃지 않도록 꾸준한 논술 공부를 하되 최저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확실성에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힘내서 내년 봄, 벚꽃이 만개한 캠퍼스에서 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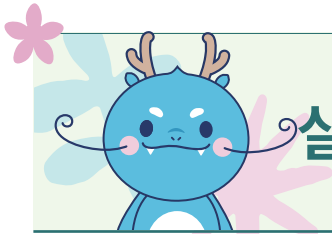


208

310

IV. 실전 대비 모의논술 문제풀이

1. 2025학년도 모의논술: 인문사회계열	36
2. 2025학년도 모의논술: 인문사회계열 문제해설	43
3. 2025학년도 모의논술: 경영경제계열	48
4. 2025학년도 모의논술: 경영경제계열 문제해설	54



실전 대비 모의논술 문제풀이

1. 2025학년도 모의논술: 인문사회계열

문제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내가 처음 요동(遼東)에 들어섰을 때 바야흐로 한여름이라 피약별 속을 가는데, 갑자기 큰 강이 앞을 가로막으면서 시뻘건 물결이 산더미같이 일어나 끝이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아마 천 리 너머 먼 지역에 폭우가 내린 때문일 터이다. 강물을 건널 적에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보기에, 나는 그 사람들이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향해 속으로 기도를 드리나 보다 하였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안 사실이지만, 강을 건너는 사람이 물을 살펴보면 물이 소용돌이치고 용솨음치니, 몸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하고 눈길은 물살을 따라 흘러가는 듯하여, 곧 어지럼증이 나서 물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 저 사람들이 고개를 쳐든 것은 하늘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요, 물을 외면하고 보지 않으려는 짓일 뿐이었다. 또한 잠깐 새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어느 겨를에 속으로 목숨을 빌었겠는가.

이와 같이 위태로운데도, 강물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요동 별판이 평평하고 드넓기 때문에 강물이 거세게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다.”라고 모두들 말하였다. 그러나 이는 강에 대해 잘 모르고 한 말이다. 요하(遼河)*가 소리를 내지 않은 적이 없건만, 단지 밤중에 건너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다. 낮에는 물을 살펴볼 수 있는 까닭에 눈이 오로지 위태로운 데로 쏠리어, 한창 별별 떨면서 두 눈이 있음을 도리어 우환으로 여기는 터에, 또 어디서 소리가 들렸겠는가? 그런데 지금 나는 밤중에 강을 건너기에 눈으로 위태로움을 살펴보지 못하니, 위태로움이 오로지 듣는 데로 쏠리어 귀로 인해 한창 별별 떨면서 걱정을 금할 수 없었다.

나는 마침내 이제 도(道)를 깨달았도다! 마음을 차분히 다스린 사람에게는 귀와 눈이 누를 끼치지 못하지만, 제 귀와 눈만 믿는 사람에게는 보고 듣는 것이 자세하면 할수록 병폐가 되는 법이다. 소리와 빛같은 나의 외부에 있는 사물이다. 이러한 외부의 사물이 항상 귀와 눈에 누를 끼쳐서, 사람이 올바르게 보고 듣는 것을 이와 같이 그르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장차 나의 산중으로 돌아가 대문 앞 계곡의 물소리를 다시 들으며 이와 같은 깨달음을 검증하고, 아울러 처신에 능란하여 제 귀와 눈의 총명함만 믿는 사람들에게도 경고하련다.

*요하: 청나라의 북쪽 국경 너머에서 발원하여 봉천(지금의 선양)과 금주 사이를 흐르는 큰 강.

(나) ‘미안해.’라는 말은 여간 어렵지 않다. 분명히 내게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안해.’라는 말을 하려면 목소리가 기어들거나 가능하면 슬쩍 얼버무려 버린다. 마음속으로 미안한 감정을 느끼지 않아서가 결코 아니다. 너무나 미안하다고 생각할 때도 그렇다. 왜 ‘미안해요.’라는 짧은 말 한마디가 그토록 두려운 것인가?

‘미안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나의 결함과 실수를 인정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다. 좀 더 마음속 깊이 파고들어 가 보면, 그것은 아마도 어쩌면 내가 잘못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일지도 모른다. 내가 남보다 못났다는 데 대한 열등의식이거나 자격지심일 수도 있다. 만일 내가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이 있다면, 내가 잘못했고 그 사실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무어 그리 어렵겠는가?

하지만 오늘 나는 ‘미안합니다.’라는 말, 아니 그 말의 위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만 했다.

저녁때 아버지가 차를 갖고 오피스텔에 있는 나를 데리러 오셨다. 아버지와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나왔는데, 건물 뒤편에 있는 주차장 경비원이 아버지에게 현관 가까이 차를 댔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아버지는 계속 허리를 굽히면서 사과하고 계셨다.

“미안합니다. 잠깐만 있을 겁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곧 나올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연세쯤 되어 보이는 경비원은 심하게 아버지를 힐책하였다*. 물론 차를 현관 근처에 대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경비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 너무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서, 나는 경비원을 한번 흘끗 쳐다보고는 차에 올라탔다.

경비원은 잠시 나와 목발을 번갈아 가며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깊이 머리를 숙이더니,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지 그랬어요. 만약 그랬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텐데요. 이분이라면 몸이 불편하시니까 여기 대셔야지요. 이분을 자주 봐요.”라고 사과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인사하고 헤어졌다. 두 사람은 모두 기꺼이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기분 좋게 웃으며 헤어질 수 있었다.

그래도 나는 차를 타고 나서 아버지에게 투덜댔다.

“아버지, 왜 그 사람한테 허리까지 굽히고 그래. 채신없어* 보이잖아.”

“채신? 원, 잘못된 거 사과하는 데 채신은 무슨 채신이나?”

이번 일을 계기로 나도 ‘미안합니다.’를 좀 더 자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 힐책하였다: 잘못된 점을 따져 나무랐다.

* 채신없어: 말이나 행동이 경솔하여 위엄이나 신망이 없어.

(다) [앞부분의 줄거리] 한때 촉망받는 뮤지컬 감독이었던 일한은 재기를 꿈꾸며 도전한 뮤지컬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순수한 목소리를 가진 영광을 만난다. 일한은 처음에는 영광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라는 편견 때문에 구박을 일삼고 함부로 대했지만, 영광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유명해져서 자신을 버린 아빠를 찾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일한은 살이 다 터지도록 피나게 노력하는 영광과 함께 진심을 다해 꿈의 무대에 도전한다.

사회자 자, 다음 무대는요……. 화제의 주인공이죠? 까만 콩 김영광 군입니다!

조명이 들어오고 세손* 의상의 영광이 혼자 무대에 덩그러니 서 있다. 천천히 객석을 둘러보는 영광,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하다. 공연이 시작되지 않자 객석이 살짝 술렁인다. 사회자가 열른 시작하라는 신호를 주지만, 여전히 미동 없는 영광. 무대 뒤편에서 조바심 내고 있던 일한이 큰 소리로 영광을 부른다. 일한을 돌아보다 고개 돌리는 영광. 여전히 홀로 서 있다. 일한이 무대로 걸어 나가서 영광 앞에 한쪽 무릎을 굽혀 앉는다.

일한 왜? 전부 네 노래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잖아.

영광 전 얼굴도 까맣고…… 그런데 정조 대왕님은 얼굴도 하얗고…… 난 아빠도 없고…… 아빠는 날 창피해하는데…… (설움이 복받쳐 더듬거리며) 난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일한 영광아, 아니야. 그 사람들…… 너한테 화내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니야. 네가 맞아.

영광 (계속 울먹이고)

일한 이거 영광의 노래야. 너 아니면 안 돼. 너만 할 수 있는 거야.
영광 …….
일한 너, 지난번에 무대에서 날았던 날 기억하지?
영광 (고개 끄덕이고)
일한 응? 내가 보면 그때처럼 나는 거야. 알았지?
영광 (일어나는 일한을 붙잡는 영광)
일한 (다시 앉으며) 같이 하자, 그러면. 내가 시작하면 같이 하는 거야. 내가 시작하면 영광이 나는 거다, 알았지? 응?

무대 한 켄의 피아노 앞으로 가서 앉은 일한. 건반에 손을 올려 두며 영광과 눈을 맞춘다. 전주가 시작되면 피아노 선율을 타고 흐르는 아름다운 영광의 목소리. 목소리만으로도 어린 정조의 고통과 슬픔이 느껴진다. 노래를 따라 자연스럽게 영광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손끝에서 발끝까지 슬픔과 환희와 고통을 온몸으로 노래하고 춤추는 영광. 일한도 혼신을 다해 피아노를 연주한다. 작지만 압도적인 영광의 무대에 객석에서는 일제히 환호가 쏟아진다.

*세손: 왕세자의 맏아들.

(라) 우리에게 학교는 바깥세상의 공포를 피하는 안식처였다. 하지만 물론 학교에서도 우리는 위협 아래 있었다. 처음 폭파된 학교는 마타에 있는 공립 여자 초등학교 샤프라 장가이었다.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 후 더 많은 폭탄이, 거의 매일 터졌다. 밍고라에서도 폭발이 있었다. 내가 부엌에 있을 때 폭탄이 두 번 터졌는데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 집 전체가 흔들렸고, 창문 위에 있던 선풍기가 떨어졌다. 나는 부엌에 들어가는 일이 너무나 무서워서 재빨리 뛰어 들어갔다 뛰어나오곤 했다. 2008년 2월 마지막 날, 내가 부엌에 있을 때 엄청난 폭발이 있었다. 귀가 찢어질 듯 요란한 소리였다. 하지바바 고등학교 농구 코트에서 자살 폭탄이 터진 것이었다. 탈레반은 조문 온 사람들에게까지 폭탄을 터뜨렸다. 쉰다섯 명 이상이 사망했다. 사망자 가운데는 자비드 익발의 어린 아들을 비롯해 우리가 아는 사람이 많았다. 모니바 가족 중 열 명이 그 자리에 있었고, 모두 죽거나 다쳤다.

“지금 무서우세요?” 내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밤에는 우리의 두려움이 강해진다. 하지만 아침이 오면, 빛이 비치면, 우리는 다시금 용기를 되찾게 된다.” 이 이야기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해당하는 진실이었다. 우리는 두려웠지만 두려움은 우리의 용기만큼 강하지 않았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계곡에서 탈레반을 몰아내야 한다. 그래서 다시는 누구도 이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버지가 말했다.

학교에서 아버지는 평화 행진을 조직했고,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격려했다. 어느 날 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뉴스 채널인 지오(Geo)에 갔다. 나는 아주 많은 채널을 보고 놀랐다. 나중에 생각했다. 언론은 인터뷰가 필요하다. 그들은 어린 소녀와 인터뷰하고자 하지만, 친구들은 두려워한다. 친구들이 두려워하지 않더라도 친구 부모님들이 허락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겁먹지 않는 사람이며 항상 내 곁을 지켜 주신다. 아버지가 말했었다. “넌 어린아이고, 말하는 것은 네 권리.”라고.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나 자신이 더욱 강하게 느껴졌고 우리는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 내가 나의 권리를 위해, 우리의 권리를 위해 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나의 의무이기도 하다.

(마) 겨울인데다 밤길이었던 고로 쉬운 길은 아니었다. 아버지는 자전거에 타고 나를 뒷자리에 앉게 하셨다. 인적이 드문 신작로에 들어선 나는 조심스럽게 “아부지!” 하고 불렀다.

“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나이 대 사나이로서.”

“싸나아이? 어디 한번 해 보나라.”

“저 학교에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배울 것도 없는 것 같고 애들도 너무 유치해서 사귄 마음이 나지 않습니다. 차라리 자연과 라디오를 스승 삼고 주경야독으로 제 수준에 맞는 진학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이 씨익씨익, 하고 페달만 밟으셨다.

“실은 제 정신 수준은 보통 사람의 서른 살에 도달했다고 판단한 지 어언 두 달이 넘었습니다. 어쩌면 대학도 갈 필요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싼 학비를 안 대 주셔도 되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아버지는 자전거를 세우고는 거의 표준말에 가까운 억양과 어휘로 말했다.

“고맙다, 내 걱정까지 해 주다니. 그렇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아라. 시간을 줄 테니.”

그러고는 달빛 비치는 서산을 넘어 불어오는 바람 속에 자전거를 세워 두고는 신작로 아래 냇가로 내려갔다. 나는 아버지가 오줌을 누러 가시나 보다, 생각하고는 자전거 위에 앉은 채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한 참이나 지났는데도 오시지 않았다.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에 자전거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그렇지만 자칫 잘못 내리다가는 자전거와 함께 신작로 아래로 굴러떨어질 것 같아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한 채 떨면서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가 앉았던 안장을 움켜쥐고 내가 하느님을 서너 번은 죽히 불렀을 때 비로소 아버지가 올라왔다.

“달밤에 신작로 위에서 자전거 타고 혼자 있으니까 세상이 다 니 아래로 보이더냐?”

그 물음에는 천재인 나도 대답할 말을 쉽게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내 아이가 내게 그렇게 말해 온다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본다. 준비되지 않은 채 몸과 마음만 들뜬 아이를 마음으로 감복시킬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세상의 틀에 우겨 넣으려는 한, 내 중년은 아버지의 중년에 비할 수 없이 유치하다.

(바) [앞부분의 줄거리] 6·25 전쟁 중 오빠와 율케가 사망하자 ‘나’는 젓먹이로 고아가 된 조카 ‘훈이’를 맡아 키우게 된다. 자유를 찾아서라기보다 돈만 있으면 ‘훈이’에게 줄 우유를 살 수 있는 세상을 찾아, ‘나’는 남으로 피란을 간다. ‘나’는 ‘훈이’가 기술을 배워 적당한 곳에 취직해서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란다.

훈이가 고등학교 이 학년이 되자 반을 문과 이과로 나누게 되었고, 훈이가 나한테는 아무 상의도 안 하고 문과를 택한 걸 나는 나중에야 알았다. 나는 우선 그런 문제를 나한테는 상의 한마디 안 한 게 서운했다. 더 늦기 전에 일을 바로잡아 보리라 마음먹었다. 나는 학교에 쫓아가서 담임 선생님에게 애걸하다시피 해서 훈이가 문과에서 이과로 전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훈아, 너희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너는 인문계보다는 이공계가 더 적성에 맞는대. 좀 좋아. 넌 큰 기업체에 취직해서 착실하게 일해서 돈도 모으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서 살림 재미도 보고 재산도 늘리고, 그리고 살아야 돼.”

아무튼 훈이는 내가 옮겨 준 대로 이과에 잘 다녔다. 그러나 형편없이 성적은 떨어졌다. (중략)

말없이 고분고분 취직 시험을 수없이 보고, 보는 족족 떨어졌다. 취직 시험도 하도 여러 번 치르니, 보러 가기도 보러 가라기도 점점 서로 미안하게 되었다. 이 년 가까이를 이렇게 지겹게 보내던 훈이 어느 날 나에게 해외 취업의 길을 뚫을 수 있을 것 같으니 교제비로 돈을 좀 달라는 요구를 해 왔다.

“뭐라고, 해외 취업? 그럼 외국에 나가 살겠단 말이지? 그건 안 된다.”

“왜요 고모, 제때하게 돈이 아까워서? 아니면 고모가 영영 할머니를 떠맡게 될까 봐 겁나서?”

나는 그 녀석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녀석도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시선이 강하게 부딪혔으나 나는 단절감을 느꼈다.

“해외 취업은 당분간 보류하렴. 할머니 때문이든 돈 때문이든 그건 네 마음대로 생각해도 좋다. 그리고 취직 문젠데, 너무 고지식하게 정문만 뚫으려고 했던 것 같아. 방법을 좀 바꾸어서 뒷문으로 통하는 길을 알아봐야겠다. 돈이 좀 들더라도…….”

“흥, 돈 때문은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나는 대꾸도 하지 않았다.

(사) 아버지는 식구들이 저녁을 마친 후에 돌아온 아들 성규를 사정없이 몰아붙였다.

“너더러 누가 그런 짓 하랬어.”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한 발자국 내딛는 순간, 노기를 한꺼번에 모은 호령이 그를 사로잡았다.

“할아버지까지 동원한 게 잘한 짓이니?”

“동원이란 말이 싫습니다. 누가 누구를 동원한단 말입니까. 또 그 일이 어째서 잘하고 잘못하고로 구별돼야 하는지, 저는 통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잘하고 잘못하고의 인식에서는 벗어나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일에 합당한 재능을 갖고 있을 때, 한쪽은 그걸 표현할 기회를 주어야 마땅하며, 한쪽은 기꺼이 그 기회에 편승해서, 일이 잘되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너 이제 보니 참 똑똑하구나. 그래서, 일이 잘됐니?”

“대성공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어머니의 섯소리가 그의 뺨에 달라붙었다.

“또박또박 말대답하는 것 좀 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버지의 생각 속으로만 저를 챙겨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가 알긴 뭘 알아. 네가 내 속을 어떻게 알아.”

“그런 말씀은 이제 그만 좀 하셨으면 해요. 너는 아직 모른다. 너도 내 나이가 되어 봐라……. 안팎에서 듣는 그 말에 물릴 지경이거든요. 그때 가서 그 뜻을 알지언정, 지금부터 제 사고와 행동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할아버지를 우리 모임에 초청한 사실을 후회하지 않을뿐더러,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여러분, 혹시 처음으로 친구들이랑 영화를 보러 가거나 여행을 간 날, 기억하시나요? 저도 그날이 생생한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 얘기를 해 주셨어요. “모르는 길 가지 말고, 모르는 사람이랑 얘기하지 말고, 혼자 다니지 마.” 이 길거리 위의 세 가지 금기를 저에게 알려 주셨는데요, 여러분도 이 금기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궁금해지는 거예요. 과연 내가 안 가 본 나라는 어떨까? 그곳에 가면 어떤 편견을 깨고, 무엇에 공감할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정했죠. 아프리카로 가겠어!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모르게 예방 접종을 맞고, 모아 둔 돈을 털어서 아프리카행 비행기를 탔어요.

사실 우리는 항상 익숙한 길을 가게 돼요. 왜냐하면 예측 가능하고 편하니까. 내가 언제, 어디에 도착할지 아니까요. 그런데 금기를 어기고 나니까 제가 길에 관해서 깨달은 점이 하나 있어요. 길은 어떤 지점에서 도착지로 걸어갈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사실은 모험이라는 점이었어요.

(자) [앞부분의 줄거리] 주인공 아카키는 하급 관리로 평생 서류를 정리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그의 낡은 외투가 해져서 도저히 입을 수 없게 되었다. 페테르부르크의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외투가 필수품이다. 형편이 어려운 그는 돈을 아껴 겨우 새 외투를 마련한다. 하지만 새 외투를 입은 첫날, 불행히도 강도에게 외투를 빼앗긴다.

다음 날 아카키는 창백해진 모습으로 더더욱 초라해 보이는 헌 외투를 입고 출근했다. 누군가가 동정심에 이끌려 적어도 그를 도울 수 있는 충고라도 한마디 하겠다며, 경찰서장에게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 경찰서장이 상부에 실적을 올리려고 어떻게 해서든 외투는 찾아내겠지만 만약 필요한 법적 서류들을 갖추지 못한다면 외투는 찾지도 못하고 경찰서에 그대로 방치될 수도 있다, 그러니 차라리 고위층 인사를 찾아가서 급히 손을 쓰도록 하면 일이 잘 해결될 거라고 권했다. 할 수 없이 아카키는 고위층 인사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이 고위층 인사가 어떤 직책의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어쨌든 그는 자신의 중요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다 동원했다. 그가 가장 중요시하는 체계는 엄격함이었다. “엄격, 엄격, 또 엄격.”

아랫사람들과의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역시 엄격함이 드러나 거의 세 마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중략) 이때 아카키라는 사람이 찾아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아, 그래! 기다려야겠는데, 지금은 바쁘니까.” 여기서 이 인사의 말이 거짓말임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찾아온 관리를 기다리게 함으로써, 관직을 떠나 오랫동안 시골에 묻혀 있던 친구에게 자신을 만나러 온 관리를 얼마나 오래 현관에 세워 둘 수 있는가를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다. 마침내 잡담을 실컷 하고 그는 문가에 보고서를 들고 서 있는 비서에게 말했다.

“그래, 거기 관리 하나가 기다리는 것 같은데, 들어와도 좋다고 하게.”

아카키는 미리 어느 정도 겁을 먹고 최선을 다해 언변이 닿는 대로 평소보다 더 자주 ‘저……’를 섞어 가며 완전히 새것인 외투를 무지막지하게 강탈당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다. 총감이나 다른 누군가가 외투를 찾아 주도록 청원을 좀 해 주십사 찾아왔다고 말했다.

“귀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요? 절차도 모르나? 어디에 들른 거요?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몰라? 그런 일이라면 먼저 관공서에 문서로 제출했어야지. 어디서 그런 정신 상태를 갖게 됐나? 그런 생각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상관이나 윗사람 앞에서 이렇게 난폭하게 굴다니!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나? 누구 앞인지 아느냐고? 도대체 알기나 해, 알기나 하난 말일세? 대답해 봐.”

이 순간 그는 발을 구르며 아카키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무서워할 정도로 언성을 높였다. 아카키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렸고 몸이 떨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그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지경이 되어 실려 나갔다. 기대 이상의 효과에 만족한 고위층 인사는 자신의 말 한마디로 사람의 정신까지 빼놓을 수 있다는 생각에 완전히 도취하여 결눈질로 친구의 반응을 살폈다. 자신의 친구조차 어쩔 줄 모르고 공포감마저 느끼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그는 만족했다.

(차) 산업화 이후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사회 조직이 다양해지고 그 규모가 커졌다. 이에 따라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 체계인 관료제가 확산하였다. 관료제는 행정 기관, 회사 등을 비롯한 오늘날 사회 조직의 대표적인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 관료제 조직은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므로 개인적인 감정 개입을 방지하여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 한편, 관료제 조직의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목적 달성을 위해 만든 규칙과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본래의 목적을 소홀히 하는 목적 전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카) 유교에서는 통치자가 백성을 감화하는 정치, 즉 덕치(德治)로 선한 본성을 실현하는 이상 사회를 지향한다. 이때 통치자는 자기 수양을 바탕으로 덕을 함양한 사람이어야 한다. 공자의 덕치 사상에 따르면, 이상적인 정치는 법령과 형벌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지도자는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지도자가 백성을 힘으로 위협하지 말고 덕과 예로 이끌면 백성이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안다. 공자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명분에 부합하는 덕을 갖추고 자기 역할을 온전히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등장인물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와 두려움을 ‘극복한 방법’을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바)에 나타난 고모의 양육 방식을 제시문 (라)와 (마)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비판하고, 제시문 (사)의 성규가 부모와의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과 제시문 (아)에 나타난 화자의 삶의 태도를 토대로 제시문 (바)의 훈이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를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3] 제시문 (차)를 토대로 제시문 (자)의 아카키가 경찰서장 대신 고위층 인사를 찾아간 ‘이유’와 그 행위가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서술하고, 제시문 (카)를 바탕으로 고위층 인사가 아카키를 대할 때 필요한 자세를 서술하시오. [20점, 330-350자]

제시문 출전과 해설

- 제시문 (가) 박지원, 「일야구도하기」, 정호웅 외 5인, 『문학』, 천재교육, 2019, 228-231쪽.
- 제시문 (나) 장영희, 「미안합니다」, 한철우 외 6인, 『독서』, 비상교육, 2018, 85-90쪽.
- 제시문 (다) 안호경 각본, 황조윤 각색, 김성훈 감독, 「마이 리틀 히어로」, 김동환 외 6인, 『문학』, 천재교과서, 2019, 41-46쪽.
- 제시문 (라) 말랄라 유사프자이, 「나는 말랄라」, 류수열 외 7인, 『문학』, 금성출판사, 2019, 316-319쪽.
- 제시문 (마) 성석제, 「젊은 아버지의 추억」, 정재찬 외 5인, 『문학』, 지학사, 2019, 292-294쪽.
- 제시문 (바) 박완서, 「카메라와 워커」, 류수열 외 10인, 『국어』, 금성출판사, 2018, 204-217쪽.
- 제시문 (사) 최일남, 「흐르는 북」, 한철우 외 7인, 『문학』, 비상교육, 2019, 306-311쪽.
- 제시문 (아) 임수민, 「길을 제대로 걷는 세 가지 비밀」, 이도영 외 7인, 『화법과 작문』, 창비, 2019, 100-103쪽.
- 제시문 (자) 니콜라이 고골, 「외투」, 방민호 외 5인, 『독서』, 미래엔, 2019, 214-219쪽.
- 제시문 (차) 「사회 조직의 유형과 특징」, 서범석 외 5인, 『사회·문화』, 지학사, 2018, 72-74쪽.
「사회 조직이란 무엇일까?」, 신형민 외 4인, 『사회·문화』, 비상교육, 2018, 69-69쪽.
- 제시문 (카) 「동양 윤리의 접근」, 정탁준 외 7인, 『생활과 윤리』, 지학사, 2018, 23쪽.
「공자의 윤리 사상」, 변순용 외 10인, 『윤리와 사상』, 천재교과서, 2019, 35-36쪽.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문학』(천재교육, 2019)에 실린 박지원의 「일야구도하기」에서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수정·편집한 글이다. 이 작품은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단원 중 ‘교술 갈래의 흐름’ 영역에 수록되어 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하는 것이다. 「일야구도하기」는 하룻밤에 강을 아홉 번 건너 경험을 통해 깨달은 바를 적은 글이다. 이 작품에서 발췌한 제시문 (가)에는 강을 건널 때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와 강을 건너는 경험을 통해 깨달은 바가 제시되어 있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독서』(비상교육, 2018)에 실린 장영희의 「미안합니다」에서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수정·편집한 글이다. 이 작품은 ‘새롭게 바라보는 독서’ 단원 중 ‘감상적 읽기’ 영역에 수록되어 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글의 내용에 공감하거나 감동한 부분을 찾아서 읽고 글이 주는 즐거움과 깨달음을 수용하며 감상적으로 읽어 보는 것이다. 「미안합니다」는 ‘미안합니다.’라는 말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던 자신의 경험을 담은 수필이다. 이 작품에서 발췌한 제시문 (나)에는 화자가 미안합니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와 그 말의 가치를 알게 된 경험이 서술되어 있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문학』(천재교과서, 2019)에 실린 안호경·황조윤·김성훈의 「마이 리틀 히어로」에서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수정·편집한 글이다. 이 작품은 ‘문학의 생활화’ 단원에 수록되어 있으며, 단원의 학습 목표는 문학 활동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과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마이 리틀 히어로」는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어 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 작품에서 발췌한 제시문 (다)에는 공연을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영광과 영광이 꿈을 이루도록 끝까지 지지해주는 일한의 대화를 담겨 있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문학』(금성, 2019)에 수록된 말랄라 유사프자이·크리스티나 램의 「나는 말랄라」에서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수정·편집한 글이다. 이 작품은 ‘문학에 임하는 인간의 태도’ 단원에 수록되어 있다. 단원의 학습 목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공동체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소통해 보는 것이다. 「나는 말랄라」는 여성과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노력했던 파키스탄의 한 소녀의 삶을 다룬 수필이다. 이 작품에서 발췌한 제시문 (라)에는 탈레반의 테러로 인해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만 가족의 지지로 용기를 갖고 투쟁하는 말랄라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문학』(지학사, 2019)에 실린 「젊은 아버지의 추억」을 출제 의도에 맞게 발췌하여 일부 편집, 수정하였다. 이 글은 ‘4. 한국 문학의 흐름’ 단원 중 ‘(4) 교술 갈래의 흐름’에 실렸으며,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서정 갈래의 대표적인 작품을 감상하고 갈래의 전개와 구형 양상을 탐구하고 서정 갈래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시문은 아버지와 아들간의 대화를 바탕으로 아들의 요구에 대해 아버지가 어떤 방식으로 아들을 설득하고 감복시키는가를 묘사하고 있다. 아들의 치기어린 요구에도 아버지는 아들 스스로 생각하고 깨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아들은 성인이 되어 이러한 기억을 되새기며 자신의 태도를 성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국어』(금성출판사, 2018)에 실린 박완서의 글 「카메라와 워커」를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편집하여 발췌한 글이다. 이 글은 ‘6. 나답게 읽기’ 단원 중 ‘(2) 인물의 삶에서 세상을 읽다’에 실렸으며,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자신의 관점에서 문학 작품 속 화자의 정서나 상황을 주제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문학 작품을 독자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목표로 한다. 이 글은 6.25 전쟁의 비극이 우리 사회와 개인의 삶에 남기고 간 상처와 의미에 대해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고모는 나름의 방식으로 조카를 잘 키우고 싶었으나, 조카와의 갈등 상황에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양육을 통해 단절이 심화되는 과정이 그려진다. 고모의 양육 방식과 이에 대응하는 조카 ‘훈’의 태도를 시대상황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문학』(비상교육, 2019) 교과서에 실린 최일남의 「흐르는 북」의 일부를 발췌한 글이다. 이 글은 ‘5. 문학에 관한 태도’ 단원 중 ‘(1) 자아 성찰과 타자 이해’에 실렸으며,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삶의 본질을 이해하며, 타자에 대한 이해와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배우는 것이다. 이 글은 전통적 가치로 상징되는 ‘북’을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소설이며 등장인물의 태도와 가치관을 통해 세대 간 화합의 가능성을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이다. 발췌한 부분의 내용에서는 아버지와 성규의 대화를 통해 강압적인 아버지의 다그침에도 성규가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밝히고 소통하려는 자세를 확인할 수 있다.

제시문 (아)는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창비, 2019) 교과서에 실린 임수민의 「길을 제대로 걷는 세 가지 비밀」의 일부를 출제 의도에 맞게 발췌한 글이다. 이 글은 '2. 화법과 원리의 실제' 단원 중 '(3) 공적인 상황에서 격식을 갖춰 말하기'에 실렸으며, 이 중단원의 학습 목표는 청자의 특성에 맞게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하고 상황에 맞는 언어적, 준언어적 표현 전략을 사용하여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길거리 사진 작가인 화자는 청자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내용을 구성하여 자신의 삶에 자세에 대해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발췌된 부분의 핵심 내용은 삶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어머니가 세운 금기를 어겼지만, 이러한 경험들이 중요한 삶의 교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자)는 고등학교 『독서』(미래엔, 2019) 교과서에 실린 「외투」를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편집한 글이다. 「외투」는 19세기 러시아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비판적으로 드러낸 소설이다. 이 소설의 작가는 관료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급 관리의 비참함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관료제의 특성과 그로 인한 폐단을 보여주는 제시문 (자)를 통해 아카키가 고위층 인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던 상황과 고위층 인사가 아카키를 폭압적으로 대할 수 있었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차)는 고등학교 『사회·문화』(비상교육, 2018) 교과서에 실린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과 고등학교 『사회·문화』(지학사, 2018)에 실린 「사회 조직의 유형과 특징」의 일부를 출제 의도에 맞게 발췌하여 일부 편집, 수정하였다. 이 제시문은 사회 조직의 대표적인 운영 원리인 관료제 조직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료제 조직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제시문 (카)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지학사, 2018) 교과서의 「현대의 삶과 실천 윤리」 단원과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천재교과서, 2019) 교과서의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 단원에서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편집한 글이다. 해당 단원의 학습 목표는 여러 동양 윤리를 이해하고 비교하는 것이다. 제시문 (카)에는 공자의 인을 정치에 적용한 덕치 사상이 요약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예시답안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등장인물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와 두려움을 ‘극복한 방법’을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가)~(라)에는 등장인물이 두려움을 느끼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난다. (가)에서는 강물의 거친 소용돌이와 거센소리에 압도되어 강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 두려움이 지각에 따른 주관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두려움을 극복한다. (나)의 ‘나’는 미안하다는 말을 자신의 결함과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의 관계적 가치를 알게 되고 그 의미를 재해석함으로써 두려움을 극복한다. (다)의 영광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가 정조 대왕의 역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공연을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사람들의 편견에서 벗어나 자신을 신뢰해주는 사람을 믿고 함께 두려움에 맞선다. (라)에서는 테러로 인해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목격하고 죽음의 공포를 실감하지만, 가족의 지지로 용기를 갖고 탈레반을 몰아내기 위한 활동과 연대를 통해 두려움을 극복한다. 이처럼 사람들은 감각 의존, 자각지심, 사회적 편견, 죽음의 공포 실감 등으로 두려워하지만, 마음 다스림, 의미 재해석, 지지와 신뢰, 용기와 실천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569자]

[문제 2] 제시문 (바)에 나타난 고모의 양육 방식을 제시문 (라)와 (마)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비판하고, 제시문 (사)의 성규가 부모와의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과 제시문 (아)에 나타난 화자의 삶의 태도를 토대로 제시문 (바)의 훈이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를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라)와 (마)를 통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바)의 고모는 훈이를 존중하지 않는 양육 방식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라)에서는 아버지가 딸의 말할 권리를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고모는 훈이의 결정을 믿어주지 않고 훈이의 진로와 삶에 대해 본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요한다. (마)의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지만, 고모는 훈이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사)의 성규는 부모님과과의 갈등 상황에서 수동적으로 순응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아)의 화자는 삶에 대한 호기심으로 어머니가 말한 금기를 어기고 진취적인 도전을 시도한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훈이는 진로나 취업 등 고모와 다른 의견으로 대립되는 상황을 회피하기보다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며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다른 사람의 강요를 수동적으로 따르지 말고 자신의 뜻에 따라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보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562자]

[문제 3] (차)를 토대로 제시문 (자)의 아카키가 경찰서장 대신 고위층 인사를 찾아간 ‘이유’와 그 행위가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서술하고, 제시문 (카)를 바탕으로 고위층 인사가 아카키를 대할 때 필요한 자세를 서술하시오. [20점, 330-350자]

(자)의 아카키는 경찰서장이 외투를 찾더라도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다면 방치될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고위층 인사를 찾아간다. (차)에 따르면, 이는 규칙과 절차에 집착한 나머지 정작 외투를 찾아주는 데는 소홀한 관료제의 목적 전치 현상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한편, 아카키가 정해진 절차와 규칙을 지키지 않고 고위층 인사를 찾아간 행위는 일 처리에 사적 감정이 개입될 여지를 만들어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카)를 고려할 때, 고위층 인사는 난폭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아카키를 대하는 대신 지도자로서의 덕과 예를 갖춰 그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감화시키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345자]

채점기준

[문제 1]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32점+8점)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등장인물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32점 만점)

(가) **이유:** 강물의 거친 소용돌이와 거센소리에 압도되어 위태함을 느낌. (4점)

극복 방법: 두려움이 지각에 따른 주관적 판단에서 비롯됨을 깨닫고 마음을 다스림. (4점)

(나) **이유:** 미안하다는 말을 자신의 결함과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 (4점)

극복 방법: 미안하다는 말의 관계적 가치를 알게 되고 그 말의 의미를 재해석함. (4점)

(다) **이유:** 다문화 가정의 아이로서 자신이 정조 역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 (4점)

극복 방법: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 자신을 신뢰해주는 사람을 믿고 함께 도전함. (4점)

(라) **이유:** 테러로 인해 가까운 사람이 죽는 것을 목격하고 죽음의 공포를 실감함. (4점)

극복 방법: 가족의 지지로 용기를 갖고 탈레반을 몰아내기 위한 활동과 연대를 이어감. (4점)

- 네 개의 제시문에서 등장인물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와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모두 찾아 제시한 경우, 25~32점 부여
- 세 개의 제시문에서 등장인물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와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 제시한 경우, 17~24점 부여
- 두 개의 제시문에서 등장인물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와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 제시한 경우, 9~16점 부여
- 한 개의 제시문에서 등장인물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와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 제시한 경우, 4~8점 부여

2) 네 개의 제시문에서 등장인물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서론/본론/결론)로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답안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고(3점), 결론 부분에서 각 제시문의 차이가 핵심적 표현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점).

①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에 대한 핵심적 표현: 감각 의존, 자격지심, 사회적 편견, 죽음의 공포 실감

②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핵심적 표현: 마음 다스림, 의미 재해석, 지지와 신뢰, 용기와 실천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1]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각 제시문에서 등장인물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 제시(32점)	1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4~8점
		2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9~16점
		3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17~24점
		4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25~32점
	② 논리적 구성(3점)과 결론 제시(5점)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	1~3점
		본론의 내용을 결론으로 잘 도출하여 요약했는지 여부	2~5점

[문제 2]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20점+20점)

1) 제시문 (라)와 제시문 (마)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문 (바)에 나타난 고모의 양육 방식을 비판하시오. (20점: 6점+14점)

- ① (라)와 (마)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파악: 제시문 (라)와 (마)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모는 자녀를 존중하지 않는 양육 방식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비판. (6점)
- ② 고모의 양육 방식에 대한 구체적 비판: (라)에서 딸을 권리를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아버지의 모습에 비해 고모는 훈이의 결정을 믿어주지 않고 훈이의 삶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요하였다는 점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함 (7점). (마)의 아버지가 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모는 훈이의 의견을 무시하고 훈이가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해야 함. (7점)

2) 제시문 (사)의 성규가 부모와의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과 제시문 (아)에 나타난 화자의 삶의 태도를 토대로 제시문 (바)의 훈이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를 서술하시오. (20점: 10점+10점)

- ① (사)와 (아) 핵심적 논지를 각각 파악: (사)의 성규는 부모님과 갈등 상황에서 수동적으로 순응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5점). (아)의 화자는 삶에 대한 호기심으로 어머니가 말한 금기를 어기고 진취적인 도전을 시도했다는 점을 설명한다. (5점)
- ② 훈이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 앞의 논지를 바탕으로, 훈이가 진로나 취업 등 고모와 다른 의견으로 대립되는 상황을 회피하기보다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며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5점), 타인의 강요를 수동적으로 따르지 말고 자신의 뜻에 따라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보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서술한다. (5점)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2]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기술적 측면 (-5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제시문 (라)와 제시문 (마)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문 (바)에 나타난 고모의 양육 방식을 비판했는지 평가(20점): 3~20점 부여	제시문 (라)와 (마)의 논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고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비판 역시 통합적 관점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	3~8점
		제시문 (라)와 (마)의 논지를 파악하고 있으나, 고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비판이 통합적 관점에서 서술되지 못하고 각각 서술되었을 경우	8~15점
		(라)와 (마)의 논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통합적 관점에서 고모의 양육방식을 비판하였을 경우	16~20점
	② 제시문 (사)에 나타난 화자의 삶의 태도와 제시문 (아)의 성규가 부모와의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을 토대로 제시문 (바)의 훈이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를 서술했는지 평가(20점): 3~20점 부여	제시문 (사)와 (아)의 논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훈이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 역시 잘 서술되지 않았을 경우	3~8점
		제시문 (사)와 (아)의 논지를 제대로 파악했으나, 훈이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로 연결하지 못한 경우. 또는 훈이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는 잘 정리했으나 제시문 (사)와 (아)의 논지가 부정확한 경우	8~15점
		제시문 (사)와 (아)의 논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훈이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 역시 잘 서술되었을 경우	15~20점

[문제 3] 2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330~35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20점: 12점+8점)

1) 제시문 (차)를 토대로 제시문 (자)의 아카키가 경찰서장 대신 고위층 인사를 찾아간 이유와 그 행위가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을 명확하게 설명하였는지 평가한다. (12점 만점): 3~12점

- ① 목적 달성을 위해 만든 규칙과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본래의 목적을 소홀히 하는 관료제의 목적 전치 현상을 아카키가 우려했기 때문임을 그 이유로 명확하게 서술해야 함.
- ② 정해진 절차와 규칙을 지키지 않고 고위층 인사를 찾아간 아카키의 행위는 사적 감정이 개입될 여지를 만들어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음을 문제점으로 명확하게 서술해야 함.

- 고위층 인사를 찾아간 이유와 그 행위의 문제점을 모두 서술한 경우, 12점 부여
- 고위층 인사를 찾아간 이유나 그 행위의 문제점 모두 서술했으나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9점 부여
- 고위층 인사를 찾아간 이유나 그 행위의 문제점 중 하나만 서술했을 경우, 6점 부여

2) 제시문 (카)를 바탕으로 고위층 인사가 아카키를 대할 때 필요한 자세를 찾아내었는지 평가한다. (8점 만점): 3~8점

- ① 고위층 인사는 난폭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아카키를 대하는 대신 지도자로서의 덕과 예를 갖춰 아카키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감화시키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서술해야 함.

- 제시문 (카)에서 고위층 인사에게 아카키를 대할 때 필요한 자세를 모두 찾아 서술했을 경우, 6~8점
- (카)의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제시문에서 파악한 내용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3~5점 부여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3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3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3]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20점)	① 제시문 (차)를 토대로 제시문 (자)의 아카키가 경찰서장 대신 고위층 인사를 찾아간 이유와 그 행위가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을 명확하게 서술함(12점): 3~12점 부여	고위층 인사를 찾아간 이유나 그 행위의 문제점 중 하나만 서술했을 경우	3~5점
		고위층 인사를 찾아간 이유나 그 행위의 문제점 모두 서술했으나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5~7점
		고위층 인사를 찾아간 이유와 그 행위의 문제점을 모두 서술한 경우	9~12점
	② 제시문 (카)를 바탕으로 고위층 인사가 아카키를 대할 때 필요한 자세를 찾아내었는지 평가함(10점): 3~10점 부여	제시문 (카)의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제시문에서 파악한 내용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3~5점
제시문 (카)에서 고위층 인사에게 필요한 자세를 모두 찾아 서술한 경우		6~8점	

2. 2025학년도 모의논술: 경영경제계열

문제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내가 처음 요동(遼東)에 들어섰을 때 바야흐로 한여름이라 띄약별 속을 가는데, 갑자기 큰 강이 앞을 가로막 으면서 시뻘건 물결이 산더미같이 일어나 끝이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아마 천 리 너머 먼 지역에 폭우가 내린 때 문일 터이다. 강물을 건널 적에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보기에, 나는 그 사람들이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향해 속으로 기도를 드리나 보다 하였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안 사실이지만, 강을 건너는 사람이 물을 살펴보면 물이 소용돌이치고 용솨음치니, 몸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하고 눈길은 물살을 따라 흘러가는 듯하여, 곧 어지럼증이 나서 물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 저 사람들이 고개를 쳐든 것은 하늘에 기도를 드리는 것 이 아니요, 물을 외면하고 보지 않으려는 짓일 뿐이었다. 또한 잠깐 새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어느 겨 를에 속으로 목숨을 빌었겠는가.

이와 같이 위태로운데도, 강물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요동 별판이 평평하고 드넓기 때문에 강물이 거세게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다.”라고 모두들 말하였다. 그러나 이는 강에 대해 잘 모르고 한 말이다. 요하(遼河)*가 소리를 내지 않은 적이 없건만, 단지 밤중에 건너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다. 낮에는 물을 살펴볼 수 있는 까닭에 눈이 오로지 위태로운 데로 쏠리어, 한창 별벌 떨면서 두 눈이 있음을 도리어 우환으로 여기는 터에, 또 어디서 소리가 들렸겠는가? 그런데 지금 나는 밤중에 강을 건너기에 눈으로 위태로움을 살펴보지 못하니, 위태로움이 오로지 듣는 데로 쏠리어 귀로 인해 한창 별벌 떨면서 걱정을 금할 수 없었다.

나는 마침내 이제 도(道)를 깨달았도다! 마음을 차분히 다스린 사람에게는 귀와 눈이 누를 끼치지 못하지만, 제 귀와 눈만 믿는 사람에게는 보고 듣는 것이 자세하면 할수록 병폐가 되는 법이다. 소리와 빛같은 나의 외부 에 있는 사물이다. 이러한 외부의 사물이 항상 귀와 눈에 누를 끼쳐서, 사람이 올바르게 보고 듣는 것을 이와 같이 그르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장차 나의 산중으로 돌아가 대문 앞 계곡의 물소리를 다시 들으며 이와 같은 깨달음을 검증하고, 아울러 처신에 능란하여 제 귀와 눈의 총명함만 믿는 사람들에게도 경고하련다.

*요하: 청나라의 북쪽 국경 너머에서 발원하여 봉천(지금의 선양)과 금주 사이를 흐르는 큰 강.

(나) ‘미안해.’라는 말은 여간 어렵지 않다. 분명히 내게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안해.’라는 말 을 하려면 목소리가 기어들거나 가능하면 슬쩍 얼버무려 버린다. 마음속으로 미안한 감정을 느끼지 않아서가 결코 아니다. 너무나 미안하다고 생각할 때도 그렇다. 왜 ‘미안해요.’라는 짧은 말 한마디가 그토록 두려운 것인가?

‘미안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나의 결함과 실수를 인정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다. 좀 더 마음속 깊이 파고들어 가 보면, 그것은 아마도 어쩌면 내가 잘못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일지도 모른다. 내가 남보다 못났다는 데 대한 열등의식이거나 자격지심일 수도 있다. 만일 내가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 이 있다면, 내가 잘못했고 그 사실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무어 그리 어렵겠는가?

하지만 오늘 나는 ‘미안합니다.’라는 말, 아니 그 말의 위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만 했다.

저녁때 아버지가 차를 갖고 오피스텔에 있는 나를 데리러 오셨다. 아버지와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나갔는데, 건물 뒤편에 있는 주차장 경비원이 아버지에게 현관 가까이에 차를 댔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 다. 아버지는 계속 허리를 굽히면서 사과하고 계셨다.

“미안합니다. 잠깐만 있을 겁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곧 나올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연세쯤 되어 보이는 경비원은 심하게 아버지를 힐책하였다*. 물론 차를 현관 근처에 대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경비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 너무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서, 나는 경비원을 한번 흘끗 쳐다보고는 차에 올라탔다.

경비원은 잠시 나와 목발을 번갈아 가며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깊이 머리를 숙이더니,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지 그랬어요. 만약 그랬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텐데요. 이분이라면 몸이 불편하시니까 여기 대셔야지요. 이분을 자주 뵈어요.”라고 사과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인사하고 헤어졌다. 두 사람은 모두 기꺼이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기분 좋게 웃으며 헤어질 수 있었다.

그래도 나는 차를 타고 나서 아버지에게 투덜댔다.

“아버지, 왜 그 사람한테 허리까지 굽히고 그래. 채신없어* 보이잖아.”

“채신? 원, 잘못된 거 사과하는 데 채신은 무슨 채신이냐?”

이번 일을 계기로 나도 ‘미안합니다.’를 좀 더 자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 힐책하였다: 잘못된 점을 따져 나무랐다.

* 채신없어: 말이나 행동이 경솔하여 위엄이나 신망이 없어.

(다)

[앞부분의 줄거리] 한때 촉망받는 뮤지컬 감독이었던 일한은 재기를 꿈꾸며 도전한 뮤지컬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순수한 목소리를 가진 영광을 만난다. 일한은 처음에는 영광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라는 편견 때문에 구박을 일삼고 함부로 대했지만, 영광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유명해져서 자신을 버린 아빠를 찾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일한은 살이 다 터지도록 피나게 노력하는 영광과 함께 진심을 다해 꿈의 무대에 도전한다.

사회자 자, 다음 무대는요……. 화제의 주인공이죠? 까만 콩 김영광 군입니다!

조명이 들어오고 세손* 의상의 영광이 혼자 무대에 덩그러니 서 있다. 천천히 객석을 둘러보는 영광,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하다. 공연이 시작되지 않자 객석이 살짝 술렁인다. 사회자가 얼른 시작하라는 신호를 주지만, 여전히 미동 없는 영광. 무대 뒤편에서 조바심 내고 있던 일한이 큰 소리로 영광을 부른다. 일한을 돌아보다 고개 돌리는 영광. 여전히 홀로 서 있다. 일한이 무대로 걸어 나가서 영광 앞에 한쪽 무릎을 굽혀 앉는다.

일한 왜? 전부 네 노래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지 않아.

영광 전 얼굴도 까맣고…… 그런데 정조 대왕님은 얼굴도 하얗고…… 난 아빠도 없고…… 아빠는 날 창피 해하는데…… (설움이 복받쳐 더듬거리며) 난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일한 영광아, 아니야. 그 사람들…… 너한테 화내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니야. 네가 맞아.

영광 (계속 울먹이고)

일한 이거 영광의 노래야. 너 아니면 안 돼. 너만 할 수 있는 거야.

영광 …….

일한 너, 지난번에 무대에서 날았던 날 기억하지?

영광 (고개 끄덕이고)

일한 응? 내가 보면 그때처럼 나는 거야. 알았지?

영광 (일어나는 일한을 붙잡는 영광)

일한 (다시 앉으며) 같이 하자, 그러면. 내가 시작하면 같이 하는 거야. 내가 시작하면 영광이 나는 거다, 알았지? 응?

무대 한 칸의 피아노 앞으로 가서 앉은 일한. 건반에 손을 올려 두며 영광과 눈을 맞춘다. 전주가 시작되면 피아노 선율을 타고 흐르는 아름다운

운 영광의 목소리. 목소리만으로도 어린 정조의 고통과 슬픔이 느껴진다. 노래를 따라 자연스럽게 영광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손끝에서 발끝까지 슬픔과 환희와 고통을 온몸으로 노래하고 춤추는 영광. 일한도 혼신을 다해 피아노를 연주한다. 작지만 압도적인 영광의 무대에 객석에서는 일제히 환호가 쏟아진다.

*세손: 왕세자의 말아들.

(라) 우리에게 학교는 바깥세상의 공포를 피하는 안식처였다. 하지만 물론 학교에서도 우리는 위협 아래 있었다. 처음 폭파된 학교는 마타에 있는 공립 여자 초등학교 샤와르 장가이었다.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 후 더 많은 폭탄이, 거의 매일 터졌다. 밍고라에서도 폭발이 있었다. 내가 부엌에 있을 때 폭탄이 두 번 터졌는데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 집 전체가 흔들렸고, 창문 위에 있던 선풍기가 떨어졌다. 나는 부엌에 들어가는 일이 너무나 무서워서 재빨리 뛰어 들어갔다 뛰어나오곤 했다. 2008년 2월 마지막 날, 내가 부엌에 있을 때 엄청난 폭발이 있었다. 귀가 찢어질 듯 요란한 소리였다. 하지바바 고등학교 농구 코트에서 자살 폭탄이 터진 것이었다. 탈레반은 조문 온 사람들에게까지 폭탄을 터뜨렸다. 쉰다섯 명 이상이 사망했다. 사망자 가운데는 자비드 익발의 어린 아들을 비롯해 우리가 아는 사람이 많았다. 모니바 가족 중 열 명이 그 자리에 있었고, 모두 죽거나 다쳤다.

“지금 무서우세요?” 내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밤에는 우리의 두려움이 강해진다. 하지만 아침이 오면, 빛이 비치면, 우리는 다시금 용기를 되찾게 된다.” 이 이야기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해당하는 진실이었다. 우리는 두려웠지만 두려움은 우리의 용기만큼 강하지 않았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계곡에서 탈레반을 몰아내야 한다. 그래서 다시는 누구도 이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버지가 말했다.

학교에서 아버지는 평화 행진을 조직했고,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격려했다. 어느 날 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뉴스 채널인 지오(Geo)에 갔다. 나는 아주 많은 채널을 보고 놀랐다. 나중에 생각했다. 언론은 인터뷰가 필요하다. 그들은 어린 소녀와 인터뷰하고자 하지만, 친구들은 두려워한다. 친구들이 두려워하지 않더라도 친구 부모님들이 허락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겁먹지 않는 사람이며 항상 내 곁을 지켜 주신다. 아버지가 말했었다. “넌 어린아이고, 말하는 것은 네 권리.”라고.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나 자신이 더욱 강하게 느껴졌고 우리는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 내가 나의 권리를 위해, 우리의 권리를 위해 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나의 의무이기도 하다.

(마) 겨울인데다 밤길이었던 고로 쉬운 길은 아니었다. 아버지는 자전거에 타고 나를 뒷자리에 앉게 하셨다. 인적이 드문 신작로에 들어선 나는 조심스럽게 “아부지!” 하고 불렀다.

“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나이 대 사나이로서.”

“짜나아이? 어디 한번 해 보나라.”

“저 학교에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배울 것도 없는 것 같고 애들도 너무 유치해서 사귄 마음이 나지 않습니다. 차라리 자연과 라디오를 스승 삼고 주경야독으로 제 수준에 맞는 진학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이 씨익씨익, 하고 페달만 밟으셨다.

“실은 제 정신 수준은 보통 사람의 서른 살에 도달했다고 판단한 지 어언 두 달이 넘었습니다. 어찌면 대학도 갈 필요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싼 학비를 안 대 주셔도 되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아버지는 자전거를 세우고는 거의 표준말에 가까운 억양과 어휘로 말했다.

“고맙다, 내 걱정까지 해 주다니. 그렇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아라. 시간을 줄 테니.”

그러고는 달빛 비치는 서산을 넘어 불어오는 바람 속에 자전거를 세워 두고는 신작로 아래 냇가로 내려갔다. 나는 아버지가 오줌을 누러 가시나 보다, 생각하고는 자전거 위에 앉은 채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한 참이나 지났는데도 오시지 않았다.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에 자전거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그렇지만 자칫 잘못 내리다가는 자전거와 함께 신작로 아래로 굴러떨어질 것 같아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한 채 떨면서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가 앉았던 안장을 움켜쥐고 내가 하느님을 서너 번은 죽히 불렀을 때 비로소 아버지가 올라왔다.

“달밤에 신작로 위에서 자전거 타고 혼자 있으니까 세상이 다 니 아래로 보이더냐?”

그 물음에는 천재인 나도 대답할 말을 쉽게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내 아이가 내게 그렇게 말해 온다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본다. 준비되지 않은 채 몸과 마음만 들뜬 아이를 마음으로 감복시킬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세상의 틀에 우겨 넣으려는 한, 내 중년은 아버지의 중년에 비할 수 없이 유치하다.

(바) [앞부분의 줄거리] 6·25 전쟁 중 오빠와 올케가 사망하자 ‘나’는 짓먹이로 고아가 된 조카 ‘훈이’를 맡아 키우게 된다. 자유를 찾아서라기보다 돈만 있으면 ‘훈이’에게 줄 우유를 살 수 있는 세상을 찾아, ‘나’는 남으로 피란을 간다. ‘나’는 ‘훈이’가 기술을 배워 적당한 곳에 취직해서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란다.

훈이가 고등학교 이 학년이 되자 반을 문과 이과로 나누게 되었고, 훈이가 나한테는 아무 상의도 안 하고 문과를 택한 걸 나는 나중에야 알았다. 나는 우선 그런 문제를 나한테는 상의 한마디 안 한 게 서운했다. 더 늦기 전에 일을 바로잡아 보리라 마음먹었다. 나는 학교에 쫓아가서 담임 선생님께서 애걸하다시피 해서 훈이가 문과에서 이과로 전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훈아, 너희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너는 인문계보다는 이공계가 더 적성에 맞는대. 좀 좋아. 넌 큰 기업체에 취직해서 착실하게 일해서 돈도 모으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서 살림 재미도 보고 재산도 늘리고, 그리고 살아야 돼.”

아무튼 훈이는 내가 옮겨 준 대로 이과에 잘 다녔다. 그러나 형편없이 성적은 떨어졌다. (중략)

말없이 고분고분 취직 시험을 수없이 보고, 보는 족족 떨어졌다. 취직 시험도 하도 여러 번 치르니, 보러 가기도 보러 가라기도 점점 서로 미안하게 되었다. 이 년 가까이를 이렇게 지겹게 보내던 훈이 어느 날 나에게 해외 취업의 길을 뚫을 수 있을 것 같으니 교제비로 돈을 좀 달라는 요구를 해 왔다.

“뭐라고, 해외 취업? 그럼 외국에 나가 살겠단 말이지? 그건 안 된다.”

“왜요 고모, 쪼쪼하게 돈이 아까워서? 아니면 고모가 영영 할머니를 떠맡게 될까 봐 겁나서?”

나는 그 녀석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녀석도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시선이 강하게 부딪쳤으나 나는 단절감을 느꼈다.

“해외 취업은 당분간 보류하렴. 할머니 때문이든 돈 때문이든 그건 네 마음대로 생각해도 좋다. 그리고 취직 문제인데, 너무 고지식하게 정문만 뚫으려고 했던 것 같아. 방법을 좀 바꾸어서 뒷문으로 통하는 길을 알아봐야겠다. 돈이 좀 들더라도…….”

“흥, 돈 때문은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나는 대꾸도 하지 않았다.

(사) 아버지는 식구들이 저녁을 마친 후에 돌아온 아들 성규를 사정없이 몰아붙였다.
 “너더러 누가 그런 짓 하랬어.”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한 발자국 내딛는 순간, 노기를 한꺼번에 모은 호령이 그를 사로잡았다.
 “할아버지까지 동원한 게 잘한 짓이니?”
 “동원이란 말이 싫습니다. 누가 누구를 동원한단 말입니까. 또 그 일이 어째서 잘하고 잘못하고로 구별돼야 하는지, 저는 통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잘하고 잘못하고의 인식에서는 벗어나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일에 합당한 재능을 갖고 있을 때, 한쪽은 그걸 표현할 기회를 주어야 마땅하며, 한쪽은 기꺼이 그 기회에 편승해서, 일이 잘되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너 이제 보니 참 똑똑하구나. 그래서, 일이 잘됐니?”
 “대성공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어머니의 쉼소리가 그의 뺨에 달라붙었다.
 “또박또박 말대답하는 것 좀 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버지의 생각 속으로만 저를 챙겨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가 알긴 뭘 알아. 네가 내 속을 어떻게 알아.”
 “그런 말씀은 이제 그만 좀 하셨으면 해요. 너는 아직 모른다. 너도 내 나이가 되어 봐라……. 안팎에서 듣는 그 말에 물릴 지경이거든요. 그때 가서 그 뜻을 알지언정, 지금부터 제 사고와 행동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할아버지를 우리 모임에 초청한 사실을 후회하지 않을뿐더러,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여러분, 혹시 처음으로 친구들이랑 영화를 보러 가거나 여행을 간 날, 기억하시나요? 저도 그날이 생생한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 얘기를 해 주셨어요. “모르는 길 가지 말고, 모르는 사람이랑 얘기하지 말고, 혼자 다니지 마.” 이 길거리 위의 세 가지 금기를 저에게 알려 주셨는데요, 여러분도 이 금기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궁금해지는 거예요. 과연 내가 안 가 본 나라는 어떨까? 그곳에 가면 어떤 편견을 깨고, 무엇에 공감할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정했죠. 아프리카로 가겠어!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모르게 예방 접종을 맞고, 모아 둔 돈을 털어서 아프리카행 비행기를 탔어요.
 사실 우리는 항상 익숙한 길을 가게 돼요. 왜냐하면 예측 가능하고 편하니까. 내가 언제, 어디에 도착할지 아니까요. 그런데 금기를 어기고 나니까 제가 길에 관해서 깨달은 점이 하나 있어요. 길은 어떤 지점에서 도착지로 걸어갈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사실은 모험이라는 점이었어요.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등장인물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와 두려움을 ‘극복한 방법’을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바)에 나타난 고모의 양육 방식을 제시문 (라)와 (마)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비판하고, 제시문 (사)의 성규가 부모와의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과 제시문 (아)에 나타난 화자의 삶의 태도를 토대로 제시문 (바)의 훈이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를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 다음 상황에 기초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 한 연구에 따르면 도시의 실업률과 사회적 불안 지수 간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
- 도시의 실업률이 $a(\%)$ 일 때, 연속확률변수인 사회적 불안 지수 X 는 다음의 확률밀도함수를 따른다. 단, $a > 0$ 이다.

$$f(x) = \begin{cases} \frac{x}{(a+1)(a+2)} & (0 \leq x < a+2) \\ -\frac{x}{a(a+1)} + \frac{2}{a} & (a+2 \leq x \leq 2a+2) \end{cases}$$

[문제 3] 위의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도시의 실업률이 $a(\%)$ 일 때 사회적 불안 지수의 예측값 k 는 사회적 불안 지수 X 가 k 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frac{3}{4}$ 인 값으로 정하였다. 이때, k 가 2 이상이 되는 실업률의 최솟값을 구하시오. [20점, 원고지 작성법을 준수할 필요 없음]

제시문 출전과 해설

- 제시문 (가) 박지원, 「일야구도하기」, 정호웅 외 5인, 『문학』, 천재교육, 2019, 228-231쪽.
- 제시문 (나) 장영희, 「미안합니다」, 한철우 외 6인, 『독서』, 비상교육, 2018, 85-90쪽.
- 제시문 (다) 안호경 각본, 황조윤 각색, 김성훈 감독, 「마이 리틀 히어로」, 김동환 외 6인, 『문학』, 천재교과서, 2019, 41-46쪽.
- 제시문 (라) 말랄라 유사프자이, 「나는 말랄라」, 류수열 외 7인, 『문학』, 금성출판사, 2019, 316-319쪽.
- 제시문 (마) 성석제, 「젊은 아버지의 추억」, 정재찬 외 5인, 『문학』, 지학사, 2019, 292-294쪽.
- 제시문 (바) 박완서, 「카메라와 워커」, 류수열 외 10인, 『국어』, 금성출판사, 2018, 204-217쪽.
- 제시문 (사) 최일남, 「흐르는 북」, 한철우 외 7인, 『문학』, 비상교육, 2019, 306-311쪽.
- 제시문 (아) 임수민, 「길을 제대로 걷는 세 가지 비밀」, 이도영 외 7인, 『화법과 작문』, 창비, 2019, 100-103쪽.
- 문제 3 출전
 - 수학 I-4-3 이차부등식과 연립이차부등식 (㈜교학사, 권오남 외 14인, 2020; pp. 86-92)
 - 수학 I-4-2 이차부등식 (㈜좋은책신사고, 고성은 외 6인, 2020; pp. 87-92)
 - 수학 II-3-5 이차부등식과 연립이차부등식 (㈜비상교육, 김원경 외 14인, 2020; pp. 82-87)
 - 수학 II-3-4 이차부등식 (㈜지학사, 홍성복 외 10인, 2023; pp. 94-99)
 - 미적분 III-1-4 여러 가지 함수의 정적분 (㈜비상교육, 김원경 외 14인, 2020; pp. 134-137)
 - 미적분 III-1-1 여러 가지 함수의 부정적분과 정적분 (동아출판(주), 박교식 외 19인, 2020; pp. 127-133)
 - 미적분 III-1-4 여러 가지 함수의 정적분 (㈜지학사, 홍성복 외 10인, 2023; pp. 150-159)
 - 미적분 III-1-4 여러 가지 함수의 정적분 (㈜좋은책신사고, 고성은 외 5인, 2020; pp. 140-145)
 - 확률과 통계 III-1-1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좋은책신사고, 고성은 외 5인, 2023; pp. 79-84)
 - 확률과 통계 III-1-1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교학사, 권오남 외 14인, 2023; pp. 82-88)
 - 확률과 통계 III-1-1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천재교육, 이준열 외 7인, 2022; pp. 83-89)
 - 확률과 통계 III-1-1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동아출판(주), 박교식 외 19인, 2023; pp. 81-86)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문학』(천재교육, 2019)에 실린 박지원의 「일야구도하기」에서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수정·편집한 글이다. 이 작품은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단원 중 ‘교술 갈래의 흐름’ 영역에 수록되어 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하는 것이다. 「일야구도하기」는 하룻밤에 강을 아홉 번 건너 경험을 통해 깨달은 바를 적은 글이다. 이 작품에서 발췌한 제시문 (가)에는 강을 건널 때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와 강을 건너는 경험을 통해 깨달은 바가 제시되어 있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독서』(비상교육, 2018)에 실린 장영희의 「미안합니다」에서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수정·편집한 글이다. 이 작품은 ‘새롭게 바라보는 독서’ 단원 중 ‘감상적 읽기’ 영역에 수록되어 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글의 내용에 공감하거나 감동한 부분을 찾아서 읽고 글이 주는 즐거움과 깨달음을 수용하며 감상적으로 읽어 보는 것이다. 「미안합니다」는 ‘미안합니다’라는 말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던 자신의 경험을 담은 수필이다. 이 작품에서 발췌한 제시문 (나)에는 화자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와 그 말의 가치를 알게 된 경험이 서술되어 있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문학』(천재교과서, 2019)에 실린 안호경·황조윤·김성훈의 「마이 리틀 히어로」에서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수정·편집한 글이다. 이 작품은 ‘문학의 생활화’ 단원에 수록되어 있으며, 단원의 학습 목표는 문학 활동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과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마이 리틀 히어로」는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어 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 작품에서 발췌한 제시문 (다)에는 공연을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영광과 영광이 꿈을 이루도록 끝까지 지지해주는 일한의 대화를 담겨 있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문학』(금성, 2019)에 수록된 말랄라 유사프자이·크리스티나 램의 「나는 말랄라」에서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수정·편집한 글이다. 이 작품은 ‘문학에 임하는 인간의 태도’ 단원에 수록되어 있다. 단원의 학습 목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공동체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소통해 보는 것이다. 「나는 말랄라」는 여성과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노력했던 파키스탄의 한 소녀의 삶을 다룬 수필이다. 이 작품에서 발췌한 제시문 (라)에는 탈레반의 테러로 인해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만 가족의 지지로 용기를 갖고 투쟁하는 말랄라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문학』(지학사, 2019)에 실린 「젊은 아버지의 추억」을 출제 의도에 맞게 발췌하여 일부 편집, 수정하였다. 이 글은 ‘4. 한국 문학의 흐름’ 단원 중 「(4) 교술 갈래의 흐름」에 실렸으며,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서정 갈래의 대표적인 작품을 감상하고 갈래의 전개와 구현 양상을 탐구하고 서정 갈래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시문은 아버지와 아들간의 대화를 바탕으로 아들의 요구에 대해 아버지가 어떤 방식으로 아들을 설득하고 감복시키는가를 묘사하고 있다. 아들의 치기어린 요구에도 아버지는 아들 스스로 생각하고 깨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아들은 성인이 되어 이러한 기억을 되새기며 자신의 태도를 성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국어』(금성출판사, 2018)에 실린 박완서의 글 『카메라와 워커』를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편집하여 발췌한 글이다. 이 글은 ‘6. 나답게 읽기’ 단원 중 ‘(2) 인물의 삶에서 세상을 읽다’에 실렸으며,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자신의 관점에서 문학 작품 속 화자의 정서나 상황을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문학 작품을 독자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목표로 한다. 이 글은 6.25 전쟁의 비극이 우리 사회와 개인의 삶에 남기고 간 상처와 의미에 대해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고모는 나름의 방식으로 조카를 잘 키우고 싶었으나, 조카와의 갈등 상황에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양육을 통해 단절이 심화되는 과정이 그려진다. 고모의 양육 방식과 이에 대응하는 조카 ‘훈’의 태도를 시대상황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문학』(비상교육, 2019) 교과서에 실린 최일남의 『흐르는 북』의 일부를 발췌한 글이다. 이 글은 ‘5. 문학에 관한 태도’ 단원 중 ‘(1) 자아 성찰과 타자 이해’에 실렸으며,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삶의 본질을 이해하며, 타자에 대한 이해와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배우는 것이다. 이 글은 전통적 가치로 상징되는 ‘북’을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소설이며 등장인물의 태도와 가치관을 통해 세대 간 화합의 가능성을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이다. 발췌한 부분의 내용에서는 아버지와 성규의 대화를 통해 강압적인 아버지의 다그침에도 성규가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밝히고 소통하려는 자세를 확인할 수 있다.

제시문 (아)는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창비, 2019) 교과서에 실린 임수민의 『길을 제대로 걷는 세 가지 비밀』의 일부를 출제 의도에 맞게 발췌한 글이다. 이 글은 ‘2. 화법과 원리의 실제’ 단원 중 ‘(3) 공적인 상황에서 격식을 갖춰 말하기’에 실렸으며, 이 중단원의 학습 목표는 청자의 특성에 맞게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하고 상황에 맞는 언어적, 준언어적 표현 전략을 사용하여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길거리 사진 작가인 화자는 청자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내용을 구성하여 자신의 삶에 자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발췌된 부분의 핵심 내용은 삶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어머니가 세운 금기를 어겼지만, 이러한 경험들이 중요한 삶의 교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예시답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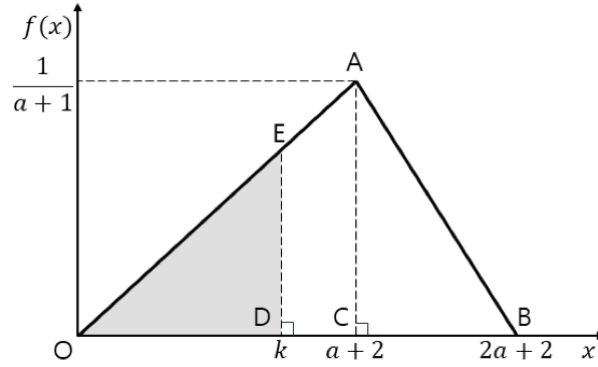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등장인물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와 두려움을 ‘극복한 방법’을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가)~(라)에는 등장인물이 두려움을 느끼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난다. (가)에서는 강물의 거친 소용돌이와 거센소리에 압도되어 강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 두려움이 지각에 따른 주관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두려움을 극복한다. (나)의 ‘나’는 미안하다는 말을 자신의 결함과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의 관계적 가치를 알게 되고 그 의미를 재해석함으로써 두려움을 극복한다. (다)의 영광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가 정조 대왕의 역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공연을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사람들의 편견에서 벗어나 자신을 신뢰해주는 사람을 믿고 함께 두려움에 맞선다. (라)에서는 테러로 인해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목격하고 죽음의 공포를 실감하지만, 가족의 지지로 용기를 갖고 탈레반을 몰아내기 위한 활동과 연대를 통해 두려움을 극복한다. 이처럼 사람들은 감각 의존, 자각지심, 사회적 편견, 죽음의 공포 실감 등으로 두려워하지만, 마음 다스림, 의미 재해석, 지지와 신뢰, 용기와 실천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569자]

[문제 2] 제시문 (바)에 나타난 고모의 양육 방식을 제시문 (라)와 (마)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비판하고, 제시문 (사)의 성규가 부모와의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과 제시문 (아)에 나타난 화자의 삶의 태도를 토대로 제시문 (바)의 훈이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를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라)와 (마)를 통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바)의 고모는 훈이를 존중하지 않는 양육 방식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라)에서는 아버지가 딸의 말할 권리를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고모는 훈이의 결정을 믿어주지 않고 훈이의 진로와 삶에 대해 본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요한다. (마)의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지만, 고모는 훈이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사)의 성규는 부모님과의 갈등 상황에서 수동적으로 순응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아)의 화자는 삶에 대한 호기심으로 어머니가 말한 금기를 어기고 진취적인 도전을 시도한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훈이는 진로나 취업 등 고모와 다른 의견으로 대립되는 상황을 회피하기보다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며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다른 사람의 강요를 수동적으로 따르지 말고 자신의 뜻에 따라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보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562자]

[문제 3 예시답안]



▶ 사회적 불안 지수의 확률밀도함수를 위의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프와 x 축이 이루는 삼각형의 세 꼭짓점을 각각 $O(0,0)$, $A(a+2, \frac{1}{a+1})$, $B(2a+2, 0)$ 라 하고, A 에서 \overline{OB} 에 내린 수선의 발을 $C(a+2, 0)$ 라 하자.

▶ 사회적 불안 지수의 예측값을 k 라 할 때 $D(k, 0)$, D 에서 \overline{OB} 에 수직으로 그은 직선이 \overline{OA} 와 만나는 점을 E 라 하자.

문제의 조건에 의해 k 는 $P(X \geq k) = \frac{3}{4}$ 을 만족해야 한다.

▶ $\overline{OC} = a+2$, $\overline{CB} = a$ 이므로 $\Delta ABC = \frac{a}{2a+2} \Delta OAB < \frac{1}{2}$ 이다.

이때 D 가 \overline{CB} 위에 있다면 $P(X \geq k) = \int_k^{2a+2} f(x)dx \leq \int_{a+2}^{2a+2} f(x)dx = \Delta ABC < \frac{1}{2}$ 이므로,

D 는 반드시 \overline{OC} 위에 있어야 한다.

▶ D 가 \overline{OC} 위에 있으므로, $P(X < k)$ 를 다음과 같이 적분으로 구할 수 있다.

$$\begin{aligned} P(X < k) &= \int_0^k \frac{x}{(a+1)(a+2)} dx \\ &= \left[\frac{x^2}{2(a+1)(a+2)} \right]_0^k \\ &= \frac{k^2}{2(a+1)(a+2)} \end{aligned}$$

▶ 위의 식에 $P(X < k) = 1 - P(X \geq k) = \frac{1}{4}$ 을 대입하여 다음과 같이 k 를 a 에 대하여 나타낼 수 있다.

$$\begin{aligned} \frac{k^2}{2(a+1)(a+2)} &= \frac{1}{4} \\ \Rightarrow k^2 &= \frac{(a+1)(a+2)}{2} \\ \Rightarrow k &= \sqrt{\frac{(a+1)(a+2)}{2}} \quad (\because k \geq 0) \end{aligned}$$

▶ (참고) 삼각형 OED 의 넓이를 이용하여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때 삼각형 OED 의 넓이는

$$\begin{aligned} \Delta OED &= \left(\frac{k}{a+2}\right)^2 \Delta OAC \\ &= \left(\frac{k}{a+2}\right)^2 \left(\frac{a+2}{2a+2}\right) \\ &= \frac{k^2}{2(a+1)(a+2)} \end{aligned}$$

이며, $\Delta OED = P(X < k) = \frac{1}{4}$ 임을 대입하면 같은 결과를 얻는다.

▶ 문제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 $k \geq 2$ 가 되는 a 의 최솟값을 찾아야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begin{aligned} \sqrt{\frac{(a+1)(a+2)}{2}} &\geq 2 \\ \Rightarrow (a+1)(a+2) &\geq 8 \\ \Rightarrow a^2 + 3a - 6 &\geq 0 \\ \Rightarrow a &\geq \frac{-3 + \sqrt{33}}{2} \quad \text{또는} \quad a \leq \frac{-3 - \sqrt{33}}{2} \end{aligned}$$

▶ $a > 0$ 이므로 구하는 답은 $\frac{-3 + \sqrt{33}}{2}$ 이다.

[문제 1]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32점+8점)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등장인물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32점 만점)

(가) **이유:** 강물의 거친 소용돌이와 거센소리에 압도되어 위태함을 느낌. (4점)

극복 방법: 두려움이 시각에 따른 주관적 판단에서 비롯됨을 깨닫고 마음을 다스림. (4점)

(나) **이유:** 미안하다는 말을 자신의 결함과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 (4점)

극복 방법: 미안하다는 말의 관계적 가치를 알게 되고 그 말의 의미를 재해석함. (4점)

(다) **이유:** 다문화 가정의 아이로서 자신이 정조 역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 (4점)

극복 방법: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 자신을 신뢰해주는 사람을 믿고 함께 도전함. (4점)

(라) **이유:** 테러로 인해 가까운 사람이 죽는 것을 목격하고 죽음의 공포를 실감함. (4점)

극복 방법: 가족의 지지로 용기를 갖고 탈레반을 몰아내기 위한 활동과 연대를 이어감. (4점)

- 네 개의 제시문에서 등장인물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와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모두 찾아 제시한 경우, 25~32점 부여
- 세 개의 제시문에서 등장인물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와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 제시한 경우, 17~24점 부여
- 두 개의 제시문에서 등장인물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와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 제시한 경우, 9~16점 부여
- 한 개의 제시문에서 등장인물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와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 제시한 경우, 4~8점 부여

2) 네 개의 제시문에서 등장인물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서론/본론/결론)로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답안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고(3점), 결론 부분에서 각 제시문의 차이가 핵심적 표현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점)

①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에 대한 핵심적 표현: 감각 의존, 자격지심, 사회적 편견, 죽음의 공포 실감

②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핵심적 표현: 마음 다스림, 의미 재해석, 지지와 신뢰, 용기와 실천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1]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각 제시문에서 등장인물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 제시(32점)	1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4~8점
		2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9~16점
		3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17~24점
		4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25~32점
	② 논리적 구성(3점)과 결론 제시(5점)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	1~3점
본론의 내용을 결론으로 잘 도출하여 요약했는지 여부		2~5점	

[문제 2]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20점+20점)

1) 제시문 (라)와 제시문 (마)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문 (바)에 나타난 고모의 양육 방식을 비판하시오. (20점: 6점+14점)

- ① (라)와 (마)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파악: 제시문 (라)와 (마)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모는 자녀를 존중하지 않는 양육 방식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비판. (8점)
- ② 고모의 양육 방식에 대한 구체적 비판: (라)에서 딸을 권리를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아버지의 모습에 비해 고모는 훈이의 결정을 믿어주지 않고 훈이의 삶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요하였다는 점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함 (7점). (마)의 아버지가 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모는 훈이의 의견을 무시하고 훈이가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해야 함. (7점)

2) 제시문 (사)의 성규가 부모와의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과 제시문 (아)에 나타난 화자의 삶의 태도를 토대로 제시문 (바)의 훈이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를 서술하시오. (20점: 10점+10점)

- ① (사)와 (아) 핵심적 논지를 각각 파악: (사)의 성규는 부모님과 갈등 상황에서 수동적으로 순응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5점). (아)의 화자는 삶에 대한 호기심으로 어머니가 말한 금기를 어기고 진취적인 도전을 시도했다는 점을 설명한다. (5점)
- ② 훈이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 앞의 논지를 바탕으로, 훈이가 진로나 취업 등 고모와 다른 의견으로 대립되는 상황을 회피하기보다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며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5점), 타인의 강요를 수동적으로 따르지 말고 자신의 뜻에 따라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보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서술한다. (5점)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2]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제시문 (라)와 제시문 (마)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문 (바)에 나타난 고모의 양육 방식을 비판했는지 평가(20점): 3~20점 부여	제시문 (라)와 (마)의 논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고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비판 역시 통합적 관점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	3~8점
		제시문 (라)와 (마)의 논지를 파악하고 있으나, 고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비판이 통합적 관점에서 서술되지 못하고 각각 서술되었을 경우	8~15점
		(라)와 (마)의 논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통합적 관점에서 고모의 양육방식을 비판하였을 경우	16~20점
	② 제시문 (사)에 나타난 화자의 삶의 태도와 제시문 (아)의 성규가 부모와의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을 토대로 제시문 (바)의 훈이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를 서술했는지 평가(20점): 3~20점 부여	제시문 (사)와 (아)의 논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훈이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 역시 잘 서술되지 않았을 경우	3~8점
		제시문 (사)와 (아)의 논지를 제대로 파악했으나, 훈이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로 연결하지 못한 경우. 또는 훈이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는 잘 정리했으나 제시문 (사)와 (아)의 논지가 부정확한 경우	8~15점
		제시문 (사)와 (아)의 논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훈이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 역시 잘 서술되었을 경우	15~20점

[문제 3] 20점 만점

[문제 3 출제 의도]

두 변수 간의 관계를 확률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은 논리적 사고 및 의사결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특히 경영경제계열 학생들에게 필수적이다. 본 문제는 한 변수 값에 따른 다른 변수의 확률분포를 이해하고, 주어진 조건 하에서 확률분포의 대푯값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문제 3 채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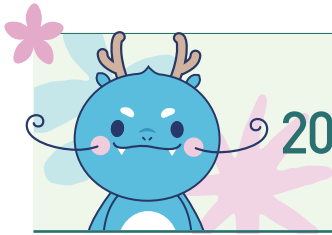
- 1) $f(x)$ 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예측값 k 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한 경우: +5점
- 2) 적분을 통해 예측값 k 를 실업률 a 에 대해 올바르게 표현한 경우: +10점
- 3) 이차부등식을 올바르게 표현하여 답을 정확하게 구한 경우: +5점

※ 계산 실수로 틀렸어도 논리 전개 과정이 맞으면 해당 부분에 1~2점의 부분 점수를 부여함.

※ 각 부분에서 바르게 답안을 작성한 경우에도 답안의 완성도에 따라 총점 20점 이내에서 ±1점 추가 점수 부여 가능함.

V. 202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기출문제 및 해설

- | | |
|----------------|----|
| 1. 인문사회계열 | 62 |
| 2. 인문사회계열 문제해설 | 69 |
| 3. 경영경제계열 | 75 |
| 4. 경영경제계열 문제해설 | 81 |



202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기출문제 및 해설

1. 인문사회계열

문제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와 같이 징역살이를 한 노인 목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노인이 내게 무얼 설명하면서 땅바닥에 집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에서 내가 받은 충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 집을 그리는 순서가 판이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붕부터 그리는 나의 순서와는 거꾸로였습니다. 먼저 주춧돌을 그린 다음 기둥·도리*·들보·서까래·지붕의 순서로 그렸습니다. 그가 집을 그리는 순서는 집을 짓는 순서였습니다. 집을 지어본 적이 없는 나와 달리, 일하는 사람의 그림이었습니다. 세상에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부터 그려 온 나의 무심함이 부끄러웠습니다. 나의 서가(書架)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낭패감이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책을 읽다가 ‘건축’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한동안 그 노인의 얼굴을 상기합니다. 교실과 공장, 종이와 망치, 이론과 실천……. 이러한 것들이 뒤바뀌어 있는 우리의 사고(思考)를 다시 한번 반성케 합니다.

만일 당신이 사회의 현장에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살아 있는 발로 서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발로 당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한 언젠가는 넓은 길, 넓은 바다를 만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춧돌에서부터 집을 그리는 사람들의 견고한 믿음입니다.

*도리: 서까래를 받치기 위하여 기둥 뒤에 건너지르는 나무.

(나) 여기 마흔을 넘긴 한 남자의 초상화가 있다. 그것도 자기 얼굴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이다. 이는 공재 윤두서(1668~1715)의 자화상이다. 이분의 눈매는 상당히 매서워 첫인상만으로도 보는 이를 압도한다. 활활 타오르는 듯한 수염은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기(氣)를 발산하는 듯하다.

윤두서의 ‘자화상’은 우리나라 초상화 가운데서 최고의 걸작, 불후의 명작이라고 일컬어지며 국보 제240호로 지정되어 있다. 인물은 정면상이다. 그러므로 정확한 좌우 대칭을 이룬다. 얼굴은 단순한 타원형이며 이목구비가 매우 단정하다. 얼굴 전체에서 바깥으로 뻗어 난 수염이 표정을 화면 위로 떠오르게 한다. 더하여 새까만 탕건 끝이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휘어져 있어 머리 전체의 부피감을 표현해 준다. 그런데 극사실로 그려진 이 작품 속의 인물은 놀랍게도 귀가 없다. 목과 상체도 없다. 마치 두 줄기 긴 수염만이 기둥인 양 양쪽에서 머리를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1995년 가을, 국립 박물관에서 개최 예정인 ‘단원 김홍도전’을 준비하면서 백방으로 관련 자료를 찾던 바쁜 와중에 뜻밖에도 58년 전 윤두서 ‘자화상’ 그림을 찍은 옛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1937년 조선사 편수회에서 편집하고 조선 총독부가 발행한 책 속에 들어 있었다. 옛 사진 속의 윤두서의 모습은 지금과는 크게 달

랐다. 그의 몸 부분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 현 상태에서 몸 없이 얼굴만 따로 떠 있는, 거의 충격적이라고 부를 만큼 지나치게 강하고 날카롭기만 한 ‘자화상’ 속 윤두서의 생김새는 훨씬 어질어 보이는 얼굴에 침착하고 단아한 분위기를 띠고 있었다. 윤두서는 옛 사진 속에서 도포를 입고 있었다. 단정하게 여민 옷깃과 정돈된 옷 주름 선은 완만한 굴곡을 갖는 고르고 기품 있는 선으로 이루어졌다.

원래 있었던 윤두서 ‘자화상’ 사진 속의 상반신 윤곽선이 그 후 어떻게 해서 감쪽같이 없어졌을까? 비밀은 몸이 유탄(柳炭)으로 그려진 데에 있었다. 유탄이란 요즘의 스케치 연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가는 숯이다. 이것은 화면에 달라붙는 점착력이 약해서 쉽게 지워진다. 그래서 소묘하다가 수정하기에 편리하므로 통상 밑그림을 잡을 때 사용한다. 그런데 ‘자화상’의 경우, 주요 부분인 얼굴부터 먹선을 올려 정착시키고 몸체는 우선 유탄으로만 형태를 잡는 과정에서 그 몸에 미처 먹선을 올리지 않은 상태로 전해 오다가 언젠가 그 부분이 지워져 버린 것이다.

이제 지금껏 조선 초상화의 최고 걸작이며 파격적인 구도를 가진 완성작이라고 생각되어 온 ‘자화상’은 미완성작임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미완성작임이 드러났다고 해서 실망할 것은 없다. 작품의 예술성도 미완성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화상’은 미완성작이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마지막 손질이 더해지지 않은, 작가 자신에 대한 심오한 상념이 전개되는 과정, 그리고 생생한 자기 성찰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다) 밭 바로 옆에는 우물이나 수도가 없다. 조금 걸어가야 그 마을 사람들에게 농수를 공급하는 수로가 있는데, 호스나 관으로 연결하기에는 거리가 제법 된다. 또 그러기에는 작은 밭에 너무 수선스러운 일인 것 같아 그냥 물을 한 통 한 통 길어다 주었다. 푸성귀들을 키우는 것은 물이 아니라 농부의 밭소리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닌가 보다. 우리 밭을 흡족하게 적시려면 수로까지 적어도 열 번은 왕복을 해야 하니 그것도 만만치 않은 노릇이었다.

물통을 들고 걸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우리 집에서 가까운 텃밭을 일구시는 어떤 할아버지인데, 물을 주러 가시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다. 그 할아버지는 몸 반쪽이 마비되어 걷는 게 그리 자유롭지 못하다. 성한 한쪽 팔로 물통을 들고 걸어가시는 모습은 거의 몸부림에 가까우면서도 이상한 평화 같은 것을 느끼게 한다. 절뚝절뚝 몸이 심하게 흔들릴 때마다 물은 찰랑거리면서 그의 낡은 바지를 적시고 길 위에 쏟아져, 결국 반통도 채 남지 않게 된다. 그렇게 몇 번씩 오가는 걸 나는 때로는 끝 듯이 지나가는 밭소리로 듣기도 하고, 때로는 마른 길 위에 휘청휘청 내고 간 젖은 길을 보고 알기도 한다.

그 젖은 길은 이내 말라 버리곤 했지만, 나는 그 길보다 더 아름답고 빛나는 길을 별로 보지 못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나 역시 그 밭의 채소들처럼 할아버지의 밭소리를 기다리게 되었다. 반 통의 물을 잃어버린 그 밭소리를.

물통을 나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한다. 내가 열 번 오가야 할 것을 그 할아버지는 스무 번 오가야 할 것이지만, 내가 이 채소들을 키우는 일도 그 할아버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떤 인간힘 때문은 아닐까. 몸에 피가 돌지 않는 것처럼 문득문득 마음 한쪽이 굳어져 가는 걸 느끼면서, 절뚝거리면서, 그러면서도 남은 반 통의 물을 살아 있는 것들에게 쏟아붓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아니었을까.

이 짙막한 이야기는 그렇게 밭을 가꾸는 동안 절뚝거리던 내 영혼의 밭소리 같은 것이다. 감히 농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자연과의 행복한 합일이라고도 부를 수 없지만, 그 어둠과 불구에 힘입어 푸른 것들을 만나러 가곤 했다. 그들에게 물을 주고 돌아오는 물통은 언제나 비어 있다.

(라) 부탄의 마을 치몽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로 외부와 완벽하게 격리된 곳이다. 마을이 생긴 이래 이곳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처음이다. 치몽은 한눈에 봐도 가난한 마을이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답게 변변한 세간도 없다. 사람들 옷차림도 남루하다. 그런데 얼굴 표정은 놀랄 만큼 밝다. 순해 보이고 잘 웃는다. 몸가짐은 부드러우면서 당당하다. 무엇보다 매 순간 몸과 마음을 다해 여행자들을 접대한다. 동네를 어슬렁거리기가 무서울 정도다. 활쏘기를 구경하려고 걸음을 멈추면 집으로 뛰어 들어가 돛자리를 꺼내 오고, 집 앞을 지나다 인사라도 하면 바로 방창과 아라* 세례를 받아야 한다. 논두렁길을 걷다 보면 어린 소년이 뛰어와 옷 속에 품은 달걀을 수줍게 내민다. 이 동네 사람들은 행복해 보일 뿐만 아니라 여행자들을 행복하게 해 주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다. 가진 게 별로 없는데도 아무렇지 않아 보였으며 빈한한* 살림마저도 기꺼이 나누며 살아가는 듯했다.

치몽에서는 늘 몸을 바쁘게 움직여야만 한다. 집 바깥에 있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도, 공동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기 위해서도 움직여야만 한다. 빨래는 당연히 손으로 해야 하고, 쌀도 키로 골라야 하며, 곡물은 맷돌을 돌려 갈아야 한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열심히 몸을 써야만 얻을 수 있다. 이 나라에서 삶은 그야말로 사는 것이다. 텔레비전으로 보고,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카메라로 찍는 삶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 직접 만들고 경험하는 삶이다. 이곳에서는 시간이 다른 속도로 흐르는 것 같다. 사람들이 여유로워 보이고 별걱정이 없어 보인다. 그냥 평생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긋함이 번져 온다.

실제로 우리는 일을 더 빨리 해 주거나 대신 해 주는 것들을 가졌는데도 늘 시간이 없다고 불평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기계가 아닌 몸을 써서 수많은 일을 해야만 하는 이 동네 사람들이 “바빠 죽겠다.”거나,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 과학 기술이 우리를 더욱 편하게 해 준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 더 빠른 것, 더 큰 것, 더 좋은 것만을 바라며 늘 ‘현재’를 저당 잡혀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늘 많이 가질수록 행복해진다고 믿어 왔다.

부탄에 머무른 스무 날 내내 부탄은 내게 묻는 것 같았다. 당신은 행복하냐고. 당신에게 행복은 어떤 의미냐고. 서른넷에 여행자의 삶으로 들어선 이후, 내 삶이 행복하다고, 감사할 일로 가득하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부탄은 더 깊이 캐묻는다. 여전히 욕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이제 충분하다고 멈출 수 있는 마음. 나눌 줄 아는 마음도 행복의 조건이 아닐까.

*방창, 아라: 부탄의 전통주.

*빈한한(貧寒-): 살림이 가난하여 집안이 쓸쓸한.

(마) 근교로 놀러 가자는 친구의 말에 “여유가 없어.”라고 쏘아붙이고 전화를 끊었다. 머리를 굴려 보면 나들이를 갈 수도 있을 듯했지만, 단칼에 거절하고 나니 정말로 여유가 없는 것 같았다. 달력을 넘겨 보고 휴대 전화 메모를 들여다보았다. 해야 할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 하루 놀러 가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문득 여유가 없다고 말할 때의 여유는 단순히 시간적 여유가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여유는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먼저 물질적 여유와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 두 가지 여유는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으로 규정된다. 통장 잔액을 확인할 때, 나도 모르게 자꾸 시계를 볼 때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살피는 여유 말이다. 이때는 여유의 기준이, 넉넉함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비교적 객관적인 편이다. 물질적 여유가 없어서 초밥 대신 김밥을 사 먹고 커피숍이 아닌 자판기 앞에 가야 할 때도 있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택시를 타거나 기다려 왔던 약속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세 번째로 여유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마음의 상태라고 지칭하긴 했지만 그 마음이

드러나는 표정, 태도, 행동 등을 통해 여유를 가늠할 수 있다.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디에 놀러 가는 것도 특별한 이유가 없이 다 싫어진다. 반면,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둘러싼 분위기에서부터 여유로움을 감지할 수 있다. 비단 물질적인 여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유 있음은 낯선 사람에게 얼마나 열려 있는지, 상대의 말을 얼마나 열심히 귀담아듣는지,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주위를 살피고 걷는지 등 대부분 태도에서 드러나게 마련이다. 음식을 내온 사람에게 건네는 미소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투에서도 여유는 묻어난다.

(바) [앞부분의 줄거리] 파리 중심가에서 정신과 의사로 살아가는 꾸빼 씨. 그는 마음의 병에 걸려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치료를 해도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없으며, 자신 역시 행복하지 않음을 깨닫는다. 그는 진료실 문을 닫고, 행복이 무엇인지 알기 위한 여행을 떠난다. 그리고 긴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여행 초반에 만났던 노승과 재회한다. 꾸빼 씨는 자신이 찾은 행복에 대한 배움의 목록을 노트에 적어 노승에게 전해 주며 이야기를 나눈다.

책상에 앉아 노승은 꾸빼가 내민, 행복에 대한 배움의 목록을 읽어 내려갔다.

“당신은 정말로 마음공부를 훌륭히 해냈어요. 덧붙일 게 아무것도 없군요.”

꾸빼는 기뻐지만 동시에 약간 실망스럽기도 했다. 노승이 새로운 정보나 가르침, 아니면 행복에 대한 훌륭한 이론을 줄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노승은 미소를 지은 채 그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덧붙여 말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한 바퀴 걷고 옵시다.”

바깥 풍경은 실로 경이로웠다. 산과 바다와 하늘이 동시에 보였다. 장엄한 초록으로 눈부신 날이었다. 그 풍경 속에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생각이 멎고 충만감이 느껴지는 절대적인 힘이 깃들어 있었다. 노승이 지금 원하는 건 꾸빼와 어떤 지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이 순간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느꼈다.

이윽고 노승이 말했다.

“진정한 지혜는 이 풍경 속에서 한순간에 발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언제까지나 깊이 감추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꾸빼는 문득 깊이 감추어져 있는 그것을 자신이 지금 이 순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사원 앞에 서서 구름과 태양과 바람이 한순간 산과 어울려 노니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꾸빼는 이것이 지금까지의 그 어떤 것보다 새로운 배움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모든 생각을 멈추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역시 노승다운 가르침이었다. 노승은 침묵 속에서 꾸빼에게 아주 먼 옛날부터 있어 온 하나의 진리를 전달하고 있었다. 그것은 행복에 대한 욕망이나 추구마저 잊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과 하나가 되어 존재할 때 저절로 얻어지는 근원적인 행복감이었다. 이러한 행복은 자주 찾아오지 않지만,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으며, 세상에서 얻는 다른 모든 행복의 기본을 이루는 것이었다. 꾸빼는 순간순간 터져 나오는 노승의 웃음이 바로 그 근원적인 행복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느꼈다.

(사) 영국 시인 테니슨과 일본 시인 바쇼의 시를 읽어 보자. 두 시인은 비슷한 경험, 즉 산책 중에 꽃을 본 자신의 반응을 표현하였다. 먼저 테니슨의 시를 보자.

갈라진 돌담에 핀 한 송이 꽃이여.

너를 틈 사이에서 뽑아

뿌리째 내 손에 들고 있네.
작은 꽃이여, 만일 너에 관한 것,
뿌리와 네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그때 나는 신도 인간도 훤히 알 수 있으리라.

그리고 바쇼의 시를 읊기면 다음과 같다.

가만히 살펴보니
냉이꽃이 피어 있네.
울타리 밑에!

테니슨의 반응은 꽃을 소유하려는 것이다. 그는 꽃을 ‘뿌리째’ 뽑아낸다. 그는 신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 꽃의 본질을 놓고 지적 명상에 잠기지만, 꽃은 그 관심의 결과로 죽어 버린다. 그러나 바쇼의 반응은 아주 다르다. 그는 꽃을 뽑으려 하지 않는다. 그는 꽃에 손을 대지조차 않는다. 다만 가만히 살펴볼 뿐이다. 단순히 꽃을 볼 뿐만 아니라 그것과 하나가 된다. 꽃을 그대로 살려 두면서 자신을 꽃과 일치시킨다.

꽃에 대한 테니슨의 생각은 소유 양식에 해당한다. 뿌리째 뽑아 든 꽃은 물질의 소유가 아니라 지식의 소유를 암시한다. 반면에 꽃에 대한 바쇼의 생각은 존재 양식에 해당한다. 존재 양식이란 어떤 것을 소유하지 않고 또 소유하려고 갈망하지도 않으면서, 살아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자기의 재능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며 세계와 하나가 되는 삶의 양식을 뜻한다.

자본주의 사회는 소유 지향적이므로 존재가 소유에 가려지기 쉽다. 무언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지만 실상 필연적으로 불안정하다. 그들은 돈, 명성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즉 자신 외부의 어떤 것에 의존하고 있다. 만약 그들이 자기가 소유한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실제로 소유한 것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당연히 사람은 자기 재산을 잃을 수 있으며, 지위, 친구 등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존재 양식의 삶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위협에서 오는 걱정과 불안이 없다. 나는 ‘존재하는 나’이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나의 안정감과 주체성을 빼앗거나 위협할 수 없다. 소유는 사용함으로써 감소되는 반면, 존재는 실천함으로써 성장한다.

(아) 예전에 동네 어귀마다 들어서 있던 구멍가게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사귀기가 이루어지고 이런저런 소식이나 소문들이 퍼져 나가는 중심지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구멍가게가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동네마다 속속 들어선 소형 매장이 있으니 바로 24시간 편의점이다.

구멍가게의 경우 주인이 늘 지키고 앉아 있다가 들어오는 손님들을 맞이한다. 그러나 편의점의 경우 점원은 출입할 때 간단한 인사만 건넨 뿐 손님이 말을 걸기 전에는 입을 열지도 않을뿐더러 시선도 건네지 않는다. 그래서 특별히 살 물건이 없어도 부담 없이 매장을 둘러볼 수 있다. 편의점이 매력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점원이 ‘귀찮게’ 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익명의 고객들이 대거 드나드는 편의점에 단골이 생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편의점은 24시간 열어 놓고 있어야 하기에 주인들은 자기가 계산대를 지키기보다는 아르바이트 점원을 세우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 점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나 방식이 어느 편의점이든 똑같이 표준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 사회학자가 즉석 식품점을 분석하기 위해 설정한 ‘각본에 의한 고객과의 상호 작용’, ‘예측 가능한 종업원의 행동’ 등의 개념은 편의점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 사회학자는 종업원들이 고

객을 대하는 규칙이 매우 세밀하게 짜여 있고, 그 편안한 의례와 각본 때문에 손님들이 즉석 식품점에 매료된다고 보고 있다. 종업원이 누구든 그 외모, 말씨, 감정 등을 예측할 수 있기에 고객들은 편안하게 음식을 주문하고 구매할 수 있다. 깔끔한 인간관계 그 자체이다. 그리고 그러한 효율적인 소통이 짧은 시간에 많은 손님을 접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즉석 식품점의 그러한 속성을 편의점도 거의 그대로 지니고 있다.

(자) 가짜 뉴스의 정의에 대해서는 의견이 여러 갈래로 나뉜다. 언론사의 오보에서부터 인터넷상의 뜬소문까지, 가짜 뉴스라는 용어는 넓은 의미 영역 안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에 2017년 한국 언론 학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가짜 뉴스를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라고 정의하였다. 뉴스가 범람하는 상황에서 바쁜 현대인들은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눈길을 끄는 뉴스가 잘 팔리는 뉴스가 된다. 그 결과 혐오나 선동과 같은 자극적인 요소를 담아 눈에 띄게 만든 가짜 뉴스가 판을 치게 된다.

누리 소통망(SNS)의 정보 처리 규칙도 혐오와 차별, 극단적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 기여했다. 이때 정보 처리 규칙은 이용자가 좋아하고 자주 보는 것 위주로 정보를 선별하여 보여 주는 방식을 통해 개인 맞춤형 뉴스를 제공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개인의 편견과 고정 관념 역시 강화된다는 점이다. 이른바 ‘필터 버블(Filter Bubble)’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필터 버블은 인터넷 검색 업체(포털)와 누리 소통망 등이 이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특정 정보만 편식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엘리 프레이저는 자신의 누리 소통망 계정에 보수 성향의 글이 올라오지 않는 이유가 정보 통신 업체 측이 자신의 이용 내역을 분석하는 정보 처리 규칙으로 보수 성향의 정보들을 걸러 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개인 맞춤형 정보 처리 규칙이 정치·사회 분야의 뉴스와 만나게 되면 특정 정보 편식 현상이 극대화될 수도 있다.

(차) 뉴 미디어의 발달로 정보의 공급자와 소비자 간 경계가 허물어졌다. 즉 정보를 소비할 뿐만 아니라 직접 생산하고 유통하는 생산적 소비자(prosumer)의 시대, 또는 1인 미디어 시대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렇다면 정보를 생산하고 동시에 유통, 소비하는 주체인 현대인에게 요구되는 매체 윤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개인 정보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뉴 미디어를 통한 개인 정보의 공개는 사람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격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인격권이란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둔 사적 권리로 인격적 이익을 기본 내용으로 하며 그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사람들의 알 권리와 개인의 인격권은 둘 다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보장되어야 할 중요한 권리이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개인 정보는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표현의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뉴 미디어는 개인적인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지만, 다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적인 영역이다. 따라서 뉴 미디어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사회 질서 및 공공복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나아가 매체 이해력(media literacy)을 갖추어야 한다. 매체 이해력이란 매체가 형성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읽어 내면서 매체를 제대로 사용하고 바람직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말한다. 뉴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정보 중에는 잘못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뉴 미디어상에 유포하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 [문제 1]** 제시문 (가)~(라)에는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이 서로 비교되는 다양한 모습이 나타난다.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화자가 비교를 통해 발견한 ‘차이점’과 이로 인해 ‘깨달은 것’을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 [문제 2]** 제시문 (라)에 나타난 부탄 사람들의 ‘삶의 여유’를 제시문 (마)의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고, 제시문 (라)에 언급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를 제시문 (바)와 (사)를 각각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 [문제 3]** 제시문 (아)의 편의점 서비스 공급자와 제시문 (자)의 누리 소통망(SNS)의 뉴스 공급자가 이용자를 대하는 ‘전략의 차이’를 기술하고, 제시문 (자)의 가짜 뉴스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시문 (차)를 토대로 서술하시오. [20점, 330-350자]

평가목표

인문사회계열 논술 시험은 고교 교육 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모두 갖춘 통합형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수험생들의 추론적·논리적 사고력에 기초한 종합적 사고력과 자신의 주장을 적합한 언어에 담아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2024년 논술에서 사용된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글에서 선별하였고, 논술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다양한 각도에서 독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교육부의 '고등학교 핵심 성취기준'에 부합되도록 출제하였다. 2024 인문사회계열 논술의 핵심 키워드는 '비교를 통한 차이의 발견'과 '깨달음'이다. 구체적으로 1) 국어, 독서, 문학, 생활과 윤리 등 다양한 교과 영역에서 '비교를 통한 차이의 발견'과 '깨달음'이란 주제와 직간접으로 연관성이 있는 제시문을 읽고 그 요지와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텍스트 독해력, 2) 제시문에서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을 비교하고 종합하는 맥락 해석능력, 3) 제시문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는 비판적 능력, 4) 특정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 '차이'를 기술할 수 있는 분석력 그리고 5) 이러한 능력을 토대로 주어진 시간에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한 문장으로 구성하여 표현하는 논리적 글쓰기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출제지도와 논제 접근 방법

[문제 1]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1) 동일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제시문을 읽고 그 핵심 요지를 파악하는 독해력, 2) 제시문의 내적 요소들을 다양한 맥락에 비추어 해석함으로써 제시문의 논지를 밝히고 그 논지의 차이를 비교하고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해 내는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주어진 네 제시문을 꼼꼼하게 읽음으로써 화자가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의 비교를 통해 발견한 '차이점'과 이로 인해 '깨달은 것'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자신의 언어로 압축하여 단순 요약이 아닌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된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문제 2]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1) 제시문을 정확하게 읽고 그 핵심 요지를 파악하는 독해력, 2) 제시문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는 비판능력, 3) 제시된 두 개의 글을 활용하여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활용하는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먼저 제시문 (마)의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라)에 나타난 부탄 사람들의 '삶의 여유'를 글로 쓸 능력을 갖췄는가를 평가하려 한다. 더불어, 제시문 (바)와 (사)의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라)에 언급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를 기술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문제 3]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1) 오늘날 동네 편의점과 누리 소통망 속 가짜 뉴스가 급속하게 확산하게 된 이유가 각각 서비스 표준화와 이용자 맞춤형이라는 대조적인 전략에 있음을 주어진 제시문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완결된 글을 쓸 수 있는 능력, 2) 뉴 미디어 시대에 우리 사회가 생산적 소비자로서 가짜 뉴스의 다양한 양상에 대처할 수 있는 세 가지 매체 윤리를 주어진 제시문에서 찾아 이를 토대로 완결된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제시문 출전과 해설

- 제시문 (가): 신영복, 「새 출발점에 선 당신에게」, 한철우 외 7인, 『문학』, 비상교육, 2019, 276-277쪽.
- 제시문 (나): 오주석, 「미완성의 결자」, 민현식 외 11인, 『국어』, 좋은책신사고, 2018, 200-205쪽.
- 제시문 (다): 나희덕, 「반통의 물」, 박영민 외 7인, 『국어』, 비상교육, 2018, 122-124쪽.
- 제시문 (라): 김남희, 「왜 당신의 시간을 즐기지 않나요」, 정민 외 26인, 『국어』, 해냄에듀, 2018, 170-176쪽.
- 제시문 (마): 오은, 「이유 있는 여유」, 신유식 외 6인, 『국어』, 미래엔, 2018, 161-164쪽.
- 제시문 (바): 프랑수아 르로르, 「꾸뻬 씨의 행복 여행」, 한철우 외 6인, 『독서』, 비상교육, 2019, 24-26쪽.
- 제시문 (사): 「현대 직업 생활과 행복」, 변순용 외 10인, 『생활과 윤리』, 천재교과서, 2018, 86-87쪽.
에리히 프롬, 「소유냐 존재냐」, 민현식 외 11인, 『국어』, 좋은책신사고, 2018, 372-377쪽.
- 제시문 (아): 김찬호, 「편의점, 욕망을 검색하는 도시의 야경꾼」, 방민호 외 5인, 『독서』, 미래엔, 2019, 164-169쪽.
- 제시문 (자): 「블로터」 기획 취재팀, 「가짜 뉴스 - 뉴스의 얼굴을 한 흑색선전」, 이삼형 외 5인, 『독서』, 지학사, 2019, 126-130쪽.
- 제시문 (차): 「정보 사회에서의 매체 윤리」, 정창우 외 6인, 『생활과 윤리』, 미래엔, 2019, 128-130쪽.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문학』(비상교육, 2019)에 실린 신영복의 「새 출발점에 선 당신에게」를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글쓰이는 감옥에 갔을 때 만난 노인 목수가 집을 그리는 방식으로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 노인은 집을 짓는 순서대로 주춧돌부터 그림을 그렸는데, 글쓰이는 통상적으로 지붕부터 집을 그렸다고 반성했다. 글쓰이는 교실보다는 공장이, 종이보다 망치가, 이론보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현장의 경험과 실천적 삶의 의미를 강조한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국어』(좋은책신사고, 2018)에 실린 오주석의 「미완성의 걸작」을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국보 제240호로 지정된 윤두서의 「자화상」은 불후의 명작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글쓰이는 현재의 자화상과 옛 사진 속 자화상을 비교하여 상반신 윤곽선의 유무 여부, 인상과 분위기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다. 윤두서의 자화상은 미완성작임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의도와 작품 창작과정의 고뇌를 읽어 낼 수 있는 높은 예술성을 가진 명작이라고 평가했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국어』(비상교육, 2018)에 실린 나희덕의 「반통의 물」을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글쓰이는 텃밭을 일구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갖게 된 생각을 성찰적으로 제시한다. 몸 반쪽이 마비된 할아버지는 한통의 물을 뜨더라도 옮기는 과정에서 반 통의 물을 흘리고 만다. 글쓰이는 할아버지가 자신보다는 두배나 더 힘들어 일하고 있는 모습에서 이상한 평화 같은 것을 느낀다. 글쓰이는 자신과 할아버지가 수고로움에서는 차이가 있더라도, 채소를 돌보는 생명에 대한 진정성 있는 마음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국어』(해냄예듀, 2018)에 실린 「왜 당신의 시간을 즐기지 않나요」를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글쓰이가 부탄의 치몽이라는 마을 방문한 여행의 기록을 담고 있다. 글쓰이는 치몽 사람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여행객에게 베푸는 환대에 감동한다. 글쓰이는 치몽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욕심없고 여유로운데, 오히려 우리는 가진 것이 많은데도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바쁘고 조급하게 산다고 비교한다. 글쓰이는 경제적 풍요와는 상관없이 남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이 행복의 중요한 조건임을 깨닫게 된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국어』(미래엔, 2018) 교과서에 실린 오은의 「이유 있는 여유」를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글쓰이는 여유를 물질적 여유, 시간적 여유, 마음의 상태로서의 여유로 구분했다. 물질적 여유가 없으면 궁핍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조급하며,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했다. 글쓰이는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표정, 태도, 행동 등에서도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묻어난다고 했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독서』(비상교육, 2019) 교과서에 실린 프랑수아 롤로르의 「꾸삐 씨의 행복 여행」을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소설로, 행복을 알기 위해 떠난 여행에서 노승과 만나는 장면을 보여준다. 꾸삐 씨는 노승으로부터 매사에 너무 열심히만 하려고 하지 말고, 잠시 멈춘 상태에서 순간 자체에 집중하여야 근원적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는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천재교과서, 2018) 교과서에 실린 「현대 직업 생활과 행복」과 고등학교 『국어』(좋은책신사고, 2018) 교과서에 실린 에리히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를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글쓰이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잃을까봐 불안해하는 소유적 삶의 양식과 살아 있음에서 총만함으로 느끼는 존재적 삶의 양식을 구분한다. 글쓰이는 자본주의 사회가 소유지향성을 지니고 있기에, 주체적 삶을 여유롭게 향유하는 존재 양식의 삶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제시문 (아)는 고등학교 『독서』(미래엔, 2019) 교과서에 실린 김찬호의 「편의점, 욕망을 검색하는 도시의 야경꾼」을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글쓰이는 예전의 구멍가게가 마을 공동체 형성에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면, 편의점은 젊은 세대의 도시인 감각에 맞는 상업 공간으로 기능한다고 말한다. 편의점은 익명성과 규격화되고 표준화된 서비스 전략을 사용한다. 이러한 전략은 종업원이 효율적으로 소통하며 손님을 접대할 수 있게 하고, 고객으로서는 편안하게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했다.

제시문 (자)는 고등학교 『독서』(지학사, 2019) 교과서에 실린 「가짜 뉴스 - 뉴스의 얼굴을 한 흑색선전」을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정치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극적으로 가공된 거짓 정보인 가짜 뉴스의 확산을 다루고 있다. 이 글은 인터넷 검색 업체(포털)나 누리 소통망(SNS)에서 이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이 이뤄지면서, 특정 정보 편식이 이뤄져 가짜 뉴스 확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제시문 (차)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미래엔, 2019) 교과서에 실린 「정보 사회에서의 매체 윤리」를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현대인에게 1인 미디어 시대에 걸맞은 매체 윤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제시문에 나오는 매체 윤리는 알 권리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개인 정보는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것과 사회 질서와 공공복리를 위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매체 이해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시답안 및 채점기준

예시답안

[문제 1] (가)~(라)에는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이 서로 비교되는 다양한 모습이 나타난다.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화자가 비교를 통해 발견한 '차이점'과 이로 인해 '깨달은 것'을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가)~(라)에는 비교를 통해 차이를 발견하고 깨달음을 얻는 모습이 나타난다. (가)의 나는 목수가 집을 짓는 순서대로 주춧돌부터 집을 그리지만 자신은 지붕부터 집을 그리는 차이를 발견했다. 이를 통해 이론보다 현장 경험과 실천적 삶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나)의 화자는 현재의 자화상과 옛사진 속 그림을 비교해 상반신 윤곽선의 유무, 인상과 분위기의 상이함을 찾았다. 그래서 작가의 의도와 성찰의 과정이 남은 미완성작도 예술성이 높을 수 있음을 알았다. (다)의 나는 자신에 비해 할아버지가 두 배나 힘들게 일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로 인해 각자 불편을 감수하고 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고 소소하게라도 생명을 돌보는 일에 진정성을 가져야 함을 깨달았다. (라)의 화자는 부탄 사람들은 가난해도 욕심없고 여유롭게 살지만 우리는 많이 가져도 더 갖고자 조금하게 산다는 차이를 발견했다. 그 결과 행복의 가치를 재성찰하면서 나눔과 만족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인식에 도달했다. 따라서 화자는 그리는 순서, 그림의 상태, 수고로움, 삶의 방식에서 차이점을 찾고 이를 통해 실천, 예술성, 생명, 행복의 의미를 깨달았다. (570자)

[문제 2] 제시문 (라)에 나타난 부탄 사람들의 '삶의 여유'를 제시문 (마)의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고, 제시문 (라)에 언급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를 제시문 (바)와 (사)를 각각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마)에서 언급된 세 가지 여유는 맥락에서 (라)의 부탄 사람들이 처한 상황으로 보면, 이들은 가난한 삶을 살기에 물질적 여유가 없고, 몸을 바빠 움직여야만 모든 일상이 영위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도 부족해 보인다. 하지만 이들은 마음의 상태로서의 여유를 충분히 지니고 있기에 가난해도 삶을 즐기고, 낮은 이들에게도 친절을 베푸는 여유로운 삶을 산다. 따라서 이들의 삶의 여유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물질적, 시간적 여유보다 마음의 여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바)에서는 잠시 멈추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를 활용하여 (라)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바)의 노승처럼 지금의 순간 자체에 집중해 근원적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에서 언급한 존재 양식의 삶도 필요하다. (라)의 '우리'는 소유의 방식에 기반하기에 가진 것을 잃을까 걱정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유의 짐착에서 벗어나 주체적 삶을 여유롭게 향유하는 존재 양식의 삶을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568자)

[문제 3] (아)의 편의점 서비스 공급자와 제시문 (자)의 누리 소통망(SNS)의 뉴스 공급자가 이용자를 대하는 '전략의 차이'를 기술하고, 제시문 (자)의 가짜 뉴스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시문 (차)를 토대로 서술하시오.

[20점, 330-350자]

(아)에서 편의점 서비스 공급자는 이용자에게 관심을 두지 않음으로써 익명성을 보장하고, 규격화된 상호작용 지침을 토대로 응대하여 개인의 취향을 고려하기보다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반면 (자)에서 누리 소통망 뉴스 공급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개인 간 취향 차에 초점을 맞춰 뉴스를 이용자 맞춤형으로 선별 제공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한편 (차)에 따르면 (자)의 가짜 뉴스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개인 정보 보호를 통해 인격권을 보장하고,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구성원들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매체 이해력을 신장시킬 필요가 있다. (350자)

채점기준

[문제 1]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화자가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의 비교를 통해 발견한 ‘차이점’과 이로 인해 ‘깨달은 것’을 각각 찾아 정확하게 작성했는지 평가한다. (32점)

(가) 차이점: 목수가 집을 짓는 순서대로 주춧돌부터 집을 그리는 반면 자신은 지붕부터 집을 그린다는 차이를 발견함. (4점)

깨달은 것: 이론보다 현장의 경험과 실천적 삶이 중요함을 깨달음. (4점)

(나) 차이점: 현재의 자화상과 옛 사진 속 그림을 비교하여 상반신 윤곽선의 유무 여부, 인상과 분위기의 상이함을 찾음. (4점)

깨달은 것: 작가의 의도와 창작의 과정이 남은 미완성작도 예술성이 높을 수 있음을 깨달음. (4점)

(다) 차이점: 나는 자신에 비해 할아버지가 두 배나 힘들게 일한다는 차이점을 발견함. (4점)

깨달은 것: 각자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고 거창한 목적이 아니어도 생명을 돌보는 일에 진정성을 가져야 함을 깨달음. (4점)

(라) 차이점: 화자는 부탄 사람들은 가난해도 욕심없고 여유롭게 살지만 우리는 가진 게 많아도 더 갖고자 조금하게 산다는 차이를 발견함. (4점)

깨달은 것: 행복의 가치를 재성찰하면서 나눔과 만족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인식에 도달함. (4점)

2) 네 개의 제시문에서 화자가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의 비교를 통해 발견한 ‘차이점’과 이로 인해 ‘깨달은 것’을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서론/본론/결론)로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즉, 글을 시작하는 도입 부분과 글을 맺는 결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8점)

① 하나의 완성된 논리적인 글로 구성하라고 요구하므로, 답안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함. (3점)

② 서론에서 문제를 요약하고, 결론에서 각 제시문의 차이가 핵심적 표현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함. (5점)

[예시]

서론: 제시문 (가)~(라)에는 비교를 통해 차이점을 발견하고 깨달음을 얻는 모습이 나타난다.

결론: 따라서 화자는 그리는 순서, 그림의 상태, 수고로움, 삶의 방식에서 차이점을 찾고 이를 통해 실천, 예술성, 생명, 행복의 의미를 깨달았다.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1]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각 제시문에서 각각 차이점과 깨달은 것을 찾아 제시(32점)	4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25~32점
		3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17~24점
		2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9~16점
		1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4~8점
	② 논리적 구성(3점) 및 결론 제시(5점)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	1~3점
		본론의 내용을 결론으로 잘 도출하여 요약했는지 여부(참신성도 고려)	2~5점

[문제 2]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 제시문 (라)에 나타난 부탄 사람들의 '삶의 여유'를 제시문 (마)를 토대로 평가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20점)

- ① 제시문 (라)에 나타난 부탄 사람들의 삶의 태도 혹은 삶에서 나타나는 여유를 설명한다. (5점)
- ② 제시문 (마)에서 나타난 물질적 여유, 시간적 여유, 마음의 여유의 개념을 토대로 (라)의 부탄 사람들의 삶의 여유를 각각 평가한다. (10점)
- ③ 제시문 (라)의 부탄 사람들은 물질적,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 그럼에도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 친절하며 자신의 삶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을 기술한다. (5점)

2) 제시문 (라)의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를 제시문 (바), (사)를 각각 고려하여 서술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20점)

- ① 제시문 (바)에서는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마음을 내려놓은 채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기술한다. (5점)
- ② 제시문 (사)에서는 물질을 소유하는 삶이 아닌 존재 자체를 추구해야 함을 기술한다. (5점)
- ③ 제시문 (라)의 '우리'에게는 (바)의 노승처럼 지금의 순간 자체에 집중해 근원적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여유있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기술한다. 또한 (사)에 나타난 것처럼 소유의 집착에서 벗어나 주체적 삶을 살 수 있는 존재 양식의 삶의 자세가 필요함을 기술한다. (10점)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2]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마)를 근거로 (라)를 평가했는지를 평가(20점)	(라)에 나타난 부탄 사람들의 '삶의 여유'를 파악한 경우	5점
		(라)에 나타난 부탄 사람들의 '삶의 여유'를 (마)에 나타난 여유 개념 3가지로 각각 판단한 경우	5~10점
		(라)의 부탄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가 있기에 다른 두 가지 여유(물질적, 시간적 여유)가 없음에도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영위한다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	5점
	② (바), (사)를 통해 (라)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를 도출(20점)	(바)에서는 잠시 멈추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경우	5점
		(사)에서는 물질을 소유하는 삶이 아닌 존재 자체를 추구해야 함을 기술한 경우	5점
		(라)의 '우리'에게 (바)의 노승처럼 지금의 순간 자체에 집중해 근원적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여유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기술하고 (사)에 나타난 것처럼 소유의 집착에서 벗어나 주체적 삶을 살 수 있는 존재 양식의 삶의 자세가 필요함을 기술한 경우	5~10점

[문제 3] 2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330~35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20점)

1) 제시문 (아)에 나타난 편의점 서비스 공급자와 제시문 (자)에 나타난 누리 소통망 뉴스 공급자가 이용자를 대하는 전략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하였는지 평가한다. (14점)

- ① 편의점 서비스 공급자는 의도적 무관심을 통해 이용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규격화된 고객과의 상호지침을 토대로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제시문 (아)의 논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여 기술한 경우. (7점)
- ② 누리 소통망 뉴스 공급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개개인의 취향 차를 고려하는 이용자 맞춤형 규칙을 적용해 뉴스를 선별 제공하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제시문 (자)의 논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여 기술한 경우. (7점)

2) 제시문 (자)의 가짜 뉴스에 우리 사회가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제시문 (차)에서 찾아 명확하게 서술하였는지 평가한다. (6점)

- ① 우리 사회가 가짜 뉴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 보호를 통해 인격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요약 정리된 경우. (2점)
- ② 우리 사회가 가짜 뉴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요약 정리된 경우. (2점)
- ③ 우리 사회가 가짜 뉴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체 이해력을 신장시킬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요약 정리된 경우. (2점)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3]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20점)	① (아)의 편의점 서비스 공급자와 (자)의 누리 소통망 뉴스 공급자가 이용자를 대하는 전략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14점)	편의점 서비스 공급자가 익명성의 보장과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전략을 사용한다는 제시문 (아)의 논지 제시	4~7점
		누리 소통망 뉴스 공급자가 이용자 맞춤형 규칙을 통해 뉴스의 선별 제공 전략을 사용한다는 (자)의 논지를 제시	11~14점
	② (자)의 가짜 뉴스에 우리 사회가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차)에서 찾아 명확하게 서술(6점)	개인 정보 보호를 통해 인격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 요약 정리	1~2점
		개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내용 요약 정리	3~4점
		정보를 비판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체 이해력이 신장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 요약 정리	5~6점

2. 경영경제계열

문제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홍건적은 집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가축을 잡아먹었다. 백성들은 이리저리 달아나 숨은 채 각자 자기 살기를 도모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생도 가족들을 데리고 외진 산골로 숨었는데 도적 한 명이 칼을 빼 들고 그들의 뒤를 쫓아왔다. 이생은 달아나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최 씨는 도적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도적이 자신을 겁탈하려 하자 최 씨는 크게 꾸짖으며 말하였다.

“나를 죽여 삼켜 버려라. 차라리 죽어 승냥이와 이리의 배 속에 들어갈지언정 어찌 개돼지 같은 놈의 짝이 되겠느냐.”

도적은 노하여 최 씨를 죽였다. 이생은 거친 들판에 숨어서 겨우 목숨을 보전하다가 얼마 후 도적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사시던 옛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집은 이미 전쟁 통에 불타 버린 후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 씨의 집으로 가 보았더니 행랑채만 덩그러니 남아 황량한 가운데 쥐들이 짹짹대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그런데 회랑 끝에서 웬 발소리가 들려왔다. 발소리가 이생 앞에 이르렀을 때 보니 바로 최 씨였다.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너무도 사랑하는 나머지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물었다.

“당신은 어디로 피란하여 목숨을 부지하였소?”

최 씨는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뒤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최 씨와 함께 살았다. 그는 항상 최 씨와 더불어 시를 지어 주고받으며 금실 좋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갔다.

어느 날 저녁 최 씨가 이생에게 말했다.

“세상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지기만 하네요.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갑자기 슬픈 이별이 닥쳐오니 말이예요.”

“무슨 일로 그러시오?”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답니다. 하느님께서 저와 당신의 연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저희가 아무런 죄악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아시고 이 몸을 환생시켜 당신과 지내며 잠시 시름을 잊게 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인간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산 사람을 미혹시킬 수는 없답니다.”

최 씨는 시녀를 시켜 술을 올리게 하고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생에게 술을 권하였다.

창과 방패가 눈에 가득한 싸움터
옥이 부서지고 꽃도 흩날리고 원앙도 짝을 잃네.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을 그 누가 묻어 주랴.
피에 젖어 떠도는 영혼 하소연할 곳 없어라.
무산 선녀*가 고당*에 한 번 내려온 후
깨졌던 거울이 다시 갈라지니 마음만 쓰러라.
이제 한번 이별하면 둘 사이 아득하니
하늘과 인간 사이에 소식마저 막히리라.

*무산 선녀: 중국 전설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선녀.

*고당: 중국 동정호라는 호수에 있는 높은 누각.

(나)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학원에서 피아노를 배우고, 만드집을 하는 엄마는 ‘나에게 피아노를 사 준다. 고3 겨울방학에 ‘나의 집은 아빠가 선 빛 보증 때문에 망하고, ‘나’는 그즈음 서울권 대학의 컴퓨터학과에 합격한다. ‘나’는 피아노와 함께 서울에 있는 언니의 반지하방에 도착하고, 그 모습을 못마땅해하는 집주인에게 피아노는 절대 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다. 언니는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일하며 새벽에는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나’는 반지하에서 디그자가 잘 먹지 않는 컴퓨터로 학원 교재나 시험지를 타이핑하는 일을 밤늦게까지 하며 등록금을 모은다.

방 안은 눅눅했다. 벽지 위론 하나둘 곰팡이 꽃이 피었다. 피아노 뒤에 벽은 상태가 더 심했다. 건반 하나라도 누르면 꼭 그 음의 파동만큼 날아올라, 곳곳에 포자를 훑날릴 것 같은 모양이었다. 나는 피아노가 썩을까 봐 걱정이었다. 몇 번 마른걸레로 닦아 봤지만 소용없었다. 우선 달력 몇 장을 찢어 피아노 뒷면에 덧대 놓는 수밖에 없었다. 문득 피아노를 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사 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일단 그런 마음이 들자,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다. 한 음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소리는 금방 사라져 아무도 모를 것이다. (중략)

저녁부터 폭우가 내렸다. 현관에서부터 물이 새고 있었다. 이물질이 잔뜩 섞인 새까만 빗물이었다. 그것은 벽지를 더럽히며 창틀 아래로 흘러내렸다. 벽면은 검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누군가의 얼굴 같았다. 빗물은 어느새 무릎까지 차 있었다. 나는 피아노가 물에 잠겨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순간 쇼바를 잔뜩 올린 오토바이 한 대가 부르릉— 가슴을 긁고 가는 기분이 들었다. 오토바이가 일으키는 흙먼지 사이로 수천 개의 만두가 공기 방울처럼 떠올랐다 사라졌다. 언니의 영어 교재도, 컴퓨터와 활자 디그도, 우리의 여름도 모두 하늘 위로 떠올랐다 툭툭 터져 버렸다. 나는 피아노 뚜껑을 열었다. 건반 위에 가만 손가락을 얹어 보았다. 나는 나도 모르게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도—” 도는 긴소리를 내며 방 안을 날아다녔다. 나는 레를 짚었다.

“레—” 나는 편안하게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하나 둘 손끝에서 돌아나는 음표들이 눅눅했다. “솔 미 도레 미파솔라솔……” 물에 잠긴 페달에 몽텅몽텅 공기 방울이 새어 나왔다.

(다)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란 외딴 동리였다. 넉넉지는 못할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이 뒤바뀌자 그 땅은 전부 동양 척식 회사의 소유에 들어가고 말았다. 그 후로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소리는 중이 염불하듯 그들의 입길에서 오르내리게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구 년 전 그가 열일곱 살 되던 해 봄에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를 갔었다. 조금 좋은 땅은 먼저 간 이가 모조리 차지를 하였고 황무지는 비록 많다 하나 그곳 당도하던 날부터 아침거리 저녁거리 걱정이라, 무슨 행세로 적어도 일 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먹고 입어 가며 거친 땅을 풀 수가 있으랴. 이태 동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버티어 갈 제 그의 아버지는 우연히 병을 얻어 타국의 외로운 혼이 되고 말았다. 열아홉 살밖에 안 된 그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악으로 악으로 모진 목숨을 이어 가던 중, 사 년이 못 되어 영양 부족 한 몸이 심한 노동에 지친 탓으로 그의 어머니 또한 죽고 말았다. 그 후 그는 부모 잃은 땅에 오래 머물기 싫었다. 신의 주로 안동현으로 품을 팔다가 일본으로 또 별이를 찾아가게 되었다. 구주 탄광에 있어도 보고 대판 철공장에도 몸을 담가 보았다. 별이는 조금 나았으나 외롭고 젊은 몸은 자연히 방탕해졌다. 화도 나고 고국산천이 그리기도 하여서 훌쩍 뛰어나왔다가 오래간만에 고향을 둘러보고 별이를 구할 겸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라 한다.

“고향에 가시니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가워하는 사람이 다 뭐시오? 고향이 통 없어졌더마.”

“그래, 이번 길에 고향 사람은 하나도 못 만났습니까?”

“하나 만났구마, 단지 하나. 나와 혼인 말이 있던 여자구마.”

그 여자는 자기보다 나이 두 살 위였는데 한 이웃에 사는 탓으로 같이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며 자라났었다. 그가 열네댓 살 적부터 그들 부모 사이에 혼인 말이 있었고 그도 어린 마음에 매우 탐탁하게 생각하였었다. 그런데 그 처녀가 열일곱 살 된 겨울에 별안간 간 곳을 모르게 되었다. 알고 보니 그 아비 되는 자가 이십 원을 받고 대구 유곽에 팔아먹은 것이었다. 이번에는 빈터만 남은 고향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읍내에서 그 아내 될 뻔한 덕과 마주치게 되었다. 처녀는 어떤 일본 사람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었다. 이십 원 몸값을 십 년을 두고 갚았건만 그래도 주인에게 빛이 육십 원이나 남았었는데 몸에 뭍쓸 병이 들고 나이 늙어져서 산송장이 되니까 주인 되는 자가 특별히 빛을 탕감해 주고 작년 가을에야 놓아준 것이었다.

“자, 우리 술이나 마저 먹읍시다.”

그는 취흥에 겨워서 우리가 어릴 때 멋모르고 부르던 노래를 읊조리었다.

벗섬이나 나는 전토는 신작로가 되고요—

말마디나 하는 친구는 감옥소로 가고요—

담뱃대나 떠는 노인은 공동묘지 가고요—

인물이나 좋은 계집은 유곽으로 가고요—

- (라) 태수가 주머니에서 엠프스리(MP3)를 꺼내 켜다. 태수가 건네주는 헤드폰을 받아서 머리에 쓰며 나는 버스 안을 훑끔 살펴본다. 그때 갑자기 분수대에서 떨어지는 시원한 샘물 방울처럼 또렷하고 생기에 찬 목소리가 내 귓속으로 빠르게 쏟아져 들어온다.

언제부턴가 거울을 쳐다보는 습관이 생겼지

이젠 그게 너무도 익숙하니 꽤 멋진 표정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지을 수 있어

하지만 내 주위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결코 편하지 않아

그들이 내게 강요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 남자스러움 말야

난 자꾸 그럴수록 마냥 불쾌한 듯 찡그리다가 나중엔 그냥 웃지

그 목소리는 천둥처럼 나를 전율시킨다.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 이젠, 내 이야기잖아! 한순간 온몸이 굳었으며, 마치 누군가의 손이 나타나서 뻗뻗해진 내 몸을 뉘아채 잡아끌기라도 한 듯이, 그대로 나는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간다.

무엇다워야 한다는 가르침에 난 또 놀라

우린 아마 이렇게 멍들어 가는지도 몰라

습관적으로 모든 일들에 익숙한 척 가슴을 퍼지만

그 속에서 굶은 상처는 아주 천천히 우리들을 바보로 만들어

우리는 진짜보다 더 강한 척해야 하므로

다섯 살 때였던가, 내가 여자 옷을 입고 싶다고 말한 적 있었다. 엄마는 레이스가 달린 원피스를 사 와서 내게 입히고, 뭘 하든 기왕이면 예뻐야 한다며 머리핀도 꽂아 주었다. 나는 치맛자락을 날리며 들뜬 표정으로 놀이터로 뛰쳐나갔다. 이웃 아줌마들에게 놀림은 당했던 것 같다. 고추가 떨어진다나 뭐라나.

유치원 다닐 무렵 내 주변에는 고의로 자전거를 넘어뜨리거나 놀이터 흙을 뿌리면서 시비를 거는 애들이 늘

있었다. 체격이 작아서 만만해 보이는 탓도 있었겠지. 나보다 어린 애들에게까지 곧잘 맞고 들어오는 나를 엄마는 꽤 씩씩하게 여겼다. 솔직히 말해봐. 이기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말야? 응. 곰곰이 생각해 보면 힘이 달려서라고는 할 수 없다. 시도해 본 적도 없으니까 모르는 일이다. 엄마가 답답해하면 나는 늘 싸우는 게 싫다고 대답했다. 진심이었다.

내 친구들은 나에게 박력을 요구하고 친밀감의 표시라며 인사로 욕을 하고
그 모습을 보는 나도 어느새 머릿속에 머쓱해지는 느낌만이 머물더라도

육교 아래에서 돈을 뜯겼을 때는 정말 무서웠다. 태어나서 제일 많이 맞은 거 아닐까. 내 주머니에는 이천 원 밖에 들어 있지 않았다. 그 정도의 돈을 뺏기 위해 자기보다 약한 대상을 붙잡아서 마구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치사함, 그리고 그런 일이 예사로 벌어지는 세상이라니. 그런데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겨우 엄마에게 화를 내는 것뿐이었다. 정당하게 맞서지 못하고 만만한 데에 화풀이를 하는 나는 또 얼마나 비겁한가. 한 곡의 노래를 듣는 짧은 순간 이 모든 일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노래가 끝났다. 나의 가슴은 터질 듯 빠르게 뛰었고 아랫배에는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다. 어쩐지 눈물이 날 것만 같아 창밖으로 고개를 돌린 나는 그제야 정류장을 지나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아이가 태어난 순간 알아볼 수 있다고 상상해 보자. 관습적으로 왼손잡이 아기의 부모들은 아이에게 분홍색 옷을 입히고, 분홍색 담요를 덮이고, 아기방을 분홍빛으로 장식한다. 왼손잡이 아기의 젖병, 턱반이, 고무젖꼭지 그리고 큰 다음에는 컵, 접시, 도시락, 책가방까지 주로 분홍색이나 보라색이며 나비, 꽃, 요정으로 장식되어 있다. 반면에 오른손잡이 아기들은 분홍색 옷을 입을 일이 없다. 분홍색 장신구나 장난감을 가질 일도 없다. 오른손잡이 아기들에게는 파란색이 인기 있는 색상이지만, 아이들이 크면서 분홍색이나 보라색을 제외하고는 모든 색을 받아들일 수 있다. 오른손잡이 아이들의 옷이나 다른 물건들에는 보통 자동차, 스포츠 장비, 우주 로켓이 그려져 있고, 나비, 꽃, 요정은 결코 그려져 있지 않다.

한 사회에서 아주 어린 아이들조차 금세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라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배우고, 옷과 머리 모양과 같은 표시를 사용해 그 두 부류의 아이들을 구분하는 데 금방 능숙해질 것이다. 또한 이런 구분에 대해 너무나 호들갑을 떨고 강조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나에 따라 무언가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 아이들은 특정 손을 잘 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 하고, 어느 한 손을 잘 쓰는 아이와 다른 손을 잘 쓰는 아이를 구분 짓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어 하게 될 것이다.

(바) 주어진 자료들을 대표하는 값으로 가장 유명하고 많이 활용되는 것이 평균이다. 한 집단을 평가할 때 또는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 평균은 유용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평균이 대상을 잘 반영하는 대푯값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체 자료의 다양한 변수와 양상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을 대푯값으로 삼으면 사실을 잘못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평균만으로 선부르게 어떤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여러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주방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의 평균 키에 맞추어 일률적으로 만들어지는 개수대는 모든 대상에게 평균에 따라 행동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포드주의(Fordism)식의 소품종 대량 생산의 시대에는 평균이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았고 많은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현대에는 그런 평균의 개념이 소비자들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일

반 가구당 평균 가족 수는 3.6명이라고 한다. 이 평균값에 맞추어 건축업자들은 3인 또는 4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을 짓는다. 하지만 평균 가족 수에서 벗어나는 가족도 상당수에 달한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3인이거나 4인 가족이 전체의 45퍼센트에 불과하며 1인이나 2인 가족이 35퍼센트, 그리고 5인 이상인 가족이 20퍼센트에 달한다고 한다.

평균은 편리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대푯값으로 잘못 사용되면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대 사회는 점점 더 많은 변수들에 의해 다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사) 세상을 살면서 한 권의 책 때문에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경험을 하는 이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나는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면서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다. 이 책은 그야말로 유전자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있었다. 책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의 디엔에이(DNA)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러 생명체의 몸을 빌려 끊임없이 생존해 왔다. 그리고 스스로 살아 숨 쉰다고 생각했던 우리 역시 우리 몸속의 디엔에이를 보존하고, 이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대상일 뿐이다.

나는 책을 읽은 그날 그 새벽에 바라본 세상의 모습,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그때부터 내 삶은 그 전과 후로 완벽하게 갈렸다. 유전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다시 분석하면 모든 것이 명쾌하게 설명되었다. 그런데 그 황홀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좌절감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읽었을 때는 답을 얻은 기분에 세상이 달라 보였는데, 그 단계가 지나니 시간이 지날수록 만사가 시시하게 여겨졌다. ‘그래. 무엇 때문에 난 그렇게 애를 썼나? 모든 것이 유전자 때문인데, 어차피 우리야 유전자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존재일 뿐인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모든 것에서 맥이 풀렸다.

하지만 다행히 방향이 길지는 않았고, 재해석을 통해 세상의 의미를 정리했다. 인간 행동의 모든 근원이 유전자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를 더욱 명료하게 해 주었으며, 동시에 인간이 단순히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 수동적인 기계만이 아님을 깨닫게 했다. 인간은 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의식은 자유 의지의 형태로 나타나 인간이 유전자의 일방적인 지시를 극복해 갈 수 있게 한다. 모든 생명체 중에 인간만이 유전자에 대항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된 순간에는 인간에 대한 또 다른 경외감과 기대를 갖게 되었다. 또한 인간은 자유 의지뿐 아니라 문화의 힘을 통해서도 삶을 더욱 발전하도록 이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온 힘을 다해 모든 상황을 즐기며 살아가면 되는 거야.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보자.’

(아) 나의 두 손등과 손가락들에는 세 종류의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다. 시골에서 광주로 중학교 진학을 나오면서부터 나에게서는 한동안 그 흉터들이 큰 부끄러움거리가 되었다. 도회지 아이들의 희고 깨끗하고 부드러운 손에 비해 일로 거칠어지고 흉터까지 남자한, 그 남루하고 못생긴 내 손끝이라니. 그러나 그 후 세월이 흘러 직장 일을 다니는 청년기가 되었을 때 그 흉터들과 불품없는 손끝이 거꾸로 아름답고 멋있는 사랑과 은근한 자랑거리로 변해 갔다.

“아무개 씨도 무척 어려운 시절을 힘차게 살아 냈구먼. 나는 그 흉터들이 어떻게 생긴 것인 줄을 알지.” 직장의 한 나이 든 선배님이 어떤 자리에서 내 손등의 흉터를 보고 그의 소중한 마음속 비밀을 건네주듯 자신의 손을 내게 가만히 내밀어 보였을 때, 그리고 그 손등에 나보다도 더 많은 상처 자국들이 수놓여 있는 것을 보았을 때부터였다.

그렇다. 그 흉터와, 흉터 많은 손끝은 내 어려웠던 어린 시절의 모습이요, 그것을 힘들게 참고 이겨 낸 땀뻘

고 자랑스러운 내 삶의 한 기록일 수 있었다. 그 나이 든 선배님의 경우처럼, 우리 누구나가 눈에 보이게든 안 보이게든 삶의 쓰라린 상처들을 겪어 가며 그 흉터를 지니고 살아가게 마련이요, 어떤 뜻에선 그 상처의 흔적 이야말로 우리 삶의 매우 단단한 마디요 숨은 값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자기 흉터엔 겸손한 긍지를, 남의 흉터엔 위로와 경의를, 그리고 흉터 많은 우리 삶엔 사랑의 찬가를!

[문제 1] (가)~(라)에는 다양한 음악적 행위를 하는 인물이 등장한다.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등장인물의 삶 전반에 드러난 ‘난관’과 각 제시문에 나타난 음악의 ‘역할’을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라)에 나타나는 ‘남자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을 제시문 (마)와 (바)의 내용을 각각 고려하여 비판하고, 제시문 (라)의 등장인물 ‘나’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 제시문 (사)와 (아)를 각각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 다음 상황에 기초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한 음악 평론가는 새롭게 발표된 노래 한 곡을 듣고,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면 작곡가 A가 작곡한 노래라고 판정한다. 새롭게 발표된 이 노래는 작곡가 A 아니면 작곡가 B가 작곡했고, 두 기준은 서로 독립적으로 적용된다고 가정한다.

- 기준 1: 새로운 노래의 마지막 2개 소절 중 1개 소절 이상이 예전에 A가 작곡했던 노래의 소절과 유사하다.
- 기준 2: 새로운 노래의 후렴구 길이가 44초 이상 58초 이하이다.

각 기준에 대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 가정 1: 음악 평론가가 A가 작곡한 노래의 1개 소절에 대해 예전에 A가 작곡했던 노래의 1개 소절과 유사하다고 판단할 확률은 α 이다. 그리고 B가 작곡한 노래의 1개 소절에 대해 예전에 A가 작곡했던 노래의 1개 소절과 유사하다고 판단할 확률은 0.2이다.
- 가정 2: A가 작곡한 노래의 후렴구 길이는 정규분포 $N(50, 4^2)$, B가 작곡한 노래의 후렴구 길이는

정규분포 $N\left(58, \left(\frac{14}{3}\right)^2\right)$ 을 따른다.

[문제 3] 새로 발표된 노래가 실제 A가 작곡한 노래인 경우 음악 평론가가 이 노래를 A가 작곡한 노래라고 판정할 확률은 p 이고, 실제 B가 작곡한 노래인 경우 이 노래를 A가 작곡한 노래라고 판정할 확률은 q 라고 하자. 이때 p 가 q 의 $\frac{16}{5}$ 배 이상이 될 α 의 최솟값을 오른쪽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20점, 원고지 작성법을 준수할 필요 없음]

z	$P(0 \leq Z \leq z)$
0.5	0.19
1.0	0.34
1.5	0.43
2.0	0.47
2.5	0.49
3.0	0.50

평가목표

경영경제계열 논술 시험은 고교 교육 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모두 갖춘 통합형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수험생들의 추론적·논리적 사고력에 기초한 종합적 사고력과 자신의 주장을 정확한 언어에 담아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2024학년도 논술에서 사용된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글에서 선별하였고, 논술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다양한 각도에서 독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교육부의 '고등학교 핵심 성취기준'에 부합되도록 출제하였다. 2024학년도 경영경제계열 논술의 핵심 키워드는 '음악'으로, 음악적 행위는 1번 문항의 경우 '삶의 난관'에, 2번 문항의 경우 '남자다움'에 연관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 국어,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등 다양한 교과 영역에서 삶의 난관 및 음악의 주제와 직간접으로 연관성이 있는 제시문을 읽고 그 요지와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텍스트 독해력, 2) 각 제시문의 인물이 처한 삶의 난관을 주어진 제시문에서 도출하여 이를 드러내거나 함축하는 음악의 모티프에 비추어 분석, 요약, 종합하는 맥락적 사고력, 3) 삶의 난관을 드러내거나 함축하는 음악의 모티프에 비추어 이해하고, '남자다움'의 고정관념을 여타 제시문에 비추어 비판하는 유추적 사고력, 4) 이러한 능력을 토대로 주어진 시간에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한 문장으로 구성하여 표현하는 논리적 글쓰기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출제의도와 논제 접근 방법

[문제 1]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1) 동일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제시문을 읽고 그 핵심 요지를 파악하는 독해력, 2) 제시문의 내적 요소들을 다양한 맥락에 비추어 해석함으로써 제시문의 논지를 밝히고 그 논지의 차이를 비교하고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해 내는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주어진 네 제시문을 꼼꼼하게 읽음으로써 등장인물의 삶 전반에 드러난 난관과 작품 속 음악의 역할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자신의 언어로 압축하여 단순 요약이 아닌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된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문제 2]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1) 제시문을 정확하게 읽고 그 핵심 요지를 파악하는 독해력, 2) 특정 글의 논지에 근거하여 다른 글에서 문제점을 도출하는 비판적 사고력, 3) 서로 보완적인 관점들을 활용하여 특정한 목적을 위해 취해야 할 태도를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제시문 (마)와 (바)의 논리를 명확하게 분석하여, 이를 통해 제시문 (라)의 고정관념에 대해 비판한 뒤, 제시문 (사)와 (아)의 요지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라)의 등장인물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 추론해야 한다.

[문제 3] 일상 생활에서의 수많은 복잡한 상황들을 더 쉽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확률적 문제로 계량화하는 작업은 아주 중요하다. 특히, 상황에 따른 확률변수와 확률분포를 이해하는 과정은 확률적 상황 및 성질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본 문제에서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성질을 이용하여 확률을 계산하고, 사건의 독립시행 조건을 이용하여 두 상황을 비교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본 문제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며 난이도는 '중, 하' 정도로 볼 수 있다.

제시문 출전과 해설

- 제시문 (가): 김시습, 『이생규장전』, 방민호 외 5인, 『문학』, 미래엔, 2018, 59-66쪽.
- 제시문 (나): 김애란, 『도도한 생활』, 김창원 외 11인, 『문학』, 동아출판, 2018, 256-264쪽.
- 제시문 (다): 현진건, 『고향』, 최원식 외 13인, 『문학』, 창비, 2018, 20-29쪽.
- 제시문 (라): 은희경, 『소년을 위로해 줘』, 조정래 외 26인, 『문학』, 해냄에듀, 2018, 62-71쪽.
- 제시문 (마): 코딜리아 파인, 『분홍과 파랑 사이』, 고희진 외 5인, 『독서』, 동아출판, 2018, 28-31쪽.
- 제시문 (바): 최재호,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다』, 서혁 외 6인, 『독서』, 좋은책신사고, 2018, 136-142쪽.
- 제시문 (사): 최재천, 『그 책이 나는 흔들어 놓았어!』, 한철우 외 6인, 『독서』, 비상, 2018, 11-19쪽.
- 제시문 (아): 이청준, 『아름다운 흉터』, 박영민 외 5인, 『화법과 작문』, 2018, 비상, 18-19쪽.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문학』(미래엔, 2018)에 실린 김시습의 글 「이생규장전」을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에서는 삶의 난관을 찾아내고 음악의 역할을 유추하는 데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원문의 내용을 유지하는 선에서 작품의 일부분을 수정, 편집하였다. 「이생규장전」은 『금오신화』에 수록된 다섯 번째 작품으로, 비현실적인 사건이 전개되는 환상적 세계를 다룬다. 이 제시문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헤어져 생사가 엇갈린 이생과 최씨가 재회하여 못다 한 사랑을 나누고 헤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제시문 속 최씨가 부르는 노래는 두 남자가 삶과 죽음의 경계를 극복할 수 없기에 이별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현실을 애절하게 그려내고 있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문학』(동아출판, 2018)에 실린 김애란의 「도도한 생활」을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에서는 삶의 난관을 찾아내고 음악의 역할을 유추하는 데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원문의 내용을 유지하는 선에서 작품의 일부분을 수정, 편집하였다. 「도도한 생활」은 동시대 젊은이들의 공핍하고 곤궁한 삶을 형상화한 소설로,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에 비추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되짚어볼 기회를 제공한다. 이 제시문에서 주인공 '나'는 가난으로 인해 피아노 연주가 금지된 반지하방에 살고 있다. 느닷없는 폭우로 인해 방이 침수되자 '나'는 자신이 아끼는 피아노가 망가질까 노심초사한다. 제시문 끝에서 '나'가 연주하는 피아노 음은 '나'의 억압된 욕망을 상징하는 동시에 끝까지 지켜내고 싶은 자존감을 확인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문학』(창비, 2018)에 실린 현진건의 「고향」을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에서는 삶의 난관을 찾아내고 음악의 역할을 유추하는 데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원문의 내용을 유지하는 선에서 작품의 일부분을 수정, 편집하였다. 「고향」은 서술자인 '내'가 주인공의 '그'의 사연을 들려주는 액자식 구성의 소설로, 일제 강점기에 황폐화된 조선의 시대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제시문에서 '그'는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고 마음 둘 곳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다 그리워하던 고향에 되돌아 가지만, 피폐한 현실과 마주하고 한탄한다. 제시문 말미에서 '그'가 부르는 노래는 처참한 조국의 현실을 직설적으로 묘사하는 동시에 등장인물의 울분과 비애를 자조적으로 담고 있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문학』(해냄에듀, 2018)에 실린 은희경의 「소년을 위로해 줘」를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에서는 삶의 난관을 찾아내고 음악의 역할을 유추하는 데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원문의 내용을 유지하는 선에서 작품의 일부분을 수정, 편집하였다. 「소년을 위로해 줘」는 힙합음악을 소재로 하여 인터넷에 연재된 소설로, 한 소년이 겪는 내적 갈등과 성장의 과정을 이야기한다. 제시문의 주인공 '나'는 남자다움에 대한 편견 어린 시선과 폭력적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데에 자괴감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우연히 듣게 된 노래를 계기로 기존의 틀과 고정관념에 자기를 맞추는 필요가 없음을 깨닫는다. 여기서 음악은 자기 억압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독서』(동아출판, 2018) 교과서에 실린 코딜리아 파인의 「분홍과 파랑 사이」를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어린아이의 성별에 따른 색상 코드와 관련한 글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관습을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의 설정을 통해 설명한다. 제시문에서 글쓴이는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라는 신체적 차이가 특정 양육 방식 및 과정을 거친다면 여성과 남성에 대한 사회적 통념의 기준이 될 수도 있음을 설명한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독서』(좋은책신사고, 2018) 교과서에 실린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다」를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사회과학 지문으로, 평균값을 대푯값으로 여기는 것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논지의 글이다. 글쓴이는 평균이 편리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대상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평균값을 사용하면, 사실을 부정확하게 전달하거나 사실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수 있기에 이를 경계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독서』(비상, 2018) 교과서에 실린 최재천의 「그 책이 나를 흔들어 놓았어」를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과학자가 쓴 인문학 지문으로, 독서의 가치와 방향성에 대해 개인적 소회와 의견을 서술한 글이다. 글쓴이는 자기 삶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책에 대해 소개하면서 그 책이 본인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들려준다.

제시문 (아)는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비상, 2018) 교과서에 실린 이청준의 「아름다운 흉터」를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자아의 발견과 성장의 계기에 대해 쓴 수필이다. 글쓴이는 본인 흉터에 대한 생각이 변화한 계기를 들려주면서 자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삶의 흉터에 대한 위로와 응원을 전한다.

[문제 3] 수리논술 문제에 사용된 지문은 다음 교과서에 나오는 주요 개념들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 고성은 외, 『확률과 통계』, II-2-2 사건의 독립과 종속, 좋은책신사고, 2020, 63-67쪽.
- 홍성복 외, 『확률과 통계』, II-2-2 사건의 독립과 종속, 지학사, 2021, 67-71쪽.
- 권오남 외, 『확률과 통계』, II-2-2 사건의 독립과 종속, 교학사, 2023, 67-70쪽.
- 고성은 외, 『확률과 통계』, III-1-3 이항분포, 좋은책신사고, 2020, 91-95쪽.
- 홍성복 외, 『확률과 통계』, III-1-2 이항분포, 지학사, 2021, 92-97쪽.
- 권오남 외, 『확률과 통계』, III-1-3 이항분포, 교학사, 2023, 96-101쪽.
- 고성은 외, 『확률과 통계』, III-1-4 정규분포, 좋은책신사고, 2020, 97-103쪽.
- 홍성복 외, 『확률과 통계』, III-1-4 정규분포, 지학사, 2021, 101-108쪽.
- 권오남 외, 『확률과 통계』, III-1-4 정규분포, 교학사, 2023, 102-108쪽.

예시답안 및 채점기준

예시답안

[문제 1] 제시문 (가)~(라)에는 다양한 음악적 행위를 하는 인물이 등장한다.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등장인물의 삶 전반에 드러난 ‘난관’과 각 제시문에 나타난 음악의 ‘역할’을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각 제시문에는 삶의 난관 및 음악의 역할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의 최씨는 난리 중에 죽임을 당한 후 이생과 재회하나 결국 헤어져야만 하는 운명에 놓여 있다. 이때 음악은 최씨의 억울한 삶에 대한 한탄과 기약 없는 이별에 대한 애절함을 고조시킨다. (나)의 ‘나’는 가난 때문에 반지하에 살면서 욕망이 억눌린 채 피아노도 마음대로 치지 못하는 처지이다. 이때 음악은 좋아하지만 온전히 누릴 수 없는 대상이자 절박한 상황에서 자존감을 표현하는 도구이다. (다)의 ‘그’는 고향도 부모도 흠모하던 여성도 잃은 후 어디에도 마음 두지 못한 채 떠돌아다니는 신세이다. 여기서 음악은 당대의 처참한 사회상을 묘사하는 동시에 등장인물의 설움과 울분을 담고 있다. (라)의 ‘나’는 남자다움을 강요하는 주변 시선과 폭력적 상황에 노출되었으나 이에 대응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서 음악은 사회적 통념을 비판하고 등장인물의 자기 긍정 및 해방의 통로로 작용한다. 이처럼 등장인물은 운명, 가난, 실향, 성장통 등의 문제 상황에 처했으며, 이때 음악은 비애, 자존감, 비통함, 해방감 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563자]

[문제 2] 제시문 (라)에 나타나는 ‘남자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을 제시문 (마)와 (바)의 내용을 각각 고려하여 비판하고, 제시문 (라)의 등장인물 ‘나’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 제시문 (사)와 (아)를 각각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마)는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의 신체적 차이가 특정 방식의 양육 과정을 통해 근본적 차이로 인식된다면 성별에 대한 사회적 통념의 기준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남자다움에 대한 통념은 성별에 따른 근본적 차이이기보다는 사회적 과정을 통해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바)에 의하면, 평균은 한 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대푯값이긴 하나 동시에 집단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한다. 남자다움에 대한 통념은 마치 평균을 통해 집단을 이해하는 것과 같이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평균과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생물학적 특성에 구속받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자유 의지와 문화적 힘을 통해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성별과 그에 따른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는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처들이 부끄러움거리가 아니고 삶의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기에 나는 지난 삶의 흉터들을 회피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단단해진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567자]

[문제 3] 새로 발표된 노래가 실제 A가 작곡한 노래인 경우 음악 평론가가 이 노래를 A가 작곡한 노래라고 판정할 확률은 p 이고, 실제 B가 작곡한 노래인 경우 이 노래를 A가 작곡한 노래라고 판정할 확률은 q 라고 하자. 이때 p 가 q 의 $\frac{16}{5}$ 배 이상이 될 α 의 최솟값을 오른쪽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20점, 원고지 작성법을 준수할 필요 없음]

[예시 답안]

(1) 새로운 노래가 기준 1을 만족하여 음악 평론가가 A가 작곡한 노래의 1개 소절 이상이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을 S_1 이라 하자. A가 작곡한 노래에 대한 판단 확률을 P_A , B가 작곡한 노래에 대한 판단 확률을 P_B 라고 하면, 기준 1에 대한 확률은 다음과 같다.

$$P_A(S_1) = 1 - (1 - a)^2$$

$$P_B(S_1) = 1 - (1 - 0.2)^2 = 0.36$$

(2) 새로운 노래가 기준 2를 만족하는 사건을 S_2 라 하고, X_1 은 A가 작곡한 노래의 후렴구 길이, X_2 는 B가 작곡한 노래의 후렴구 길이를 나타낸다.

$$P_A(S_2) = P(44 \leq X_1 \leq 58) = P\left(\frac{44-50}{4} \leq Z \leq \frac{58-50}{4}\right) = P(-1.5 \leq Z \leq 2)$$

$$= 0.43 + 0.47 = 0.9$$

$$P_B(S_2) = P(44 \leq X_2 \leq 58) = P\left(\frac{44-58}{\frac{14}{3}} \leq Z \leq 0\right) = P(-3 \leq Z \leq 0) = 0.5$$

(3) 음악 평론가가 노래를 듣고 A가 작곡한 노래라고 판정하는 사건을 S 라고 하자. 이때 기준 1과 2는 서로 독립적으로 적용되므로 p 와 q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p = P_A(S) = P_A(S_1 \cap S_2) = P_A(S_1)P_A(S_2) = [1 - (1 - a)^2] \times 0.9$$

$$q = P_B(S) = P_B(S_1 \cap S_2) = P_B(S_1)P_B(S_2) = 0.36 \times 0.5$$

p 가 q 의 $\frac{16}{5}$ 배 이상이 될 a 의 최솟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 - (1 - a)^2] \times 0.9 \geq 0.18 \times \frac{16}{5}$$

$$\Rightarrow 1 - (1 - a)^2 \geq 0.2 \times \frac{16}{5} = \frac{16}{25}$$

$$\Rightarrow (1 - a)^2 \leq \frac{9}{25}$$

$$\Rightarrow -\frac{3}{5} \leq 1 - a \leq \frac{3}{5}$$

$$\Rightarrow \frac{2}{5} \leq a \leq \frac{8}{5}$$

$$\Rightarrow \frac{2}{5} \leq a \leq 1 \quad \because 0 \leq a \leq 1$$

따라서 a 의 최솟값은 $\frac{2}{5}$ ($= 0.4$) 이다.

[별해]

(2) 에서 S_1 에 대한 확률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A \text{가 작곡한 노래에 대한 판단 확률: } P_A(S_1) = {}_2C_1 a(1-a) + {}_2C_2 a^2(1-a)^0 = 2a - a^2$$

$$B \text{가 작곡한 노래에 대한 판단 확률: } P_B(S_1) = {}_2C_1 (0.2)^1(0.8)^1 + {}_2C_2 (0.2)^2(0.8)^0 = 0.36$$

이때 기준 1과 2는 서로 독립적으로 적용되므로 p 와 q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p = P_A(S) = P_A(S_1 \cap S_2) = P_A(S_1)P_A(S_2) = (2a - a^2) \times 0.9$$

$$q = P_B(S) = P_B(S_1 \cap S_2) = P_B(S_1)P_B(S_2) = 0.36 \times 0.5$$

p 가 q 의 $\frac{16}{5}$ 배 이상이 될 a 의 최솟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begin{aligned} (2a - a^2) \times 0.9 &\geq 0.18 \times \frac{16}{5} \\ \Rightarrow (2a - a^2) &\geq 0.2 \times \frac{16}{5} = \frac{16}{25} \\ \Rightarrow a^2 - 2a + \frac{16}{25} &\leq 0 \\ \Rightarrow \left(a - \frac{2}{5}\right)\left(a - \frac{8}{5}\right) &\leq 0 \\ \Rightarrow \frac{2}{5} \leq a \leq \frac{8}{5} \\ \Rightarrow \frac{2}{5} \leq a \leq 1 &\quad \because 0 \leq a \leq 1 \end{aligned}$$

따라서 a 의 최솟값은 $\frac{2}{5}$ (= 0.4) 이다.

[문제 2]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등장인물의 삶 전반에 드러나는 ‘난관’ 및 그 과정에서 음악이 하는 ‘역할’을 각각 찾아 정확하게 작성했는지 평가한다. 단, ‘난관’을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 한정 짓지 않고 등장인물의 삶에 나타난 굴곡이나 문제적 상황을 찾아 작성해야 하며, (가)에서 음악적 행위를 하는 인물은 최 씨이므로, 이생을 주체로 서술한 경우 오답이다. (32점)

(가) 난관: 최 씨의 난리 중에 죽임을 당한 후 이생과 재회하나 결국 헤어져야만 한다는 운명에 놓여있음. (4점)

역할: 최 씨의 억울한 삶에 대한 한탄과 기약 없는 이별에 대한 애절함을 고조시킴. (4점)

(나) 난관: ‘나’는 가난 때문에 침수에 취약한 반지하에 살면서 욕망이 억눌린 채 피아노조차 마음대로 치지 못하는 처지임. (4점)

역할: 동경하지만 온전히 누릴 수 없는 대상이자 자존감을 확인하게 하는 도구임. (4점)

(다) 난관: ‘그’는 고향도 부모도 혐오하던 여성도 잃은 후 어디에도 마음 두지 못한 채 떠돌아다니는 신세임. (4점)

역할: 민족의 처참한 사회상을 묘사하면서도 등장인물의 비애와 울분을 담고 있음. (4점)

(라) 난관: ‘나’는 남자다움을 강요하는 주변 시선과 폭력적 상황에 노출되었으나 이에 대응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음. (4점)

역할: 사회적 통념을 비판하고 등장인물의 자기 긍정 및 해방의 통로로 작용함. (4점)

2) 네 개의 제시문에서 ‘삶의 난관’과 ‘음악의 역할’을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서론/본론/결론)로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즉, 글을 시작하는 도입 부분과 글을 맺는 결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8점)

① 하나의 완성된 논리적인 글로 구성하라고 요구하므로, 답안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함. (3점)

② 서론에서 문제를 요약하고, 결론에서 각 제시문의 차이가 핵심적 표현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함. (5점)

[예시]

서론: 각 제시문에는 삶의 난관 및 음악의 역할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결론: 이처럼 등장인물은 운명, 가난, 실향, 성장통 등의 문제 상황에 처했고, 이때 음악은 개인적 정서를 표현하는 동시에 사회상을 반영한다.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2]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각 제시문에서 각각 방식과 결과를 찾아 제시 (32점)	4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함	25~32점
		3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함	17~24점
		2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함	9~16점
		1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함	4~8점
	② 논리적 구성 (3점) 및 결론 제시(5점)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	1~3점
		본론의 내용을 결론으로 잘 도출하여 요약했는지 여부(참신성도 고려)	2~5점

[문제 2]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 제시문 (마)와 (바)를 각각 고려하여 제시문 (라)의 ‘남자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을 비판했는지 평가한다. (20점)

- ①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의 신체적 차이가 특정 방식의 양육 과정을 통해 근본적 차이로 인식된다면 성별에 대한 사회적 통념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마)의 논지를 요약함. (5점)
- ② 남자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이 성별에 따른 근본적 차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과정을 통해 구성된 것임을 기술함. (5점)
- ③ 평균은 한 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대푯값이긴 하나 동시에 집단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 한다는 (바)의 주장을 요약함. (5점)
- ④ 남자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은 마치 평균을 통해 집단을 이해하는 것과 같이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평균과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기술함 (5점)

2) 제시문 (사), (아)를 각각 고려하여 (라)의 ‘나’에게 필요한 자세를 도출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20점)

- ① 인간은 자신의 생물학적 특성에 구속 받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자유 의지와 문화적 힘을 통해 그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의 내용을 요약함. (5점)
- ② ‘나’에게는 성별과 그에 따른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삶을 발전시켜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요지를 기술함. (5점)
- ③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처들은 부끄러움거리가 아닌 삶의 가치가 될 수 있다는 (아)의 내용을 요약함. (5점)
- ④ ‘나’가 지난 삶의 흉터들을 회피하지 말고 그 과정에서 단단해진 자기 삶을 긍정하고 당당해져야 함을 기술함. (5점)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2]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마), (바)를 통해 남자다움의 고정관념 비판 (20점)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의 신체적 차이가 특정 방식의 양육 과정을 통해 근본적 차이로 인식된다면 성별에 대한 사회적 통념의 기준이 될 수도 있음	5점
		남자다움의 고정관념이 성별에 따른 근본적 차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과정을 통해 구성된 것임	5점
		평균은 한 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대푯값이긴 하나 동시에 집단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 함	5점
		남자다움의 고정관념은 마치 평균을 통해 집단을 이해하는 것과 같이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평균과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5점
	② (사), (아)를 통해 ‘나’에게 필요한 자세 도출 (20점)	인간은 자신의 생물학적 특성에 구속 받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자유 의지와 문화적 힘을 통해 그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	5점
		‘나’에게는 성별과 그에 따른 통념에 얽매이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삶을 발전시켜 나가는 자세가 필요함	5점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처들은 부끄러움거리가 아닌 삶의 가치가 될 수 있음	5점
		‘나’는 지난 삶의 흉터들을 회피하지 말고 그 과정에서 단단해진 자기 삶을 긍정하고 당당해져야 함	5점

[문제 3] 20점 만점

- 기준 1을 충족하는 경우의 확률을 정확히 계산하면 **+6점**
 - A가 작곡한 노래에 대한 판단 확률을 정확히 계산하면 **+3점**
 - B가 작곡한 노래에 대한 판단 확률을 정확히 계산하면 **+3점**
- 기준 2를 충족하는 경우의 확률을 정확히 계산하면 **+6점**
 - A가 작곡한 노래에 대한 판단 확률을 정확히 계산하면 **+3점**
 - B가 작곡한 노래에 대한 판단 확률을 정확히 계산하면 **+3점**
- p 와 q 를 정확히 계산하면 **+4점**
 - p 를 정확히 계산하면 **+2점**
 - q 를 정확히 계산하면 **+2점**
- α 의 최솟값을 정확히 계산하면 **+4점**

※ 논리 전개 과정이 맞으면 답이 틀리더라도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채점자는 답안의 완성도에 따라 ± 1 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중앙대학교는 교육과 연구,
모든 분야에서 대학교육의
혁신을 선도합니다.

미래 혁신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며
중앙은 새로운 시대를 그려나갑니다.

BECAUS HERO

비카우스히어로 - 중앙을 선택한 당신은 이미 중앙의 영웅이다



06974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TEL 02) 820-6393 FAX 02) 813-8158
<https://admission.cau.ac.kr>

